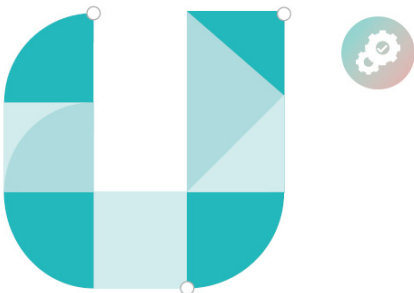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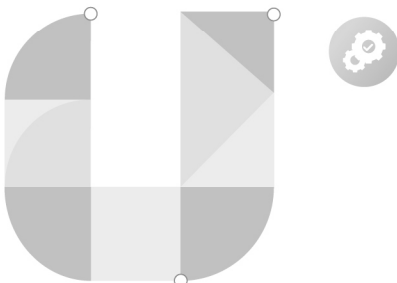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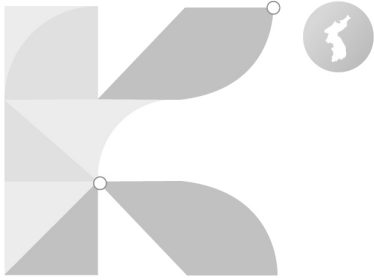
#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현승수 | 이우태 | 이재영  
김규륜 | 이현태





#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 연구책임자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이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규륜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현태 (인천대학교 조교수)

## 연구지원

안정은 (통일연구원 연구원)

##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KINU 연구총서 2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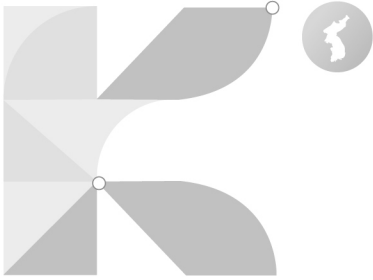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저자	현승수, 이우태, 이재영, 김규륜, 이현태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평화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I S B N	979-11-6589-009-4 93340
가격	11,500원

---

© 통일연구원, 202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차례

요약 .....	11
I. 서론   현승수 .....	17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9
2. 연구 내용과 구성 .....	21
II. 중·러 국가 관계의 이론적 검토   이우태 .....	25
1. 동맹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27
2.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8
3. 소결 .....	60
III. 중·러 정치·군사 협력   현승수 .....	65
1. 중·러 정치 협력의 추이 .....	67
2. 중·러 군사 협력의 추이 .....	78
3. 중·러 정치·군사 협력의 추동 요인 .....	88
4. 중·러 정치·군사 협력의 제약 요인 .....	95
5.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101
IV. 중·러 경제 협력   이현태 .....	107
1. 중·러 경제 협력 추이 .....	109

2. 중·러 경제 협력의 영향 요인과 전망 .....	134
3.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141
<b>V. 중·러 에너지 협력   김규륜 .....</b>	<b>145</b>
1.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현황 .....	149
2. 중·러 에너지 협력의 추이 .....	164
3. 중·러 에너지 협력의 발전방향 .....	174
4.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180
<b>VI. 중·러 지역 전략   이재영 .....</b>	<b>187</b>
1. 중국의 지역 전략으로서 일대일로와 상하이협력기구 .....	189
2. 러시아의 지역 전략으로서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대유라시아 동반자 관계 .....	199
3. 중·러 지역 전략의 비교와 협력 추이 .....	207
4. 중·러 지역 전략의 추동 요인과 제약 요인 .....	217
5.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229
<b>VII.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제안   현승수 .....</b>	<b>233</b>
<b>참고문헌 .....</b>	<b>242</b>
<b>최근 발간자료 안내 .....</b>	<b>255</b>

# 표 차례

〈표 II-1〉 ‘동반자 관계’에 대한 중국 연구자의 정의 .....	43
〈표 II-2〉 중국의 동반자 관계 유형과 해당 국가 .....	46
〈표 II-3〉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 .....	49
〈표 II-4〉 동맹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특징 비교 .....	61
〈표 III-1〉 2010~2019년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	93
〈표 III-2〉 2010~2019년 미국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	93
〈표 IV-1〉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2000~2018년) .....	109
〈표 IV-2〉 러시아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입 추이 .....	113
〈표 IV-3〉 러시아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변화 .....	115
〈표 IV-4〉 러시아의 대중국 제조업 기술수준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	117
〈표 IV-5〉 중국의 대러시아 제조업 수출품목 변화 .....	118
〈표 IV-6〉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 변화 .....	119
〈표 IV-7〉 중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변화(HS4 기준) .....	120
〈표 IV-8〉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변화(HS4 기준) .....	121
〈표 IV-9〉 2003~2018년 중국과 러시아 간 직접투자 추이 .....	124
〈표 IV-10〉 중국과 러시아 경제관계의 영향 요인 .....	137
〈표 V-1〉 중국의 주요 에너지 수입과 수출 .....	158
〈표 V-2〉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입과 수출 현황 .....	163
〈표 V-3〉 러시아의 석유 대중국 수입, 수출 현황 .....	166
〈표 V-4〉 러시아의 석탄 대중국 수입, 수출 현황 .....	167



〈표 V-5〉 러시아의 천연가스 대중국 수입, 수출 현황 .....	168
〈표 V-6〉 중국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입 전 세계 대비 대러시아 점유율 .....	170
〈표 VI-1〉 중국 정부 발표 일대일로 성과 .....	191
〈표 VI-2〉 중국과 러시아의 지역 전략 비교 .....	207
〈표 VI-3〉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과 경제 규모 비교 .....	224

# 그림 차례

〈그림 Ⅲ-1〉 러시아의 해외 및 대중국 무기 수출(1992~2019년) ……	85
〈그림 Ⅳ-1〉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2000~2018년) ……	111
〈그림 Ⅳ-2〉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 ……	112
〈그림 Ⅳ-3〉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입 비중 추이 ……	112
〈그림 Ⅳ-4〉 중국의 대러시아 제조업 기술수준별 수출 추이 (2000~2018년) ……	116
〈그림 Ⅳ-5〉 러시아의 대중국 제조업 기술수준별 수출 추이 (2000~2018년) ……	116
〈그림 Ⅳ-6〉 러시아 대중국 원유(HS 2709) 수출 추이 ……	122
〈그림 Ⅳ-7〉 중국과 러시아 간 직접투자액 추이 ……	125
〈그림 Ⅳ-8〉 중국-러시아의 상호 직접투자(ODI) 비중 추이 ……	125
〈그림 Ⅳ-9〉 중국과 러시아의 결제시스템(CIPS, SPFS) 적용 범위 ……	129
〈그림 Ⅳ-10〉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구성 변화 ……	131
〈그림 Ⅳ-11〉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결제에서의 달러 비중 추이 ……	132
〈그림 Ⅴ-1〉 중국의 석유 생산량과 상품별 소비량 ……	154
〈그림 Ⅴ-2〉 중국의 유형별 석탄 생산량과 소비량 ……	155
〈그림 Ⅴ-3〉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과 소비량 ……	156
〈그림 Ⅴ-4〉 중국의 전기 생산량과 소비량 ……	157
〈그림 Ⅴ-5〉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과 상품별 소비량 ……	159
〈그림 Ⅴ-6〉 러시아의 상품별 석탄 생산량과 소비량 ……	160

〈그림 V-7〉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량과 소비량 .....	161
〈그림 V-8〉 러시아의 전기 생산량과 소비량 .....	162
〈그림 V-9〉 러시아 동부지역의 가스자원 개발 및 가스전송체계 구축도 .....	174
〈그림 VI-1〉 유라시아 지역 협력체 설립 단계 .....	202
〈그림 VI-2〉 러시아와 다른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 간 역내 무역 규모 .....	203
〈그림 VI-3〉 러시아의 대중국 무역 .....	213
〈그림 VI-4〉 중국과 EAEU와의 무역 규모 .....	216
〈그림 VI-5〉 2019년 세계 무역 중 중국과 러시아의 비중 .....	225



이 연구는 중·러 관계를 정치·군사, 경제, 에너지 그리고 지역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들은 현재 중·러 관계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분야들이며, 중·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의 각 장은 해당 분야에서 중·러가 거쳐 온 관계의 역사와 협력의 현재 그리고 협력 추동 요인과 제약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미래 전망과 함께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도 분석하여 제시한다.

제II장에서는 중·러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중·러 관계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두 나라의 군사 동맹 체결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중·러 동맹이 실현 가능한지, 또 두 나라가 굳이 양국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지속해서 동반자 관계의 수준을 격상시켜 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이 장에서는 동맹 형성의 원인과 유형, 갈등 요인을 고찰하고, 중·러 양국이 발전시켜 오고 있는 동반자 관계의 성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동반자 관계와 동맹의 개념적, 실제적 상이(相異)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 인식하고 있는 동반자 관계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중·러 관계의 정치·군사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1940년대부터 시작된 두 나라의 관계가 냉전 시기와 냉전 이후 시기, 국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격상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고찰한다. 또 두 나라의 정치·군사 협력을 추동하고 제약하는 요인들도 아울러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중·러 간의 경제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로 무역, 투자, 금융을 중심으로 경제 교

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2014년 대러 제재를 기준으로 하는 전후 시기 비교가 관심사이다. 제재 전후에 중·러 경제 협력의 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교류의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을 탐구한다.

뒤이어 제V장은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적 에너지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의 현황을 정리한 이후, 중·러 에너지 협력의 추동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제VI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지역 전략, 즉 중국의 일대일로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과 대유라시아 동반자 관계(Greater Eurasian Partnership: GEP)의 성립 배경과 성격을 알아보고, 양국 지역 전략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둘 사이에 내재해 있는 협력과 경쟁의 양상과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끝으로 제VII장에서는 중·러 관계의 전략적 협력 확대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미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정리하면서, 중·러 협력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위협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주제어:** 중국, 러시아, 동반자 관계, 동맹, 중·러 관계

# China-Russia Cooperation and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Hyun, Seungsoo et al.*

This research analyzed China–Russia relations by categorizing the following areas: politics·military, economy, energy, and regional strategy. Those are the areas in China–Russia relations that receive the most attention and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the Korean Peninsula, which shares a border with both China and Russia. Each chapter of this comprehensive paper addressed the history of China–Russia relations, the current status of their cooperation, and the driving and inhibiting factors for their cooperation. It also presented the analysis results of future prospects for China–Russia relations, their potential impacts, and impli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hapter 2 theoretically reviewed China–Russia relations. A major reason for why China–Russia relations receive the international spotlight is owing to a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military alliance. Therefore, a theoretical review is required to figure out whether the China–Russia alliance is feasible and why the two countries set their relations as a partnership

and have continuously sought to raise the level of that partnership. With the reflection of those research questions mentioned above, the research delved into the causes of alliance formulation, types, and conflicting factor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nership developed by China and Russia. The expectation of this study is that with that analysis, one can grasp not only the conceptual and practical difference between partnership and alliance but also the difference of partnership conceived by China and Russia.

Chapter 3 mostly focused on the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Russia relations. The chapter looked into how their bilateral relations, established since the 1940s, have changed over the Cold War period and post–Cold War period and in conjunction with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 also dealt with what kinds of changes have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elevating the partnership. In addition, driving and inhibiting factors in the political and military cooperation were identified.

Chapter 4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deduced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This chapter addressed changes in economic exchange mostly centered on trade, investment, and finance in detail.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making a period–based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2014 sanctions imposed against Russia. This chapter looked into how the size of China–Russia economic cooperation has differed before and after sanctions and how the trends of the exchange have changed.

Chapter 5 explored the past and the present of China–Russia energy cooperation and made a projection on the future. It identified the basic status of the China–Russia energy situ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ir energy cooperation and revealed the driving and inhibiting factors for their energy cooperation.

Chapter 6 specified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state–led regional strategies ambitiously pursued by China and Russia, such a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Russia’s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and Greater Eurasian Partnership (GEP). By making comparisons between the regional strategies of the two countries, this chapter sought to find out how the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herent in bilateral relations unfolds and predict possible outco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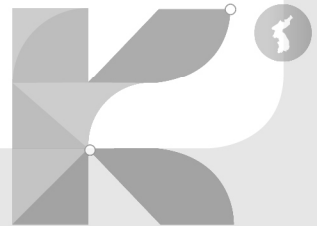
Lastly, Chapter 7 seeks to summarize the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that the expansion of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will have on our government’s effort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this chapter would like to propose an implication so

that China–Russian cooperation can improve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an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China, Russia, Partnership, Alliance, China–Russia relations

# I. 서론

현승수 통일연구원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유라시아 지역의 양대 강국이며, 세계정세는 물론 한반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고, 이들 국가 간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번영,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시작하는 2020년 1월, 한반도의 상황은 안갯속이었다. 2017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오는 듯 보였던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는 2년이 채 못 되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과 북·미 간 협상의 교착 상태 지속, 남북한 관계의 정체로 인해 좌절되어 가는 듯 보인다.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중단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와 초대형 방사포 등의 발사 시험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협력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 전망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상은 그리 밝지 않다. 모처럼 싹 틔운 평화를 꽃피우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동과 신념, 미국 내 정치의 혼선, 미·중 경쟁 확대와 미·일 대 중·러 구도의 재현 가능성이 운위되는 냉전형 동북아 지정학의 강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맞물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해양세력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이 강화되는 현상은 한반도의 미래를 더욱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통적인 대륙세력이며, 두 나라의 결속은 해양세력과의 대결 구도를 강화해 결국 한반도의 지정학적 민감성을 더욱 자극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15 경축사에서

선언했던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서의 한국은 운신의 폭이 더욱 좁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발전시키면서도 대륙세력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다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번영으로 연결해야 하는 큰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 부활 현상을 직시하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 변수인 중·러 관계에 주목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20세기 중반 사회주의 양대 강국으로서 관계를 시작했으나, 우호적이었던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 오히려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국경 분쟁과 이념 논쟁을 통해 서로를 적대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신생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으며 양국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국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우호·협력의 물꼬를 텃다.

중·러 관계는 시진핑(习近平) 주석과 푸틴(Vladimir V. Putin) 대통령의 치세에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반발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의 대러 경제 제재가 발동되면서, 러시아의 대중국 접근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두 나라는 다양한 국제문제에서 미국의 정책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제안 및 구사하면서 대미 대결 구도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조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반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중·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 주도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공유한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두 나라는 미국이

선(先) 핵 폐기, 후(後) 지원을 주장하며 북한에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한다고 인식한다. 중·러의 이 같은 문제 인식은 두 나라가 함께 작성한 ‘한반도 문제 해결 로드맵’에 반영되어 있으며, 국제 연합(United Nations: UN) 차원에서 대북 제재의 완화 필요성을 공동으로 주창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와 지지,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대미 견제를 위한 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또 어떤 형태로 지속할 것인지, 최근 수년간 심화 및 강화되어 온 중·러 협력이 정치, 안보 및 경제와 지역 정세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와 연계시켜 분석 및 전망해 본다.

## 2. 연구 내용과 구성

이 연구는 중·러 관계를 정치·군사, 경제, 에너지 그리고 지역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들 주제는 현재 중·러 관계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분야들이며, 중·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의 각 장은 해당 분야에서 중·러가 거쳐 온 관계의 역사와 협력의 현재 그리고 협력 추동 요인과 제약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미래 전망과 함께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도 분석하여 제시한다.

제II장에서는 중·러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기존 유사 연구들이 도식적인 국제정치 이론을 대입해 국가 관계를

분석하던 틀 중심의 이론적 고찰을 지양하고, 중·러 양국 관계의 성격 자체에 주목한다. 중·러 관계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두 나라의 군사 동맹 체결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중·러 동맹이 실현 가능한지, 또 두 나라가 굳이 양국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지속해서 동반자 관계의 수준을 격상시켜 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이 장에서는 동맹 형성의 원인과 유형, 갈등 요인을 고찰하고, 중·러 양국이 발전시켜 오고 있는 동반자 관계의 성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동반자 관계와 동맹의 개념적, 실제적 상이(相異)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 인식하고 있는 동반자 관계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중·러 관계의 정치·군사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1940년대부터 시작된 두 나라의 관계가 냉전 시기와 냉전 이후 시기, 국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격상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고찰한다. 또 두 나라의 정치·군사 협력을 추동하고 제약하는 요인들도 아울러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중·러 간의 경제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로 무역, 투자, 금융을 중심으로 경제 교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분석 시기는 양국이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이다. 특히 2014년 대러 제재를 기준으로 하는 전후 시기 비교가 관심사이다. 제재 전후에 중·러 경제 협력의 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교류의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을 탐구한다.

뒤이어 제Ⅴ장은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최근 중·러 에너지 협력이 국제적 관심



을 끌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9년 12월 개통된 ‘시베리아의 힘 (Power of Siberia)’ 가스관이다. 시베리아의 힘 프로젝트는 러시아 동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 매가 프로젝트로서 총 길이는 3,000km에 달한다. 향후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중·러 협력은 주목해야 할 변수다. 이 장에서는 먼저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적 에너지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의 현황을 정리한 이후, 중·러 에너지 협력의 추동 요인과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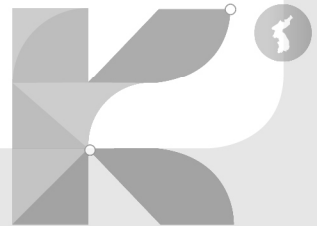
제Ⅵ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지역 전략, 즉 중국의 일대일로와 SCO, 러시아의 EAEU와 GEP의 성립 배경과 성격을 알아보고, 양국 지역 전략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둘 사이에 내재해 있는 협력과 경쟁의 양상과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끝으로 제Ⅶ장에서는 중·러 관계의 전략적 협력 확대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미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정리하면서, 중·러 협력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위협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한다.



# II. 중·러 국가 관계의 이론적 검토

이우태 통일연구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 이후 여러 방면에서 꾸준히 발전되었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계기로 강화되었다. 또한, 최근 무역 갈등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또한 지속하면서 중·러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발전 양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양국 관계가 동맹(alliance) 수준으로 발전될 것인지, 아니면 두 강대국이 동맹이 아닌 현재와 같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성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동맹 형성의 원인과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 1. 동맹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가. 동맹의 정의

국가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안보를 가장 먼저 확보하려 하고 이를 위해 국력(power)을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어떠한 국가라도 국력 증진을 위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각국은 가장 효과적으로 안보를 달성하려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가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라 할 수 있다.<sup>1)</sup>

‘동맹’은 그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진다. 우선 동맹은

---

1)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전략의 발전 방향,” 『전략연구』, 제56호 (2012), p. 185.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목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맺는 공식적 협정’<sup>2)</sup> 또는 ‘특정 상황에서 비회원국에 대항해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국가들의 공식적 결사체’라고 정의된다. 더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동맹을 ‘참여국들이 상호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투입하는 잠재적 전쟁 공동체(latent war community)’라고 정의하기도 한다.<sup>3)</sup> 또한, ‘국제질서에서 단순히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수단’으로서 동맹을 국가 간 분쟁을 막기 위한 권력 배분의 수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sup>4)</sup>

즉, 동맹은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 간에 일정 기간 협조와 협력을 전제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 상호 능력을 집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sup>5)</sup> 다자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이나 경제 분야의 협조 같은 명백히 적국을 가정하지 않는 국가 간 협력의 형태와는 달리, 동맹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적국의 존재를 가정하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맹은 타국(실재적 혹은 잠재적 적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 또는 전쟁의 가능성을 가정하고 있으며, 동맹 참여국 간의 연합을 통한 군사력 사용은 동맹국들의 안보를 도모하여 현상 유지(status quo) 또는 세력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다.<sup>6)</sup>

2) Ole R. Holsti, P. Terrence Hopmann and John D. Sullivan, *Unity and Disintegration in International Alliance: Comparative Stud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3), p. 4, 재인용: 위의 글, p. 184.

3) Robert E. Osgood, *Alliance and American Foreign Poli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8), pp. 68~70, 재인용: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전략의 발전 방향,” p. 185.

4) Bruce Bueno de Mesquita,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olitics: People's Power, Preferences, and Perceptions* (Washington D.C.: CQ Press, 2000), pp. 408~410.

5)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2004), p. 65.

6) 위의 글, p. 65.

## 나. 동맹 형성의 원인

### (1) 세력균형

국가는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제질서에서 세력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여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에 국가는 타국과 동맹 결성을 통해 세력 불균형을 막고자 한다. 이러한 논리는 왈츠(Kenneth N. Waltz)가 주창한 ‘신현실주의(neo-realism)’나 현실주의 계열 이론인 ‘세력균형론(Balance of Power theory)’,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으로써 국가는 세력균형의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동맹을 맺고, 동맹의 유효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나 타국과의 세력균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기존의 동맹이 파기될 수 있다고 한다.<sup>7)</sup> 결국, 세력균형이 동맹을 형성하게 한다는 논리에는 국가의 힘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국제질서가 무정부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무정부적 국제질서 하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세력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맹의 형성은 생존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 (2) 위협 인식

동맹이 형성되는 이유에서 ‘위협’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국가는 실질적으로 ‘힘’의 균형을 위해서 동맹을 맺기보다는 ‘위협’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동맹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즉 동맹은 자신의 생

---

7) 김우상, “국제질서의 이해와 변화 전망,” 박광희 편, 『21세기 세계질서: 변혁시대의 적응논리』 (서울: 오름, 2003), p. 57.

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되고, 상대를 현실적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할 때는 단순히 상대의 국력이나 군사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국에 ‘위협’이 되는지를 가늠하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9)</sup>

‘위협균형론(balance of threat)’을 주창한 월트(Stephen Walt)에 따르면, 국가는 위협으로 인식되는 세력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고자 동맹을 형성하는데, 위협으로 인식하는 과정에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고려한다고 한다. 즉 동맹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위협은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하는 ‘주관적 해석’의 과정이라는 것이다.<sup>10)</sup>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체성(identity)’인데 정체성을 공유하는 행위자들은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고, 공유된 정체성은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 동맹 형성에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sup>11)</sup> 즉, “공유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적의 개념과 적의 위협의 개념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유된 정체성을 가진 국가들은 서로를 가장 적절한 동맹상대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sup>12)</sup>

### (3) 국가 이익

동맹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개별 국가는 자력으로 안보

---

8) 조남풍,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관한 연구 - 구조변화와 발전방안 모색,”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 19.

9)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p. 73.

10) 위의 글, p. 73.

11) Michael N. Barnett, “Identity and Alliance in the Middle East,” 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ed. Peter J. Katzenstei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 410.

12)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p. 74.



를 증진하게 시키지 않고 타국과 동맹을 맺는가이다. 이에 대한 답은 결국 국가는 자국의 군사력 증가 또는 동맹이라는 정책적 옵션을 두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며, 때로는 자력갱생, 때로는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타국과의 동맹을 선택했을 때, 국가는 군사력 향상을 위해 소모되는 재원을 아낄 수 있으며 국내 정치의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정치적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타국과의 동맹 체결은 자국의 군사비 지출을 최대한 아끼는 동시에 동맹국의 안보력의 도움을 받아 자국의 안보를 빠른 시일 안에 증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sup>13)</sup>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정책이 ‘동맹 결성’인 것이다. 이처럼 동맹 형성의 이유를 ‘국가 이익’에서 찾는 슈웰러(Randall L. Schweller)는 동맹의 목적을 자기보존(self-reliance)을 위한 ‘균형’과 자기 확장(self-extension)을 위한 ‘편승’으로 구분하는데,<sup>14)</sup>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맺는 국가들은 균형보다는 편승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sup>15)</sup> 여기서 ‘편승’의 개념은 단순히 약소국이 강대국의 압력에 의해 강대국 편에 서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 편에 서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이는 동맹 형성의 이유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는 공통점이 있다.<sup>16)</sup>

---

13) 위의 글, pp. 67~68.

14)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1994), p. 74.

15) 위의 글, p. 99.

16) 위의 글, p. 93.

## 다. 동맹의 유형

동맹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 공식성의 여부, △ 지리적 범위, △ 동맹 참여국의 수, △ 구속 및 자율성의 정도, △ 참여국의 국력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 (1) 공식성의 여부

동맹은 공식적 협이나 협정에 의한 공식적 동맹과 이러한 공식적 합의 없이 협력을 맺는 비공식적 동맹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는 협의나 협정으로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동맹은 공식적으로 관계를 표명한다.

그러나 안보나 군사협력을 위한 공식적 합의 없이도 동맹 관계와 같은 협력을 추진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194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전하기 이전의 미국과 영국의 관계, 1971년 이전의 소련과 이집트의 관계,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등이 있다. 또한, 오늘날의 여러 나라는 동맹국과 공식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sup>17)</sup> 더불어 반드시 비공식적 동맹이 공식적 동맹보다 협력의 정도나 신뢰성이 약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 (2) 지리적 범위

동맹은 협력의 지리적 범위에 따라 범세계적 동맹과 지역적 동맹으로 나뉜다. 범세계적 동맹은 세계적 차원에서 세력균형을 목적으로 형성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각각의 세계전략

---

17)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 12.

차원에서 동맹을 형성했고, 그 결과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Pact: WP)이었다. 이에 반해 지역적 동맹은 특정 지역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형성되는 동맹이다. 이러한 형태의 동맹은 다른 지역에서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위한 한미동맹, 미일동맹, 북중동맹 등이 있다.<sup>18)</sup>

### (3) 동맹 참여국의 수

동맹 참여국의 수에 따라서도 동맹의 유형이 분류될 수 있다. 동맹에 참여한 국가의 수가 2개일 경우 양자 동맹이 구현된다. 양자 동맹은 2개국에 참여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상호 간 이익의 조정이 쉽고 동맹을 수립하고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다.<sup>19)</sup> 양자 동맹은 동맹 의무 양태에 따라 일방 동맹과 쌍무 동맹으로 나뉜다. 일방 동맹은 한 국가만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며, 쌍무 동맹은 동맹을 체결한 양국 상호 간 의무를 지는 형태이다.

다자 동맹은 3개 국가 이상이 동맹에 참여하는 형태로, NATO, 태평양양안전보장조약에 기반을 둔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동맹(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ANZUS) 등이 있다.<sup>20)</sup> 다자 동맹은 여러 참여국의 이익과 연계되어 있어 상호 간 조정이 어려워서 주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국가가 주도할 때 동맹의 형성과 지속이 가능하다.<sup>21)</sup>

18) 서춘식, “군사동맹론,” 육군사관학교 편저, 『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2004), p. 124.

19) 조남진, 『국가안보의 이해』 (서울: 노드미디어, 2010), p. 127.

20) ANZUS는 1986년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3개국 군사 동맹이었으나 미국과 뉴질랜드의 동맹 조약이 효력을 잃으면서 현재로써는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과 호주의 동맹으로 유지되고 있다.

#### (4) 동맹 구속성 및 자율성 정도<sup>22)</sup>

동맹 체제의 구속성과 참여국의 자율성 정도도 동맹의 유형의 기  
준이 될 수 있다. 첫째, 정치형 동맹이다. 정치형 동맹은 평화 시  
안보와 안정보다는 유사시 위협이나 전쟁에서 국가의 생존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협력의 형태는 동맹 당사국 중 일국의 병력이 다른  
국가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의체나 참모진의 소통과 교  
류 등을 통해 군사적 협력을 도모한다. 이를 기반으로 동맹 참여국  
은 동맹 의무 혹은 이데올로기적 구속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이익  
에 따라 동맹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려고 한다. 기본  
적으로 동맹에 부과된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중앙의 권위 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형 동맹의 참여국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유하게 된다. 이럴 경우, 동맹의 구속력은 낮다.

둘째, 주둔형 동맹이다. 주둔형 동맹은 특정 참여국의 일정 이상  
병력이 다른 참여국에 주둔하여 평시의 위협과 함께 전시를 대비하  
는 동맹 형태이다. 주둔형 동맹은 참여국 모두가 행동의 자유를 제약  
받고 동맹 체제의 구속력도 높다. 기본적으로 타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적 자율성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둔형 동맹은 비대칭  
동맹이어서, 강대국의 병력이 약소국의 영토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  
고 자율성·안보 교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약소국은 상  
대적으로 자율성이 낮고 강대국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다. 또한,  
강대국의 행동에 따라 약소국은 자국이 원치 않게 연루(entrapment)  
되는 위협성에 항상 직면하게 된다.

21) 조남진, 『국가안보의 이해』, p. 127.

22) 이수형, “국제체제의 변화가 동맹의 유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제51권  
2호 (2008), pp. 115~117.

셋째, 능력형 동맹이다. 특정 위협에 대한 동맹 참여국들의 군사 이행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는 능력형 동맹은 정치형 동맹과 주둔형 동맹의 특징이 복합적이며 가변적이다. 따라서 능력형 동맹이 어떠한 특징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참여국의 자율성이 달라진다. 능력형 동맹은 국제체제의 형태, 그에 따른 안보위협의 성격, 전쟁 수행 방식 등에 의해 성격이 변화한다. 능력형 동맹이 정치형 동맹에 가까울수록 정치형 동맹의 속성, 즉 높은 자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맹 참여국의 수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주둔형 동맹이 강조되면 능력형 동맹에서 회원국의 수는 일정할 가능성이 크다. 복합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능력형 동맹의 핵심적 특징은 가변성에 있고, 가변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국제체제의 형태이다. 국제질서가 단극체제의 특징을 보일 때 능력형 동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때의 형태는 정치형 동맹의 특징을 보이게 된다. 전쟁의 양상이 비대칭적이고 제한적일 경우 집단안보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능력형 동맹은 정치형 동맹의 성격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쟁의 양상이 대칭적이고 규모가 클 때 능력형 동맹은 주둔형 동맹과 유사한 형태가 된다.

### (5) 참여국의 국력

참여국의 상대적 국력에 따라 대칭 동맹과 비대칭 동맹으로 나뉜다. 대칭 동맹은 국력이 엇비슷한 국가들이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다. 비대칭 동맹은 상대적으로 국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국가들 사이 동맹을 구성하는 형태이다. 대칭 동맹의 경우 비슷한 목적이나 이익이 공유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대체적이다. 반면 비대칭 동맹은 동맹을 통한 목적 달성이나 국익 실현이 다른 경우가 많다. 한미동맹의 경우 한국은 동맹을 통해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담보하는 목적이 있

지만, 미국은 동맹을 통해 동북아시아 전략 차원에서의 세력균형이 이루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후견-피후견 모델,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대칭 동맹에서는 힘이 약한 동맹 참여국의 자율성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 라. 동맹의 갈등 요인

첫째, 동맹 안보 딜레마로 통칭하는 포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의 문제이다. 동맹 참여국들은 동맹 체제에 따른 자율성의 문제와 함께 참여국 각자의 국익, 동맹 의존도, 동맹 공약의 수준 및 책임 이행, 적대국과 동맹국의 이익 충돌 등에 따른 기회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동맹국들 사이에 포기와 연루라는 위험성 작동하여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sup>23)</sup>

이러한 딜레마는 어떤 동맹 형태에서나 작동하나, 특히 약소국과 강대국의 비대칭 동맹에서 두드러지게 작동하게 된다. 약소국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자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려 들지 않기 위해 강대국인 동맹국과 거리를 두게 되면 포기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 강대국과의 동맹이 와해한다면 약소국은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강대국으로부터 포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대국의 이익을 동맹 체제에 충실히 반영하게 되면 약소국은 강대국의 행동에 연루되는 위험성에 직면하게 되고 최악에는 약소국 국익에 반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들어 갈 수도 있다.

둘째, 동맹을 통해 강경한 대외정책이나 모험주의를 자극하여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일 위험성이 있다. 동맹은 우리 측의 군사적 역량에 더해 동맹국의 군사적 역량 일부를

---

23)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180~199.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자력 방위를 위한 군사력 확충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동맹은 협력이 약속되면 그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시간적 이득이 생긴다. 따라서 동맹은 특정 국가가 강경한 대외정책이나 모험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영일동맹은 이러한 동맹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러시아의 만주 진출에 따라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 일본의 이해가 일치했고 1902년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일본은 세계 최강의 해군 강국인 영국의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러시아를 상대로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영일동맹은 동맹 참여국이 2개국과 교전할 때 유효한 방어 동맹이었으나 일본으로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에 가담할 가능성을 없애 러시아에 유리한 삼국간섭 체제를 와해시키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했다.<sup>24)</sup> 일본은 러시아의 만주 재점령과 용암포 점령으로 협상에서 러시아와의 개전도 불사한다는 강경론이 확고했으며, 러시아의 만주 이권 인정과 일본의 한반도 이권 인정이라는 ‘만주·한반도 교환’에 입각했던 초반 협상 제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반도의 중립지대 조항 전면 삭제 및 한반도가 러시아의 권의 밖임을 승인하고 만주에서도 러시아의 행동과 이익은 청과의 조약 내로 제한한다는 원칙으로 강경해졌다.<sup>25)</sup>

셋째, 동맹은 동맹의 상대방이 반동맹 세력을 형성을 자극하거나 다른 동맹에 가입을 유발하는 위험성을 가진다. 이는 일종에 안보 딜레마를 형성하는 위협이다. 안보 딜레마 측면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공격할 의도가 없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그 국가의 의도가 평화적 상태의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따라서 특정

24) 석화정, “러일전쟁,” 문정인·김명섭 편저,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p. 161.

25) 위의 글, pp. 165~167.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을 형성한다면 주변의 다른 국가를 자극할 우려가 존재한다.

냉전 시절 인도, 파키스탄, 미국이라는 삼국 관계는 이러한 위협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두 개의 국가로 나뉘고 현재까지도 갈등을 겪고 있다. 냉전 동안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통제를 위해 파키스탄을 협력국으로 선택했다. 또한, 인도가 추구하던 비동맹 정책이 소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인식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파키스탄과 대립 관계에 있던 인도는 미국-파키스탄 동맹에 대응할 전략적 파트너로 소련을 선택하였고 인도와 소련은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성립했다.

## 2.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가. 동반자 관계의 개념

21세기 외교 관계의 주요 흐름 중 하나인 ‘동반자 관계(partnership)’ 외교는 탈냉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sup>27)</sup> 냉전 이후 경제 글로벌화로 인한 무역량 증대, 인적교류 확대, 비전통 안보 이슈의 중요성 증가 등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하였고 이는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도 드러났다.<sup>28)</sup> 결국, 냉전 시절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있

---

26)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p. 461.

27) 동반자 관계 외교는 ‘동반자 외교’ 또는 ‘파트너십 외교’라고도 불리고 있다.



던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면서, 개별 국가들은 더 많은 ‘동반자’ 또는 ‘친구’를 국제사회에서 찾는 것이 주요 외교 목표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즉 냉전 시기 국가 간 협력관계를 대표하는 개념이 ‘동맹’이라면, 탈냉전 시기에는 ‘동반자 관계’가 ‘동맹’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국가 간 협력 개념이다.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가 현실 외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 명확히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동반자 관계란 국가 간 관계 설정 초기부터 군사·안보 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보다는 경제 분야 교류에 초점을 맞춰 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외교 형태라 정의할 수 있다. 혹은 동반자 관계를 국가 간 협조 관계인 제휴(alignment) 관계로 정의하기도 한다. 제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trans-state)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 협력을 상호 기대(mutual expectations of some degree of policy coordin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9)</sup> 즉 동반자 관계는 동맹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상호 협력을 기대하는 제휴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다.

결국 ‘동반자 관계’ 개념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동반자 관계는 특정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념보다는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둘째, 동반자 관계는 잠재적 적 또는 위협을 상정하는 동맹과는 달리 제3의 적을 가정하지 않으며, 동맹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협력을 추구한다. 셋째, 동반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정

---

28) 도중윤, 『동반자관계(Partnership) 외교연구: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문서를 중심으로』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6), p. 1; 이희옥·왕원,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의 유형화 시론(試論),” 『중국학연구』, 제82집 (2018), p. 236.

29) Thomas S. Wilkins, “‘Alignment’, Not ‘Alliance’ - The Shifting Paradigm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Toward a Conceptual Taxonomy of Alignmen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8 (2012), pp. 56~58.

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 등 국가 간 포괄적인 협력을 지향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반자 관계 외교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교 형태(*framework*)라고 본다면, 국제정치에서 오랫동안 국가 관계의 기반으로 작동하던 동맹과는 어떠한 차이 또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동반자 관계와 동맹은 등장 배경의 차이가 있다. 동맹의 경우 무정부 상태의 국제질서 하에서 힘을 강조하는 국가 간 관계성에 근거해 등장한 개념이고, 동반자 관계의 경우 동맹과는 달리 국가 간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교류와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모두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접근법의 차이가 존재한다.<sup>30)</sup>

둘째, 국가 간 맺는 공식적인 협정으로 행동의 구속력이 있는 동맹과는 달리 동반자 관계는 국가 간 관계성이 경직되어 있지 않고 유연성이 높다. 즉, 동반자 관계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타국과의 관계를 맺거나 중단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국가의 행동반경이 동맹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냉전 이후 여러 국가가 동반자 관계를 선호한 데에는 양자 간 동맹 관계로 인해 자국의 자치권(*autonomy*)을 양보하지 않고 경제적 또는 안보적 협조 관계를 타국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31)</sup> 또한, 동맹은 참여국 간에 공동의 위협이나 적을 상정하기 때문에 제3국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할 때 동맹 참여국과의 관계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동맹국 간 ‘연루’와 ‘포기’라는 동맹의 특성이 동맹 참여국이 행동의 반경을 제한한다. 반면 동반자 관계의 경우 협력의 단계를 경제 분야로부터 정치·군사 분야로까지

30) 이희옥·왕원,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의 유형화 시론(試論),” pp. 237~238.

31) Georg Strüver, “International Alignment Between Interests and Ideology: The Case of China’s Partnership Diplomacy,” *GIGA Working Papers*, 283 (2016), p. 8.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관계 설정의 폭이 동맹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반자 관계는 정치·군사 이외 분야의 협력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협 또는 적국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제3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셋째, 동맹이 ‘위협 중심적’이라면, 동반자 관계는 ‘목표 중심적’이다. 동반자 관계는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분쟁 가능성을 대비하기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먼저 추진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즉,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외교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점을 해소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주로 비군사적인 분야인 인적교류의 확대, 경제 협력, 사회문화 및 과학기술 협력, 보건·복지협력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때로는 정치 및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하기도 한다.<sup>32)</sup>

## 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 외교

동반자 외교는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외교 형태로 그 폭을 넓히고 있으며, 동반자 외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러시아 역시 동반자 외교를 자국의 국가 이익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자 관계 외교는 각각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2) Avery Goldstein,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34; Colleen Chidley, "Towards a Framework of Align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kon*, vol. 41, issue. 1 (2014), p. 154, 재인용: 위의 글, pp. 8~9.

## (1) 중국의 동반자 관계 외교

중국은 1950년 2월 소련과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을, 1961년 7월에는 북한과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타국과 동맹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또한, 1982년 9월, 덩샤오핑(邓小平)은 제12차 당 대회에서 중국의 ‘독립자주외교(立自主外交)’를 제시하였고, 1984년 5월 ‘불결맹(不结盟: 남과 동맹을 맺지 않는다)’, ‘불고립(不孤立: 남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는다)’, ‘불대항(不对抗: 남과 대결하지 않는다)’, ‘불겨냥(不针对第三国: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전방위진행외교활동(全方位进行外交活动: 전방위적으로 외교활동을 추진한다) 등의 ‘4불1전(4不1全)’의 방침을 제시하였다.<sup>33)</sup>

이 외교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동맹외교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중국은 비동맹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중국은 대결 중심의 집단정치를 반대하고 ‘전방위외교활동(全方位外交活动)’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선언이었다.<sup>34)</sup>

이후 중국의 외교는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 또는 전 지구적 사안을 논의하고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는 관계라는 뜻에서 ‘전략 관계’를 활용하고 있으며,”<sup>35)</sup> 이 전략 관계의 구체적 형태가 ‘동반자 관계’인 것이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동반자 관계’에 대한

33) 허문영·마민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21; 饶银华, “论邓小平独立自主和平外交政策,” 《探索》 3期 (2014), pp. 9~12; “南方周末:中国“独立自主”外交政策的不变与变,” 《南方周末》, 2002.12.12., <<http://news.sohu.com/10/74/news204917410.shtml>> (검색일: 2020.10.11.).

34) 예쯔청 저, 이우재 역,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 북스, 2005), pp. 82~83, 재인용: 허문영·마민호, 위의 글, p. 21.

35) 강준영, “전략, 동반자, 협력... 단어와 수사보다 내실에 주목해야,” 『신동아』, 2009.12.4.,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8963/2>> (검색일: 2020.6.14.).

정의는 내리지 않았으나,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를 ‘공동의 이익’과 ‘협력 관계’라고 해석하고 있다(〈표 II-1〉 참조).

〈표 II-1〉 ‘동반자 관계’에 대한 중국 연구자의 정의

연구자	‘동반자 관계’에 대한 정의
쑤하오(苏浩)	“서로 적이 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가지며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 국가 협력 관계”
먼홍화(门洪华)	“국가 간에 공동의 이익을 갖고 공동 행동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국제협력관계”
벤무둥(卞慕东)	“구동존이(求同存异)의 바탕 위에서 협력하는 국가 관계”
닝사오(宁骚)	“협력적 상호 이익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평등한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
판산취(潘珊珊)· 안동쉐(安冬雪)	“국가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경제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국제관계”
왕차오룽(王巧荣)	“국가 간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협력 관계”

출처: 현미정,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효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p. 22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중국의 동반자 외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하여 ‘동반자 관계’를 수식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동반자 외교를 추진하면서 국가 간 관계성의 정도를 구별하기 위해 전략(战略), 합작(合作), 협작(协作), 전천후(全天候), 전면(全面), 전방위(全方位), 호혜(互惠), 창신(创新)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선 전략(战略)은 전체적인 국면을 지도하거나 결정하는 책략으로 중국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자 관계의 측면보다는 전체적인 국면의 측면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립하는 관계이다.<sup>36)</sup> 첸치첸(钱其琛) 전 부총리 또한 동반자 관계는 전략적으로 전

36) “战略,” 汉典, 〈<https://www.zdic.net/hans/%E6%88%98%E7%95%A5>〉 (검색일: 2020.10.6.).

체적인 국면 위에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37)</sup> 따라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상호 국가 전략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기초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지역 및 국제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sup>38)</sup> 중국이 아일랜드 및 일본과 맺고 있는 ‘호혜(互惠)’관계는 ‘상호이익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주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관계이다. 또한, 2016년 최초로 스위스와 맺은 ‘창신(创新)’관계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제조업 영역에서의 창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서의 창신, 금융에서의 창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강조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협력의 방식에서는 ‘협력(cooperation)’의 의미를 지녔으나 그 정도가 다른 합작(合作), 협작(協作)으로 구분 지어 사용하고 있다. “합작’은 ‘손을 잡고 공동으로 같은 일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협작’은 ‘서로 도움이 되고 융합과 조화’의 의미를 포함하여 ‘(어떤 임무를) 힘을 모아 공동으로 완성한다’는 개념이다.”<sup>40)</sup> 따라서 ‘협작’은 ‘합작’에 비해 ‘협력성’을 더욱 강조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관계 정도를 표현하는 개념은 ‘전면(全面)’, ‘전천후(全天候)’, ‘전방위(全方位)’가 있다. ‘전면’에는 전체적인 각 측면을 포괄한다는 의미가 내재하여 있고, ‘전천후’는 어떠한 조건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방위는 모든 방향과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면’과 비교하여 더욱더 입체적이다.<sup>41)</sup>

37) 翁明, “中国外交中的‘伙伴关系框架,’” *上海外事*, 第14期 (2000), p. 8.

38) 肖晔·马程, “中国伙伴关系:内涵、布局与战略管理,” *国际观察*, 第2期 (2019), p. 81.

39) “习近平创建首个创新战略伙伴关系,” *中国新闻网*, 2016.4.1., <<https://www.chinanews.com/gn/2016/04-11/7829718.shtml>> (검색일: 2020.10.6.).

40) 이희욱·왕원,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의 유형화 시론(試論),” pp. 237~238.

199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인 동반자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은 현재까지 104개국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구체적인 유형은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있다(〈표 II-2〉 참조). 앞에서 살펴본 중국 동반자 외교의 수식어들을 참고하여 중국의 대표적 동반자 관계 유형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42)</sup>

첫째, ‘새로운 시대 전면 전략적 협력(協作) 동반자 관계’이다. 이 유형은 중국의 동반자 관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로 유일하게 러시아와 맺고 있는 관계이다. ‘새로운 시대 전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일반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군사 영역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며 국제문제에서 같은 태도를 밝히는 관계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협력’의 의미를 둔 한자어로 ‘협작(協作)’을 사용하고 있어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둘째, ‘전천후 전략적 협력(合作) 동반자 관계’이다. 이 관계는 유일하게 파키스탄과 맺고 있는 관계로써 국내의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 관계는 ‘동맹’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동맹’에 준하는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전면 전략적 협력(合作) 동반자 관계’이다. 이 관계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분야의 협력까지 포함한 관계로, 주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맺는 동반자 관계 수준이었으나 최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게까지 ‘전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41) “全面,” 漢典, 〈<https://www.zdic.net/hans/%E5%85%A8%E9%9D%A2>〉 (검색일: 2020.10.6.); “全天候,” 漢典, 〈<https://www.zdic.net/hans/%E5%85%A8%E5%A4%A9%E5%80%99>〉 (검색일: 2020.10.6.); “全方位,” 漢典, 〈<https://www.zdic.net/hans/%E5%85%A8%E6%96%B9%E4%BD%8D>〉 (검색일: 2020.10.6.).

42) 이 내용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차이나 큐레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시정\_중국의 동반자 관계 지도,” 『차이나큐레이터』, 2018. 12. 17., 〈<http://kcri.wku.ac.kr/main/program.action?cmsid=101050502000&arg=&p=1&om=0&ok=0&st=0&sk=&method=view&idx=57>〉 (검색일: 2020.6.21.).

넷째, ‘전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 중심으로 맺은 관계인 ‘전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이견이 존재하나 전략적인 면에서 협력의 가치가 있는 국가들이다.

다섯째, ‘전략적 협력(合作) 동반자 관계’이다. 이 관계는 현재 한중관계 수준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조하는 관계이다.<sup>43)</sup>

중국의 동반자 외교는 ‘동반자’ 앞에 붙는 수식어에 따라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수교한 이후 맺은 동반자 관계의 변화를 통해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당시 ‘우호협력관계’로 양국관계를 정하고 1998년에는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200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고, 2014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시켜 협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표 II-2〉 중국의 동반자 관계 유형과 해당 국가

관계정도	범위	협력방식	국가명
새로운 시대 전면	전략	협작(協作)	러시아
전천후	전략	합작(合作)	파키스탄
전면	전략	합작(合作)	아프리카연합, 에티오피아, 콩고, 기니,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43) 이성일,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의미: 중국 측 시각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49집 1호 (2010), p. 185; 魏志江, “论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建立及其影响,” 当代亚太, 第4期 (2008), p. 63; 门洪华·刘笑阳, “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 现状评估与未来展望,”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第6期 (2013), p. 67.



관계정도	범위	협력방식	국가명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전략	합작(合作)	한국,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인도, 브루나이, 네팔, 방글라데시
전면	전략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태평양도서국, 남아공, 알제리,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세르비아, 헝가리, 폴란드, 벨로루시,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호주, 파파아뉴기니, 피지,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뉴에,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뉴질랜드
	기타 전략적 동반자		영구적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카자흐스탄, 호혜 전략적 동반자: 아일랜드, 전방위 전략적 동반자: 독일,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영국, 우호 전략적 동반자: 오스트리아, 창신 전략적 동반자: 스위스
	전략		아세안, 아랍국가연맹, 앙골라, 지부티, 모로코, 나이지리아, 수단, 자메이카,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요르단, 오만, 불가리아, 체코, 우크라이나, 캐나다,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우루과이
전방위	우호	합작(合作)	벨기에
전면	우호	합작(合作)	몰디브, 루마니아
전방위		합작(合作)	싱가포르

관계정도	범위	협력방식	국가명
전면		합작(合作)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상투메와 프린시페, 가봉, 라이베리아, 탄 자니아, 적도 기니, 동티모르,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신형		합작(合作)	핀란드
혁신 전면			이스라엘
비동반자 관계			신형대국관계: 미국,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 북한, 전면적 전략적 협력관계: 필리핀, 전략적 호혜 관계: 일본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홈페이지 자료 <<http://www.fmprc.gov.cn/web>> (검색일: 2020.6.21.)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 외교

2020년 1월 1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2020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국정연설 중 대외정책 부분의 핵심은 러시아의 외교·안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각 지역에 확산시키는 이른바 ‘팽창주의’의 지속을 표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천명하고 이는 해당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것이라 밝혔으며, 러시아는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고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sup>44)</sup> 푸틴의 발언은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

44) 심성은, “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제34호 (2020), p. 2.

한 대외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최근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은 물론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가 현재 지역별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II-3〉 참조).

〈표 II-3〉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

대륙	소지역	국가
아시아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몽골
	동남아시아	아세안(ASEAN), 베트남
	서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UAE
아메리카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미	쿠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서유럽	EU, 독일

출처: 저자 작성

### (가) 중국

러시아는 중국과 냉전 이후 5단계의 동반자 관계 설정을 기반으로 국가 간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우선 냉전 종식 직후 양국은 ‘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 ‘건설적 동반자 관계’,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국가 협력 단계의 폭을 확대 및 강화했다.

또한, 러·중 수교 70주년을 맞은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국민 방문해 양국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관계를 격상시킨 이후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동맹의’란 뜻을 가진 ‘사유즈니체스키(Союзнический)’로 표현하면서 양국의 밀월관계를 표현하고 있다.<sup>45)</sup>

## (나) 한국

러시아는 한국과 1990년 9월 수교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오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은 1994년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시켰다. 또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기간 중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 다시 한 번 격상하며 상호 긴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였다.<sup>46)</sup>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 불, 인적 교류 100만 명을 달성해 수교 30주년인 2020년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sup>47)</sup>

---

45) “밀착하는 中·러··· 군사동맹까지 가나,” 『조선일보』, 2019.10.3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143.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143.html)> (검색일: 2020.10.6.).

46) 외교부, 『2018 러시아 개황』 (서울: 외교부, 2018), pp. 124~133.

47) “문재인 대통령, 내년 한러 수교 30주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도약 기대,” 『대한뉴스』, 2019.6.29.,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53>> (검색일: 2020.10.6.).

## (다) 몽골

1980년대 후반 몽골은 전체 교역량 중 78%를 러시아에 의존할 정도로 친(親)러시아 성향의 국가였다.<sup>48)</sup>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몽골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러시아와 몽골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으며, 2000년 푸틴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는 서서히 회복하게 된다. 러시아와 몽골 양국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치·경제·인도주의·국경지역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에너지, 광물 자원개발, 철도 인프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sup>49)</sup>

이후 러시아와 몽골은 2014년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 시 ‘러시아-몽골 전략적 협력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양국의 주요 협력 사안들을 마련했으며, 2019년 9월 양국관계를 ‘우호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협력의 정도를 강화했다.<sup>50)</sup>

## (라) 아세안(ASEAN)

러시아와 ASEAN은 1996년 수교를 맺었으며, 2016년 러시아 소치(Сочи)에서 수교 20주년 ASEAN-러시아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양측은 ASEAN-러시아 포괄적 행동계획(2016-2020)을 합의하였다.<sup>51)</sup> 또한, 러시아는 2017년 ASEAN 전담 주아세안 러

48) Lkhagvadorj Dolgormaa, “몽-중, 몽-러 경제교류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회의 결과, 2019.1.9.), p. 5. (<http://m.kiep.go.kr/m/sub/view.do?bbsId=expertMeeRslt&nttId=202547&pageIndex=1>) (검색일: 2020.10.6.).

49) “몽골-러시아, 전략동반자관계 발전선언 체결,” CRIonline, 2009.8.26., (<http://korean.cri.cn/1660/2009/08/26/1s148442.htm>) (검색일: 2020.10.6.).

50) Lkhagvadorj Dolgormaa, “몽골의 대동북아 지역경제협력 정책방향과 한국과의 연계성,” 『한몽 수교 30년 평가와 향후 협력방향』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공동 세미나 발표집, 2020.5.22.), p. 79.

51) 주아세안 대표부, “아세안 동향 (3.27-4.7),” 『주간 아세안 동향』, 2017.4.7., ([http://overseas.mofa.go.kr/asean-ko/brd/m\\_21543/view.do?seq=1294390&](http://overseas.mofa.go.kr/asean-ko/brd/m_21543/view.do?seq=1294390&)

시아 대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러시아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ASEAN-러시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경제적 보호주의를 경계하며 양측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sup>52)</sup>

#### (마) 베트남

러시아가 베트남이 속해 있는 ASEAN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러시아의 동남아시아 지역 핵심 전략 파트너 국가로서 러시아가 ASEAN과는 별도로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1950년 국교 수립 이후 냉전 시기 전통적인 우방이었으나, 소련 붕괴 이후 양국의 관계는 다소 멀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선언하고 양국관계를 다시 재설정하였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 지원, 국가기간산업 투자, 관광·문화예술 교류 확대 등을 공언했으며, 구식 무기 체제를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sup>53)</sup>

200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이후 꾸준히 우호 관계를 유지하던 양국은 2012년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

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9) (검색일: 2020.10.6.).

52) "ASEAN, Russia Upgrade Ties to Strategic Partnership," XINHUANET, 2018. 11.15.,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11/15/c\\_137607657.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11/15/c_137607657.htm)> (검색일: 2020.10.6.).

53) "러-베트남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선언," 『중앙일보』, 2001.3.2., <<https://news.joins.com/article/4044547>> (검색일: 2020.10.6.).

시키고 에너지 및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했으며, 2015년 4월 러시아 메드베데프(Dmitry A. Medvedev)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당시 양국 간 교역량을 2020년까지 100억 불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는 등 경제교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sup>54)</sup>

## (바) 인도

냉전 시기 인도는 비동맹주의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소련과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1962년 인도와 중국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 소련이 중국을 지원하지 않자 인도와 러시아의 유대관계는 깊어지게 된다. 또한, 탈냉전 이후에는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2000년 러시아와 인도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기에 이른다.<sup>55)</sup>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합의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정치·군사 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렸으나,<sup>56)</sup> 인도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가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변화된 전략 환경은 양국의 파트너십을 다소 소원해지게 하기도 했다.<sup>57)</sup> 그러나 2015년 인도 모디(Narendra D. Modi)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해 국방·원자력·경제 협력 분야에서 총 16개의 양해각서(Memorandum

54) 이주현, “베트남, 러시아의 동남아 진출 핵심 교두보,”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7.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0724>> (검색일: 2020.10.6.).

55) 정태인, “인도, 러시아 기술로 지역 맹주 성장: 양국, 국방·원자력 생산 협약 체결,” 『Chindia plus』, vol. 114 (2016), pp. 58~59, <[https://www.posri.re.kr/files/file\\_pdf/53/322/6565/53\\_322\\_6565\\_file\\_pdf\\_1456898691.pdf](https://www.posri.re.kr/files/file_pdf/53/322/6565/53_322_6565_file_pdf_1456898691.pdf)> (검색일: 2020.10.6.).

56) “러시아·인도 전략적 동반자 협정 체결,” 『중앙일보』, 2000.10.4., <<https://news.joins.com/article/3977154>> (검색일: 2020.10.6.).

57) 강봉구, “모디 총리 시기 인도-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의 진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1호 (2017), p. 104.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면서 양국의 우호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는데, 당시 모디 총리의 러시아 방문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우호 관계에 집중하던 인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sup>58)</sup>

### (사) 우즈베키스탄

구소련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 연합) 국가였던 우즈베키스탄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 당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대서방 관계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지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4년 6월 ‘전략적 동반자 협정(strategic-partnership treaty)’을 맺고 정치·외교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sup>59)</sup> 또한, 2018년 10월 푸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당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합의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 협력 프로그램: 2019-2024(Intergovernment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for 2019-2024)’을 채택했다.<sup>60)</sup>

### (아)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UAE)

2019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살만(Salman bin Abdulaziz) 사우디 국왕과 무함마

---

58) 정태인, “인도, 러시아 기술로 지역 맹주 성장: 양국, 국방·원자력 생산 협약 체결,” p. 59.

59) “The Presidents of Russia and Uzbekistan Have Signed a Bilateral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President of Russia, 2004.6.16.,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31175>> (검색일: 2020.10.6.).

60) President of Russia, “State Visits to Uzbekistan,” 2018.10.19.,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8851>> (검색일: 2020.10.6.).



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 등 사우디 왕실 지도부와 회담을 하고 양국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은 “농업, 항공, 보건, 문화 분야에서 20건의 협약과 100만 달러 규모의 합작 법인 30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sup>61)</sup>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중동 지역 맹방이라는 점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시점이 미국이 시리아에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할 날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62)</sup>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중동 지역에서 UAE와의 우호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러시아와 UAE는 2018년 6월 모하메드(Mohammed bin Zayed bin Sultan Al-Nahyan) 왕세제가 러시아 방문 당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고, 2019년 10월 푸틴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sup>63)</sup> 푸틴 대통령은 UAE 방문 자리에서 “러시아와 UAE의 관계는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역,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더 늘어나는 만큼 중동의 현안에 대해 깊게 공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sup>64)</sup>

61) “시리아서 미군 발 췌 날 러시아-사우디 ‘전략적 동반자’ 선언,” 『연합뉴스』, 2019.10.15.,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5002751111>> (검색일: 2020.10.6.).

62) “트럼프 발 췌자 발톱 드러낸 푸틴... 사우디와 전략적 동반자 선언,” 『MK뉴스』, 2019.10.15., <<http://m.mk.co.kr/uberin/read.php?sc=30000001&year=2019&no=834599>> (검색일: 2020.10.6.).

63)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2019년 10월 UAE 주요 정세(10.7-10.13),” 『UAE 정세』, 2019.10.16., <[https://overseas.mofa.go.kr/ae-ko/brd/m\\_11122/view.do?seq=134353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mp:company\\_nm=&page=5](https://overseas.mofa.go.kr/ae-ko/brd/m_11122/view.do?seq=134353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mp:company_nm=&page=5)> (검색일: 2020.10.6.).

64) “UAE, 12년 만에 방문한 푸틴 ‘트럼프급’ 환대... 경제분야 밀착,” 『연합뉴스』, 2019.10.16.,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6005100111>> (검색일: 2020.10.6.).

## (자) 브라질 & 아르헨티나

러시아는 남미 지역 국가들과 옛 소련 시절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이른바 ‘반미(反美)벨트’를 조성하고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002년 1월 브라질 페르난도 엔히키 카르도주(Fernando H. Cardoso)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양국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sup>65)</sup> 2008년 메드 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정상으로서는 첫 번째로 브라질 등을 방문하여 소련 붕괴 뒤 소원해졌던 남미 국가들과 관계 회복을 추진했다.<sup>66)</sup> 또한, 2017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브라질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대외정책 대화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어 대외정책 시행에 있어 양국이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sup>67)</sup>

남미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가장 많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꾸준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sup>68)</sup> 러시아-아르헨티나 양국 정상은 2015년 4월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양국 외무장관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

---

65) “러-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합의,” 『한국경제』, 2002.1.14.,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2011433628>> (검색일: 2020.10.6.).

66) “러시아 ‘남미 껌안기’ 본격 시동,” 『한겨레』, 2008.11.2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323927.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323927.html)> (검색일: 2020.10.6.).

67) “Brazil and Russia Sign Joint Statement and Bilateral Cooperation Acts,”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Brazil, 2017.6.21., <<http://www.brazil.gov.br/about-brazil/news/2017/06/brazil-and-russia-sign-joint-statement-and-bilateral-cooperation-acts>> (검색일: 2020.10.30.); “러-브라질, 모스크바서 정상 회담... 대외정책 협력 공동성명 채택,” 『연합뉴스』, 2017.6.21., <<https://www.yna.co.kr/view/AKR20170621198200080>> (검색일: 2020.10.6.).

68) “Russian-Argentine Talks Have Taken Place at the Kremlin,” President of Russia, 2008.12.10.,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2408>> (검색일: 2020.10.6.).

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sup>69)</sup> 이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은 2018년 1월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선언하고 무역, 경제, 투자,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sup>70)</sup>

### (차) 모로코 & 이집트 & 알제리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중동 지역의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또한 유럽을 견제하기 위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와 같은 아프리카 북서쪽 '마그레브(Maghreb)' 지역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우선 러시아는 2002년 모로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이는 2001년 메드베데프 총리가 모로코를 방문할 당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고자 했던 합의의 이행이었다.<sup>71)</sup> 이후 러시아와 모로코는 2016년 '긴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closer strategic partnership)'로 관계를 격상시켰는데, 당시 양국은 반테러리즘, 항공, 환경, 수산, 투자, 군사 기술 등 7개 분야 협력에 대한 협정을 함께 맺으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추진했다.<sup>72)</sup>

또한, 러시아와 알제리는 2001년 경제 협력과 지정학적 이익을 위

---

69) "러-아르헨 정상회담... 전략동반자 관계구축 합의," 『매일경제』, 2015.4.24., <<https://m.mk.co.kr/news/world/view/2015/04/390753/>> (검색일: 2020.10.6.).

70) "Russia, Argentina Agree to Develo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XINHUANET, 2018.1.24.,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1/24/c\\_136919197.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1/24/c_136919197.htm)> (검색일: 2020.10.6.).

71) "Morocco, Russia Set to Deepen Strategic Partnership," The North Africa Post, 2017.10.11., <<https://northafricapost.com/20126-morocco-russia-set-deepen-strategic-partnership.html>> (검색일: 2020.10.7.).

72) "Russia, Morocco Sign Statement on Closer Strategic Partnership," TASS, 2016.3.15., <<https://tass.com/politics/862527>> (검색일: 2020.10.7.).

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였다. 알제리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이후 러시아-알제리 양국은 군사 기술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알제리는 2006년 75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등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군사 기술 협력국이 되었다.<sup>73)</sup>

러시아는 최근 아프리카 지역 맹주인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모스크바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에 있어 이집트를 특별히 중요시하고 있다. 2018년 흑해(Black Sea) 근처인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이집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협력 협정(strategic cooperation treaty)’을 맺고 무역, 군사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은 2017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산 무기 구매 계약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등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sup>74)</sup> 러시아와 이집트 양국은 ‘전략적 협력 협정’을 맺은 지 불과 1년 후인 2019년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키며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무역, 경제, 군사 기술, 통신, 핵에너지, 교통, 광산, 관광, 과학,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sup>75)</sup>

---

73) “Understanding Russia-Algerian Strategic Partnership,” modern diplomacy, 2020.7.19., <<https://moderndiplomacy.eu/2020/07/19/understanding-russia-algerian-strategic-partnership/>> (검색일: 2020.10.7.).

74) “Putin, Egyptian Leader Sign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2018.10.17., <<https://www.rferl.org/a/putin-egyptian-leader-el-sissi-discuss-increasing-arms-sales-direct-air-links-moscow-visit-sochi/29547819.html>> (검색일: 2020.10.7.).

75) “Putin Ratifies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with Egypt,” egypt today, 2019.8.3., <<https://www.egypttoday.com/Article/1/73479/Putin-ratifies-%E>

이상과 같이 러시아는 대륙별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데,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 외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륙별 거점 국가와의 우호 관계를 통해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동반자 관계의 등급을 통해 국가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것과 달리 러시아는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대륙별 핵심 국가와의 우호 관계 형성에 활용하여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러시아는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에 ‘전략적(strategic)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EAEU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SCO를 통해 정치, 안보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별 핵심 국가와는 양자적인 ‘동반자 관계’ 형성을 통해 정치·군사·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데, 자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군사 분야 기술협력을 주로 활용하여 군사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이후 해당 국가와 분야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관계 개선과 경제적 실익을 모두 챙기고 있다.

셋째, 미국의 지역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이 두 국가는 중동 지역 미국의 맹방이라는 점에서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서남아시아 인도의 경우 최근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크게

---

2%80%98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E2%80%99-with-Egypt>  
(검색일: 2020.10.7.).

강화된 국가로서 러시아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수단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소결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 간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동맹 관계’와 ‘동반자 관계’가 말하는 주요 논거들을 살펴보았다 (<표 II-4> 참조). 우선 동맹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자국의 안보라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동맹 결성을 통해 ‘세력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동맹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동맹을 결성하는 국가 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 즉 공동의 위협 요인의 존재 여부라 할 수 있다.

둘째, 동맹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가 간 군사·안보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맹을 맺는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목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잠재적 적국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 협정’을 맺고 타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 또는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관계를 맺는다.

셋째, 동맹은 타국과 군사·안보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국가 간 관계가 ‘제도적 틀’ 안에 묶이기 때문에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다. 동맹이라는 제도는 동맹 공약의 이행에서 동맹국들 사이에 버려지기와 끌려들어 가기라는 위험성이 작동하여 동맹의 와해 가능성과 같은 긴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동반자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반자 관계는 특정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념보다는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주로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동맹이 군사·안보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동반자 관계는 경제적 이익과 협력을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반자 관계는 잠재적 적 또는 위협을 상정하는 동맹과는 달리 제3의 적을 가정하지 않으며, 동맹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협력을 추구한다. 원칙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 등 국가 간 포괄적인 협력을 지향하는 동반자 관계는 잠재적 적 또는 위협의 상정으로 인한 특정 국가 배제 원칙에서 벗어나 동맹보다는 자유롭게 국가 간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셋째, 국가 간 맺는 공식적인 협정과 같은 제도화로 인한 행동의 구속력이 있는 동맹과는 달리 동반자 관계는 국가 간 관계성이 경직되어 있지 않고 유연성이 높다. 즉, 동반자 관계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타국과의 관계를 맺거나 중단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국가의 행동반경이 동맹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II-4〉 동맹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특징 비교

구분	동맹	동반자 관계
협력 목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공동의 이익
협력 영역	군사 중심	경제 중심
협력 양식	방위조약	선언/제안
위협 대응 여부	제3의 적을 가정함	제3의 적을 가정하지 않음
국가 주권	동맹 형식에 따라 자주성 제한	주권 침해 없음
구속력	강	약
제도화	강	약

출처: 양원,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와 한중관계의 위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 2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렇다면 현재 중·러 관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중·러 관계는 동맹 관계의 특성과 동반자 관계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라는 위협을 공유하고 있다. 냉전 시기부터 중·러 양국은 ‘미국’이라는 현실적 또는 잠재적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미국과의 양자적 관계가 악화하는 시기마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는 격상되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양국의 협력 분야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안보적 협력과 더불어 양자 간 경제 협력 또한 지속해서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동맹’에서 강조하는 안보적 이익과 ‘동반자 관계’에서 강조하는 경제적 이익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는 ‘동반자 관계’의 수준을 시대별로 지속해서 격상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의 동반자 관계 수준을 격상시키고 있는데 현재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는 공식적으로는 ‘동반자 관계’의 최상위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인 동맹 관계’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1950년대 중소동맹의 와해 경험으로 인해 공식적인 동맹 관계 설정 시 상호 연루와 방기를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동반자 관계’라는 틀을 통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의 국가 관계성을 이론적으로 평가해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군사 요인과 양국의 경제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요인 등 상황에 따라 중·러 양국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도, 공식적인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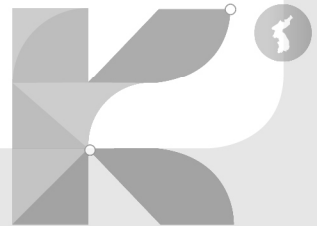


사 안보 협력 수준인 동맹으로 변화될 수도, 때에 따라서는 현재 수준의 동반자 관계가 격하(down-grade)도 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중·러 관계의 분야별 분석을 통해 향후 중·러 관계가 어떤 수준의 국가 관계를 맺을지에 관한 판단과 양국 관계의 발전 수준에 따라 우리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Ⅲ. 중·러 정치·군사 협력

현승수 통일연구원





## 1. 중·러 정치 협력의 추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은 것은 2014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발동된 이후부터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두 나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으며,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국경 갈등을 전면 해소하여 양국 협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 두었던 게 사실이다.<sup>76)</sup>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소련은 냉전 시기 사회주의의 양대 종주국으로서,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을 때 세계 최초로 이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 역시 소련이었다. 그러나 1950년에 형성된 양국 간 동맹 관계는<sup>77)</sup> 1956년 소련에 붙어 닳친 스탈린(Joseph Stalin) 격하 운동과 흐루쇼프(Nikita S. Khrushchev)의 대미 평화공존을 골자로 한 신외교정책을 중국이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대립과 경쟁 관계로 바뀌었으며, 1960년대 말 발생한 중·소 국경 충돌 이후 적대 관계로까지 악화했다. 이 틈새를 노린 미국은 대중국 접근 정책을 전개했고 미·중 국교 정상화로 이어졌다. 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위협을 느낀 중국은 1979년 4월, 중·소 동맹 조약을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국제 역학 관계에 변화가 초래된 것이다.<sup>78)</sup>

---

76) 2005년 6월, 러시아는 실효적으로 지배해 오던 우수리(река Уссури)강 역내의 타라바로프(중국명 인릉)섬과 불쇼이 우수리스크(중국명 헤이샤쯔)섬의 서쪽 영역 등 120km에 이르는 지역을 중국에 양도함으로써 중국과의 국경을 확정하고 분쟁을 종식했다.

77) 마오쩌둥(毛泽东)은 194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소련을 방문해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지원 조약(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을 체결했는데, 동 조약의 유효 기한은 30년이였다.

78) 중국의 처지에서 볼 때 1960년대 이후 중·러 관계가 악화하면서 양국 사이에는 세 가지 중대한 문제가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었다. 첫째, 196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소련군의 몽골 주둔, 둘째, 1978년 12월, 대규모의 병력을 베트남에 지원함으로써 캄보디아를 침공했던 사건, 셋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으로 서·남·북쪽에서 중국을 포위하여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 중국이 1970년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던 것도 이와 같은 소련의 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소는 1980년대 들어 기존의 갈등·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도 했지만,<sup>79)</sup>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 가. 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1991~1994)

1991년 12월 27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직후 중국의 외교부장 첸치첸(钱其琛)은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러시아 정부를 공식 승인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모스크바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러 간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92년 12월 신생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의 베이징(北京) 방문을 계기로 중·러는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1989년과 1991년 중·소 간에 체결한 공동선언의 제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소 간 맺은 다양한 조약과 협정을 신생 러시아 체제하에서도 계승 및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이미 그해 3월에는 양국 간 경제협력과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재개되었다. 중국은 소련이 존재하던 1991년에 고질적인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는 신체제 수립 후 우선으로 중국과의 국경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적극성을 보였다. 국경 문제 해결은 중·러 양국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한편, 텐안먼(天安門) 사태 때문에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중국과는 달리, 신생 러시아는 1990년대 전반기 동안 친미, 친서방 외교 노선을 추구하면서 서구형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체제 이행을 시도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다

---

79) 1989년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 서기장의 방중 당시 양국 정상은 위의 세 가지 문제의 해결에 대해 공감하고 중·소관계의 정상화를 선언한다. 특히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과 몽골에서의 철군 검토는 중·소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중국은 국경을 공유하는 소련군과의 군사적 대치가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소 소원해진 감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의 일방주의와 NATO의 동방 확대 등에 러시아가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다.

## 나. 건설적 동반자 관계(1994~1996)

1994년 9월 장쩌민(江泽民)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두 나라 관계는 21세기를 향한 '건설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는데,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국제사회의 다양성과 국가 간 차이 인정, 패권주의와 힘의 정치(Power Politics) 반대,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을 통한 분쟁 해결 지지 등의 사안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양국 정상은 상호 전략핵무기를 겨누지 않는다는 공동성명, 서쪽 국경 확정에 대한 협정 등에도 서명하였다. 이 중 전략핵무기를 겨누지 않는다는 성명은 상호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상징적인 성명이라고 할 수 있다. 중·러 간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관계가 그만큼 긴밀해졌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중·러 관계의 격상은 미국이라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공통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중·러 각국의 국내적 상황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선 옐친 정부 초기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친서방을 표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 노선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쟁을 일으켰고, 논쟁은 서구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러시아의 외교 안보에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 지였다. 당시 러시아의 주요 안보 이익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독립한 국가들의 안보와 중국, 이란, 인도 등 전통적인 러시아 우방과의 우호 관계 유지였다. 이에 따라 옐친 정부 초기 친서방 외교 노선은 서구 중심의 외교정책에 반대하

고 유라시아주의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sup>80)</sup>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이라는 요소가 중·러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한다.<sup>81)</sup> 중국은 성공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경제발전 집중해야 했으며, 따라서 평화로운 국제환경은 더욱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중국은 지속해서 도광양晦(韬光养晦),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국력이 생길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면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전술적으로도 협력하는 외교정책)를 견지하며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지 않게 된다. 특히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주변국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4년 러시아와 체결한 서쪽 국경 확정에 대한 협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1996~2011)

중·러 양국 정상은 1996년 4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정치와 안보,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경 문제의 완전한 해결,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양국 간 핫라인(hot line) 설치도 이때 합의되었으며, 이 밖에도 러시아의 타이완 및 티베트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견해 지지, 국경 지역

80) 김계동 외, 『현대 외교정책론』(서울: 명인문화사, 2016), pp. 415~444.

81) 남순강화는 '덩샤오핑이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우한(武汉),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 등을 시찰하고 발표한 중요한 담화'로, 주 내용은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는 것으로 이 강화 이후 1989년 톈안먼 사건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개혁개방정책이 다시 추진됨; "남순강화," 『위키백과』, 2019.12.4., <<https://ko.wikipedia.org/wiki/%EB%82%A8%EC%88%9C%EA%B0%95%ED%99%94>> (검색일: 2020.10.7.).



에서의 신뢰 구축, 군사 분야와 과학기술 및 항공우주 분야 협력 등 정치·경제·군사·과학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차원의 양국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

1997년 4월에는 장쩌민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다양한 협력을 도출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방문에서 중·러 양국을 포함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국이 '국경 지역에서의 상호 군사력 감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 협정은 각 국가 간 쌍방 국경의 100km 이내 군사력을 13만여 명 감축하고, 상호 무력 사용 및 상호 군사적 침공을 감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sup>82)</sup> 이로써 중국은 더 안정적인 주변 국제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두 정상은 NATO 확장과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치에 반대하고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공동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세계의 다극화와 신국제질서를 수립한 데 대한 공동성명」에도 합의하였는바, 이는 중·러 양국이 각종 국제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세계질서 차원에서의 협력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sup>83)</sup>

중·러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은 외교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한다. NATO의 확대는 러시아에 정치·군사적으로 위협이 증가하는 사안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NATO의 확대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반대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의 지지를 얻을

82) "1997년4월24日 中俄哈吉塔五国签边境裁军协定," 人民网, 2011.4.24., <<http://news.sohu.com/20110424/n306351957.shtml>> (검색일: 2020.10.3.).

83) "《中俄关于世界多极化和建立国际新秩序的联合声明》(1997年4月)," CCTV, 1997.12.2., <<http://www.cctv.com/special/903/6/70494.html>> (검색일: 2020.10.3.).

수 있다면 러시아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의 NATO 반대를 지지하였으며, 나아가 러시아의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가입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안보 문제와 한반도 문제, UN 안보리에서의 역할 강화 등 양국은 외교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양상을 보이게 된다.

2000년 대통령직에 당선된 블라디미르 푸틴의 등장으로 러시아는 대미, 대서방 강경 외교 노선을 더욱 노골화, 구체화하였으며, 다양한 국제 사안들에서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에 따른 미국 주도의 글로벌 대테러 전쟁에 러시아가 협력하면서 미·러 간 화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지만,<sup>84)</sup> 러시아는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 즉 중동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책을 견제하면서 중국과 공조를 강화했다.<sup>85)</sup>

두 나라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2009년 10월, 이를 기념하는 양국 정상회담의 축하 서신 교환에서 후진타오(胡锦涛) 당시 중국 주석은 “60주년 양국 관계사에서 현재 여느 때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양자관계, 즉 정치적 상호 신뢰, 실용주의에 입각한 협력, 문화 교류, 국제 및 지역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등이 강화되었다.”라고 평가했으며,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

84) 1996년 4월 출범한 ‘상하이 5국(Shanghai Five)’이 SCO로 개편·확대된 것은 2001년 6월이다. 이 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일부 국가들이 협력하여 국경 문제 해결, 중앙아시아 등 전략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 테러와 분리주의 및 종교 극단주의에 대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자 조직되었다.

85) 2001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25항으로 구성된 ‘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1980년 4월 이후 무조약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돌려놓았다는 의의가 있으며, 20년 기한에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양국이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서동주,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정치·전략적 합의: 중·러 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2001.7)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제2권 제1호 (2002), pp. 51~79.

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 역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단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2010년에만 해도 양국 정상 간에 여섯 번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SCO 차원의 대테러 합동 군사 연습인 ‘평화의 사명’(Peace Mission 2010)이 7년째 연속으로 시행되었고, 러시아의 스코보로디노(СкОВО роДИНО)와 중국의 다칭(大庆) 간 999km를 연결하는 송유관이 완공되어 원유 공급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sup>86)</sup>

## 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2011~2019)

2011년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또 한 차례 격상된 중·러 관계는<sup>87)</sup> 2012년 5월 푸틴 대통령의 집권 3기 출범과 2013년 3월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더 나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 경제 제재는 중·러의 밀착을 한층 더 추동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필요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5년 러시아의 70주년 전승 기념행사 당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요 서구권 국가들이 보이콧을 선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86) 고재남, “러·중 관계의 발전과 미국 요인,” 『러시아 외교 정책의 이해』 (서울: 역사공간, 2019), p. 259.

87)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자관계의 관심사가 첫째, 국제 및 지역 문제이며, 둘째,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을 수호하자는 데 동의했다. “후진타오·푸틴 회담 개최… ‘공동 번영 추진’ (2),” 『인민망 한국어판』, 2012.6.6., <<http://kr.people.com.cn/7837723.html>> (검색일: 2020.10.4.).

행사에 참석해 공고한 중·러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승 행사에 인민 해방군을 참여시켰으며, 러시아와의 해군 연합 훈련도 함께 진행하였다.<sup>88)</sup> 이는 당시 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 마. 신시대 전면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 관계(2019~현재)

2019년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맞으면서 두 나라는 ‘신시대 전면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천명했다. 당시 러시아를 국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018년 두 나라의 교역량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사실을 강조하면서 에너지와 기술, 농업과 공업, 학술과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러시아 주도의 EAEU가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과 두 나라의 지방 단체 간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자는데도 의견을 일치했다. 중·러는 양국 관계가 강대국 관계의 전범(典範)이며 상호이익이 되어야 하고 두 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서 공동 노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동유럽중앙아시아 연구소의 순쥬양쯔(孙壮志) 소장은 2019년 6월 중·러가 선언한 ‘신시대 전면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 관계’ 선언의 명칭에서 중국의 대러 관계가 갖는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신시대’를 네 가지 의미로 해석했다.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한층 성숙한 관계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新起點), 2019년부터 양국 협력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

88) “미일 동맹에 더 없는 친구 된 중·러, 형제까지 될 수 있을까,” 『국민일보』, 2015.5.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23543&code=61131111&cp=nv>> (검색일: 2020.10.4.).

상생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새로운 시대(新時代), 양국 협력 범위와 층위가 전 방위로 확대되는 새로운 위치(新定位), 그리고 현재 교역량 100억 달러에서 2024년 2천억 달러로의 달성과 2019년 12월 개통한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을 통해 2024년 이후 연간 380억m<sup>3</sup>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중국에 공급한다는 새로운 목표(新目標)다.<sup>89)</sup>

또,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 등과의 협력을 지칭할 때 ‘합작(合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칭할 때는 ‘협작(協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공동으로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합작’을 사용하며, ‘협작’은 어떤 임무를 서로 도와가며 함께 완수해 나갈 때 사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주러시아 중국 대사관의 국방무관을 지낸 바 있는 중국군 장교 왕하이윈(王海運)은 “협작”이라는 용어는 러시아어로 ‘협동 동작’이며, 임무, 방향, 시간, 지역에서 일치된 행동을 함을 의미한다. 합작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협동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한다. 용어 사용의 특별함을 고려할 때, 적어도 중국의 처지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타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며 중시하고 있음이 엿보인다.<sup>90)</sup>

이렇듯 중·러 두 나라의 국가 관계는 과거 30년 동안 일반적 수준의 동반자 관계에서 특수한 수준의 동반자 관계로 단계적 격상을 거치며 발전했고, 중·러 두 나라의 전문가들은 물론, 서방의 국제문제 전문가들 역시 중·러 간 국가 협력 관계의 발전 추이를 대단히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정치 분야에서 중·러 관계 강화는

89) “〈纵论天下〉孙壮志：四‘新’凸显新时代中俄关系亮点,” 新华网, 2020.1.11., <[http://www.xinhuanet.com/world/2020-01/11/c\\_1210432984.htm](http://www.xinhuanet.com/world/2020-01/11/c_1210432984.htm)> (검색일: 2020.6.2.), 재인용: 김규철, “러·중 군사협력, 동맹인가 일시적 협력인가?,” 『중소연구』, 제44권 제1호 (2020), pp. 187~188.

90) 김규철, 위의 글, p. 188.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통해 드러난다.

첫째, 정상 간 친밀도이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2019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중·러 수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을 초청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미 2013년 국가주석직에 취임한 직후 첫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선택한 바 있고, 2019년 6월의 방문은 집권 2기를 맞이해 처음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2019년 4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을 계기로 이미 양자 간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현재까지 각종 국제회의에서 따로 만나거나 상대국 방문을 통해 무려 29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까지 8번에 걸쳐 러시아를 방문했고, 그가 전 세계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방문한 곳 또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다.<sup>91)</sup>

양국 정상은 서로에게 훈장까지 주면서 친밀감을 과시해 왔다. 2017년 7월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 국가 최고 훈장인 사도 성 안드레이 훈장을 수여했고, 시 주석은 2018년 6월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우호훈장을 수여했다. 우호훈장은 중국 현대화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외국인을 서훈 대상으로 하며, 푸틴 대통령이 첫 수상자다. 시 주석은 우호훈장을 수여하면서 푸틴을 “중국인들의 진실하고 오랜 친구”로 추켜세웠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은 러시아의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양국 협력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브로맨스(bromance, 남성들 사이에 형성된 친밀 관계)’로 불릴 정도의 친밀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

91) 이장훈, “[글로벌 포커스] ‘브로맨스’ 펼치는 시진핑과 푸틴의 속내,” 『월간중앙』, 2019.8.17.,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719>> (검색일: 2020.5.1.).

둘째, 국제 현안 대응에서 중·러는 서로 공조하고 있다. 두 나라는 일련의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관해 같거나 유사한 견해를 보이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SCO 설립을 공동 추진했고,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중국-러시아-인도, 중국-러시아-몽골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가 하면, UN, G20, BRICS, APEC 등 다자기구에서도 미국이나 서방 주도의 결정 과정에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드러내곤 한다. 또 국제법 및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 유지, UN 개혁, 테러리즘 퇴치, 마약 밀수 및 기타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두 나라는 긴밀한 의사소통과 조정 과정을 중요시하며, 미국이 유라시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SCO, 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 등 유라시아 역내 다자간 메커니즘의 틀을 활용하여 대미 견제와 글로벌 다원화를 모색해 오고 있다.

2017년 7월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서 양국 정상이 「현 세계 정세와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중·러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뒤이어 두 나라 외교부가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북핵 위기와 한반도 문제 관리에서 공통 입장을 견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2019년 6월에는 두 정상이 「현대 글로벌 전략 안정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sup>92)</sup> 중·러 간 정치 협력의 영향력은 이미 양국이나 지역을 넘어 세계 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향으로 볼 때 유럽과 중동 등 지구 서쪽의 현안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결정에 보조를 맞추며,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문제들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을 추수하는 것으로도 분석한다.

9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国同俄罗斯的关系,” 2020.10., <[https://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10/sbgx\\_679114/](https://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10/sbgx_679114/)> (검색일: 2020.10.6.).

## 2. 중·러 군사 협력의 추이

중·러 간 전 방위적인 협력 확대에서 군사 분야는 특별히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심화하는 중·러 관계의 추이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동맹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 서방에서 논쟁이 가열되는 이유 역시 군사 동맹 가능성이 서방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도 전인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련은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군(국민혁명군)과 마오쩌둥 군(홍군)에게 모두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국민당 세력과 공산 세력의 대립으로 인해 중도에 지원이 중단된 때도 있었지만, 중국 내 양대 혁명 세력이 연대한 두 차례의 국공합작 과정에서 소련의 군사 지원은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 국공합작이 결렬된 후, 중국 공산당은 서방의 봉쇄와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올곧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 내전을 치러야 했으며, 당시 만주에 건설된 방위산업체도 소련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중국군이 반 무장 게릴라 조직에서 정규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소련의 협조 덕분이었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마오쩌둥은 미국의 공격을 우려해 소련과의 군사 동맹을 원했고 스탈린과 1950년 2월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것이 양국 군사 동맹의 시작이 되었다. 중국은 군사 동맹 체결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항공기와 어뢰정 등 소련제 무기를 사들였고, 6·25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소련제 무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80년대에 중국이 매년 방공 미사일 100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도 기실 소련이 중국의 방위산업체 건설 사업에 물심양면



으로 기술 이전과 경제적 지원을 해 준 덕분이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이념 논쟁으로 불거진 두 나라 간 갈등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 투쟁으로 확대됐으며, 결국 1965년 3월 모스크바 회의에 참석한 중국 공산당이 중·소 동맹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1969년 국경 문제가 두 나라 간 무력 충돌로 비화하는 등, 위기와 대립의 상황이 계속되던 중·소 관계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정상화로 돌아섰고 군사 협력도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종래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했으나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 책정된 높은 가격과 구형 위주의 무기 판매로 인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1989년 톈안먼 사건 발생 이후 미국의 대중국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중국은 소련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당시 소련은 서방 국가들의 대중 무기 금수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와 맞물려 중·러 관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닦혔던 1990년대에도 두 나라 간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협력이 지속해서 이어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무기의 거래처를 미국에서 소련으로 갖 바꾼 상황에서 러시아와 거래를 이어 가기를 원했고, 러시아 역시 소비에트 연방 해체에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련의 주력 산업인 방위산업체의 유지를 위해 중국과의 무기 거래가 필요했다. 1992년 11월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이듬해 11월에는 「군사협력협정」을 맺었으며, 1999년부터는 연례적으로 두 나라 정부와 군 관계자로 구성된 군사기술협력위원회를 열어 관련 분야를 논의하고 무기 거래를 계약해 오고 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공급은 육해공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특히 중국군에게 가장 취약했던 공군 전투기와 헬기, 미사일 그리고 자체 무기 생산

을 위한 엔진과 기술 등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은 상당한 양과 수준에 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군은 현대화 및 군사력 증강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sup>93)</sup>

양국 간 군사 협력 관계는 2000년 푸틴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물론 중·러가 처한 국제적 전략 환경 그리고 두 나라가 공유한 다극화된 세계 질서 구축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관점에서 군 현대화는 해결해야 할 매우 절박한 문제였다. 중국은 걸프전과 코소보전을 봄으로써 자국의 군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국방의 현대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낙후된 기술로 인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무기 및 기술 도입이 시급하였고, 러시아는 중국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러시아의 국내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먼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국내 경제의 발전은 러시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주변 환경 확보가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으로 국경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었고, 해당 지역의 병력을 감축하게 되면서 국방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 외에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기술과 무기가 필요한 만큼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 된다. 따라서 경제발전이 더딘 러시아로서 무기 수출은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었으며,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는 러시아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유지해야 했다.

2001년 7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중러 선린 우호 협력 조약」

---

93) 김규철, “러·중 군사협력, 동맹인가 일시적 협력인가?,” pp. 183~185.

에는 군사 분야에서의 신뢰 구축을 위한 실천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다. 상대국의 통일성과 영토적 완전성에 대한 상호 지지(4조), 타이완 문제에서 러시아의 중국 지지(5조), 군사 분야에서의 신뢰 강화와 국경선 주변에서의 병력 감축, 지역 안정을 위한 노력의 확대(7조), 상대국의 주권 및 안보, 영토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조약 혹은 국가 간 연합에 불가담(8조), 상대국에 안보상 위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접촉하여 협의(9조), UN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협력 강화(13조) 등이다.<sup>94)</sup>

그러나 2006년부터 양국의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협력은 다소 침체를 겪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제시한 거래가에 대해 중국이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점, 러시아산 무기의 보수 및 수리 기술이 미흡했던 점, 또 중국이 러시아산 무기를 개조 또는 개량하여 국내용이나 수출용으로 활용하지는 않을까 러시아가 의심한 사실 등 때문이다.<sup>95)</sup> 일례로 러시아는 2005년에 Il-76MD와 Il-78MD 수송기 38대, 항공기 엔진 240대를 5년간 중국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계약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중국 역시 Su-27SK 면허 생산 협정을 탈퇴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던 군사기술협력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08년에 개최된 제 13차 군사기술협력위에서 두 나라는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조항에 합의했으나, 중국의 무단 복제행위는 중단되지 않았다.<sup>96)</sup>

그러던 것이 2012년 푸틴의 집권 3기 출범과 2013년 시진핑 취임 그리고 이어진 서방의 대러 제재 등 국제 전략 환경의 변화가 중·러

94) 위의 글, p. 182.

95) Dmitry Gorenburg, "An Emerging Strategic Partnership: Trends in Russia-China Military Cooperation," *Security Insights*, no. 54 (2020), (<https://www.marshallcenter.org/en/publications/security-insights/emerging-strategic-partnership-trends-russia-china-military-cooperation-0>) (검색일: 2020.6.6.).

96) 김규철, "러·중 군사협력, 동맹인가 일시적 협력인가?," pp. 185~186.

간 군사 협력을 가속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양국은 2017년 군사 협력을 규정할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3년 기한의 로드맵을 작성할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마련될 군사 협력의 법적 틀은 2020년 말 완성되어 조인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양국 군사 협력의 다양한 분야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여기에는 합동 장거리 초계(joint long-range aviation patrols)도 포함된다.<sup>97)</sup>

양국 간 군사 교류도 활발하다. 일례로, 중국군 장병에 대한 러시아군의 위탁교육은 두 나라 군사 교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러시아 주재 자국 대사관에 중국군 유학생 전담 관리반을 설치·운영하면서 러시아군의 군사 전략 습득에 노력해 왔다. 교육 인원은 주로 고위급 장교들이었지만, 그 밖에도 조종사와 함정 요원, 무기 및 장비 운용병 등도 포함되었으며, 매년 평균 200명이 교육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sup>98)</sup> 오늘날 중국군 수뇌부에는 러시아 유학 경험을 쌓은 중국군 장병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중국군 현대화와 대러 군사 협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러 군사 협력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 가지

97) Michael Kofman, "Towards a Sino-Russian Entente?," Riddle, 2019.11.29., <<https://www.ridl.io/en/towards-a-sino-russian-entente>> (검색일: 2020.7.1.); 메드베데프 총리는 2019년 7월 18일, 국방부와 외교부의 일치된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합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국과의 군사 협력에 관한 새로운 합의 도출을 목표로 교섭을 개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이 지시는 교섭이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 또 어떤 협력안이 논의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 의회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소속의 프란츠 클린체비치(Franz Klintsevich) 의원은 7월 22일, 중국과의 합의에서는 기술 협력 외에 안보 문제에서 상호 행동을 조직하고 중·러 양국이 긴 국경을 접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러시아 극동의 방공 시스템을 중국이 이용함으로써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일부 러시아 언론은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새로운 합의가 지금까지보다 더욱 복잡한 형태의 합동 군사 훈련이나 순회 비행의 시행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승수, "러시아: 적극적 강대국 외교와 국방 현대화 지속," 『2019 동아시아 전략평가』(논산: 동아시아안보전략연구회, 2019), p. 280.

98)王海运, "中俄军事关系七十年: 回顾与思考," 《俄罗斯东欧中亚研究》, 第4期(2019), p. 43.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국 군사 관계는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부터 서서히 협력의 강도를 높여왔으며,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중간 수준의 제도화(moderate institutionalization)’가 이루어져 현재 ‘심도 있는 제도화(deep institutionalization)’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99)</sup> 알렉산더 코롤레브(Alexander Korolev)가 적시한 것처럼, 양국의 군사 협력은 즉흥적인 것, 또 임시로 맺어진 것도 아니며 두 나라는 이미 “동맹 직전 단계(on the verge of an alliance)”에 와 있다는 것이다.<sup>100)</sup>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러 양국 지도자들은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으로 규정하면서도 군사 동맹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sup>101)</sup> 양국이 안전 보장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도 아니며, 핵 균형(nuclear deterrence)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도 아니어서 군사 동맹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두 나라의 무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

99) Alexander Korolev, “On the Verge of an Alliance: Contemporary China–Russia Military Cooperation,” *Asian Security*, vol. 15, no. 3 (2019), pp. 235~236; 코롤레브는 군사 동맹 성립의 단계와 범주를 ‘중간 수준의 제도화’와 ‘심도 있는 제도화’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중간 수준의 제도화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동맹 조약 또는 협정 ② 정례적 협의 메커니즘 ③ 군사 기술 협력 및 군 인사 교류 ④ 군사 훈련의 정례화 ⑤ 신뢰 양성 조치이며, 심도 있는 제도화의 요건은 앞의 다섯 개에 ⑥ 통합된 군 지휘 체계 ⑦ 군 병력 및(또는) 군 기지의 합동 배치 ⑧ 국방정책의 공유가 추가된다.

100) 위의 글, pp. 247~248.

101) 2014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자연스러운 동반자이자 자연스러운 동맹(natural partners and natural allies)”이라고 발언함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전까지 러시아가 중국을 ‘동맹’으로 표현한 적은 없었다; “Putin Confirms Plans to Meet Chinese President during APEC Summit in Beijing,” *Sputnik International*, 2014.10.14., <<http://sputniknews.com/politics/20141014/194060827.html>> (검색일: 2020.4.21.);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2019년 6월 페테르부르크(Петербург) 국제 경제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동맹이며 제3국을 타깃으로 하는 군사 동맹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Путин заявил, что Россия и Китай не создают военных союзов,” *РИА НОВОСТИ*, 2019.6.7., <<https://ria.ru/20190607/1555382899.html>> (검색일: 2020.4.21.).

군사 기술의 거래도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중국은 이미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기 수출국이였다. 2006년에 잠시 침체한 양국의 무기 거래는 2011년부터 서서히 회복되다가 본격적으로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꺾그러워진 시점부터 활발해졌다. 당시 러시아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금지해 오던 최첨단 무기 체계의 대중국 수출을 해제하고, S-400 방공 체계와 Su-35 전투기를 중국에 팔기로 합의한다.<sup>102)</sup> 이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와 30억 달러 규모의 S-400 트리움프(Триумф) 3개 포대의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S-400은 사거리가 40~400 km로 100개 표적을 추적하여 동시에 6개를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요격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 5.9이며 레이더 탐지 거리는 최대 700km이다. 중국은 2018년 7월에 1차 인도분을 러시아로부터 전달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2차 인도분도 2019년 7월부터 중국으로 해상 운송되었다.<sup>103)</sup>

2019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자체적인 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러시아는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계획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시점에서 이 기술을 완전히 실용화시킨 나라는 미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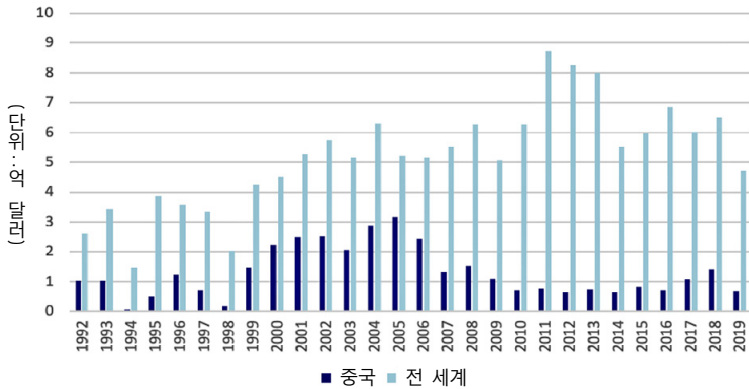
102) Siemon Wezeman, “China, Russia and the Shifting Landscape of Arms Sales,”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7.7.5., <<https://www.sipri.org/commentary/topical-backgrounders/2017/china-russia-and-shifting-landscape-arms-sales>> (검색일: 2020.4.22.).

103) 현승수, “러시아: 적극적 강대국 외교와 국방 현대화 지속,” pp. 279~280; 미국 정부는 중·러 간 S-400 거래와 관련, 중국인민해방군 장비개발부와 그 책임자인 리샹푸(李尚福) 부장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국군은 3개 포대 가운데 1차 인도분은 타이완과 인접한 푸젠성(福建省)에, 나머지 2차와 3차분은 산둥반도(山东半岛)와 랴오둥반도(辽东半岛) 일대에 각각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뿐이며, 러시아는 이 기술을 중국과 공유함으로써 중국의 방어 능력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sup>104)</sup>

〈그림 III-1〉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러시아가 해외에 수출한 무기의 총액과 그 가운데 대중국 수출액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1〉 러시아의 해외 및 대중국 무기 수출(1992~2019년)



출처: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0) 데이터 활용. 재인용: Ryan Nabil, "Evaluating Russia's Pivot to Asia,"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5 (2020), p. 26.

무기 거래와 함께 러시아는 민감하게 다루오던 고급 군사 기술과 정보들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략핵무기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sup>105)</sup> 최첨단 군사 정보와 기술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만 전해진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 악화로

104) "Путин рассказал о помощи КНР в создании системы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о ракетном нападении," *Интерфакс*, 2019.10.9., <<https://www.interfax.ru/world/679050>> (검색일: 2020.9.20.).

105) Dmitry Stefanovich, "Russia to Help China Develop an Early Warning System," *The Diplomat*, 2019.10.25., <<https://thediplomat.com/2019/10/russia-to-help-china-develop-an-early-warning-system/>> (검색일: 2020.4.23.).

인해 더는 수입할 수 없어진 전자 부품이나 해군함 디젤 엔진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 특정 부문과 기술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우위에 서 있는 분야도 있는데, 예를 들어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개발의 경우에는 중국이 러시아를 앞질렀다. 다만 러시아군은 중국제 UAV 수입에는 소극적이며, 중거리를 날고 중량도 더 나가는 자국산 UAV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러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입 및 취득하는 일이 장차 러시아의 산업계와 정부, 군에게 필수적인 ‘생명선’처럼 여겨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sup>106)</sup>

셋째,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합동 군사 훈련은 중·러 두 나라가 군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분야다. 두 나라는 전통적으로 두 개의 합동 군사 훈련을 시행해 왔다. 그 하나는 중앙아시아에서 양국 지상군이 투입돼 훈련하는 ‘평화 사명(the Peace Mission)’이며,<sup>107)</sup> 또 하나는 연례적인 합동 해군 연습이다. 이들 두 개의 훈련은 명백히 미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내용과 구성이 복잡해지며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훈련이 지나치게 각본 중심이며 조율이 안 되는 점, 특히 통합 지휘 체계가 엉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sup>108)</sup> 하지만 정식 군사 동맹이 아닌 양국이 통합 지휘 체계를 가질

106) 渡部悦和, “中国とロシアの同盟は難しい しかし中ロのハイテク・パートナーシップは深化,” 日本安全保障戦略研究所(SSRI), 2019.11.6., <<http://www.ssri-j.com/SSRC/watanabe/watanabe-6-20191108.pdf>> (검색일: 2020.9.9.).

107) SCO 차원의 연합 훈련 ‘평화의 사명’은 2018년의 경우,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러시아 첼랴빈스크(Челябинск) 주 소재 훈련장에서 시행되었다. 이 훈련은 대테러 연합 훈련으로서 SCO 8개 회원국(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참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병력 파견 없이 참관만 했으며, 훈련 참가 병력은 총 3,000명, 동원된 무기와 장비는 500대 규모였다. 이 가운데 러시아군은 병력 1,300명과 장비 330대(항공기 37대 포함)를 동원했으며, 처음 참가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350명의 병력을 파견했는데, 규모로는 평화의 사명 훈련이 시작된 이래 최대이다; 현승수, “러시아: 적극적 강대국 외교와 국방 현대화 지속,” p. 281.



필요가 없으며, 또 이들 훈련이 실제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미국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와 양국 간 군사 교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sup>109)</sup>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에게는 합동 해군 연습이 주는 위협이 더욱더 가시적이다. 러시아는 원래 중국과 민감한 해역에서의 해군 연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중·러는 발트해나 남중국해 등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해역에서 적극적으로 합동 훈련을 나타내는 경우가 빈번해졌다.<sup>110)</sup> 최근 사례를 보면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중국 산둥성(山东省) 칭다오(靑島) 해상과 상공에서 중국과 러시아군이 ‘해상연합-2019’ 훈련을 시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는 이란까지 참가시켜 3국이 인도양과 오만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시행했다. 인도양과 오만해는 세계의 주요 교역로 중 하나이며, 많은 나라가 이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란과의 연합 훈련이 세계 안보와 지정학적 동학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실시하는 자체 군사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8년 9월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실시한 대규모 ‘동방-2018(Vostok-2018)’ 훈련에는 중국 측으로부터 병력 3,200

---

108) Daniel Urchik, “What We Learned from Peace Mission 2018,” *Small Wars Journal*, 2018.3.10., <<https://smallwarsjournal.com/jrnl/art/what-we-learned-peace-mission-2018>> (검색일: 2020.5.12.).

109) Dmitry Gorenburg, “An Emerging Strategic Partnership: Trends in Russia-China Military Cooperation.”

110) Chris Buckley, “Russia to Join China in Naval Exercise in Disputed South China Sea,” *New York Times*, 2016.7.29., <<https://www.nytimes.com/2016/07/29/world/asia/russia-china-south-china-sea-naval-exercise.html>> (검색일: 2020.8.21.); Andrew Higgins, “China and Russia Hold First Joint Naval Drill in the Baltic Sea,” *New York Times*, 2017.7.25., <<https://www.nytimes.com/2017/07/25/world/europe/china-russia-baltic-navy-exercises.html>> (검색일: 2020.8.21.).

여 명이 참가했고, 2019년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실시한 첸트르-2019(Tsentr-2019)에는 중국이 육군, 공군 병력 1,600명과 각종 무기 및 장비, 300조의 군용기와 헬기 30기 등을 파견했다. 또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2000년 9월 21~26일까지 실시한 ‘캅카스-2020(Kavkaz-2020)’ 훈련에 중국군은 자체 생산한 신형 수송기를 이용해 차량과 경화기 등을 수송하는 한편, 화력 타격 훈련과 전장 상황 통제 훈련을 진행했다.

### 3. 중·러 정치·군사 협력의 추동 요인

첫째,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공동 이해와 전략 공유이다. 러시아의 경우 NATO의 확대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2008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NATO의 세력 확장에 맞서 자국의 국방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sup>111)</sup> 중국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 대만과 티베트 문제를 포함한 영토와 주권, 인권 문제 제기 등을 자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위협으로 인식한다. 최근에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 인식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공유하면서 대미 전략에 있어 양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대미 위협 인식의 공유가 중·러 관계의 가장 단적이고, 가장 큰 추동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서방은 물론, 중·러 스스로

---

111) 유철중, “푸틴 “나토확대 맞서 국방력 강화”...글로벌 안보시스템 구축촉구,” 『연합뉴스』, 2016.6.22., <<https://www.yna.co.kr/view/AKR20160622190600080?input=1195m>> (검색일: 2020.10.3).

가 인정하는 바이다. 코롤레브(Alexander Korolev)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이 동반자 관계를 통해 러시아는 미국과의 세력 균형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수단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러시아가 추구하는 유럽의 다극화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경우에는 러시아의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가진 에너지 자원과 군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 에너지와 군사 기술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증가하는 긴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sup>112)</sup>

국내의 러시아 외교 연구자인 고재남은 러시아의 대중국 외교를 분석한 글 속에서 중·러 관계는 늘 미·중·러의 삼각 구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소련이 존재하던 냉전기 때부터 소련(러시아)과 중국의 친소(親疏) 관계 변화에는 미국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sup>113)</sup> 중·러 양국의 정상과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의 단극체제 구축 시도에 반대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나라는 미국이 크고 작은 국제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강행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세계가 미국 중심의 단극화에 맞서 다극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루킨(Alexander Lukin)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접근 현상을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전개된 국제 관계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진단한다.<sup>114)</sup> 이는 국내 중국 문제 전문가인 문흥호가 지적한 중·러 관계

---

112) Alexander Korolev, "How Closely Aligned are China and Russia? Measuring Strategic Cooperation in IR," *International Politics*, vol. 57 (2020), pp. 787.

113) 고재남, "러·중 관계의 발전과 미국 요인," pp. 257~297.

114) Alexander Lukin,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Cambridge: Polity, 2018), p. viii.

밀착의 근원적 이유와 궤를 같이한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에 극도로 분노했고, 중국은 ‘역사의 종언’을 앞세운 미국의 집요한 ‘화평 연변’ 위협에 직면하여 체제 안보를 지상 과제로 설정했다. 이 상황에서 중·러의 동병상련과 전략적 협력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sup>115)</sup>

양국은 1997년 공동으로 채택한 「다극화 세계 및 신국제질서 구축에 관한 선언」을 필두로, 2000년 채택한 「미사일방어체제에 관한 공동선언」 기타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반대하고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다. 2019년 들어 러시아가 중국의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서는 것도, 또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심화시키고자 하는 것도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탈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의 공유가 중·러 관계 발전의 대외적 요인이라면 중국과 러시아 각각의 국내적 요인 또한 중·러 간 전략적 관계 발전을 촉진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핵심 전제였다. 또한, 러시아는 약 4,350km의 국경선을 공유하는 만큼 러시아와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야말로 중국 개혁개방의 관건이었다. 또한, 에너지 확보에도 러시아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

러시아 역시 냉전 이후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개혁을 위해 국경 안정 및 외자 도입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국은 러시아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주요 상대국이었다. 이렇듯 중국과 러시아의 전

115) 문흥호, “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중소연구』, 제41권 제4호 (2018), p. 69.

략적 관계는 국내적 측면에서도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었다.

셋째,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이다. 사실 냉전 시기 사회주의 중주국의 지위를 놓고 중·러가 대립과 갈등을 겪었던 사실은 잘 알려졌다. 소련 해체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 확정에 합의하고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 또한 잘 알려졌다. 그러나 탈냉전의 시작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직면한 현실은 매우 달랐다. 아니, 사회주의 양대 중주국으로 자처하던 두 나라가 직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방향이 매우 달랐다고 해야겠다.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개혁개방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서구형 자본주의의 실천자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식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꾀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완전히 유럽으로 통합된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완전한 형태로 이식하지 못한 채, 국력과 국격만 실추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서구형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추종하기보다는 러시아식 민주주의라는 허울 아래 권위주의를 합리화하고 국가 중심의 자본주의로 서방과는 선을 그었다. 크고 작은 국제문제들에서 러시아는 미국 및 서방과 공공연히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2014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였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데에 관심을 보인 것도 2014년 이후부터이며,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의 경제 제재와 관계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파트너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부터였다.<sup>116)</sup> 푸틴은 달혀 가는 서쪽의 국경을 대신해 동쪽

---

116) Alexander Gabuev, "Friends with Benefits? Russian-Chinese Relations After the Ukraine Crisis," *Carnegie Moscow Center*, 2016.6.29., <<https://carnegie.ru/2016/06/29/friends-with-benefits-russian-chinese-relations-after-ukraine-crisis-pub-63953>> (검색일: 2020.6.10.).

국경으로 눈을 돌렸으며 경제와 안보 능력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중국은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아 왔고, 2014년 대러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더욱이 러시아의 처지에서 미국의 존재와 미일 동맹의 강화는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다. 미일 동맹의 강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안보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미·중 경쟁의 가속화 속에서 중국이 택한 전략적 선택이다. 대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2017년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과 2019년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을 핵심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 강화까지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2018년 5월, 미태평양통합군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였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인도와의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방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구상이 구체화하면 미·중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중국의 에너지 확보 문제와도 결부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표 III-1〉과 같이 중국은 2010년 이후 국방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2011년에는 증가율이 12.7%에 달했다. 그런데도 중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미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2019년 기준 중국의 국방예산은 1,757억 달러인데 미국의 국방예산은 중국의 약 4배에 달하는 6,860억 달러에 이른다. 증가율이 아닌 절대 규모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선불리 충돌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통해 대미 연합전선 성격의 협력을 시도하게 된다. 더구나 러시아는 여전히 중국의 가장 큰 무기 판매처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는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표 III-1〉 2010~2019년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방비 (억 달러)	786	887	990	1,063	1,193	1,310	1,410	1,512	1,635	1,757
증가율 (%)	7.5	12.7	11.2	10.7	12.2	10.1	7.6	7.0	8.1	7.5

출처: “2019年中国、美国军费预算增长情况、军费占GDP比重对比及中国军费构成项目及具体用途分析[图],” 中国产业信息, 2020.4.1., <<http://www.chyxx.com/industry/202004/853919.html>> (검색일: 2020.10.6.).

〈표 III-2〉 2010~2019년 미국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방비 (억 달러)	6,910	6,870	6,450	5,780	5,810	5,600	5,800	6,060	6,390	6,860
증가율 (%)	4.2	-0.5	-6.1	-10.4	0.5	-3.6	3.6	4.5	5.4	7.4

출처: 위의 자료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더 공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덩샤오핑의 유산인 도광양회는 폐기되었으며, 스스로 강대국임을 인정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자신

을 미국의 유일한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대외정책 노선에 큰 변화를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여러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중 중국과의 갈등이 가장 첨예해졌다. 시진핑과 트럼프라는 소위 ‘스트롱맨(strongman)’의 등장은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했으며, 무역전쟁의 심화는 군사 분쟁과 패권 경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미·중 관계의 악화는 오히려 중·러 관계의 강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끝으로, 중·러의 가치 공유이다. 이것이 양국의 국가 발전 전략이나 세계전략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계획하면서 가치의 공유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확연히 제고시키는 것만은 사실이다. 두 나라는 서구식 민주주의, 미국형 자본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 등에서 상호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다. 두 나라 지도자는 권위주의형 국가 발전 모델이 서구형 민주주의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2020년 세계적 차원의 대재앙인 COVID-19 사태에 대한 대처에서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형 체제가 혼란을 극대화하는 서구형 민주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피력한 바 있다.<sup>117)</sup>

---

117) ВАН ИВЭЙ, “Выход из Кризиса и Преимущества Китая,”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no. 3 (2020), <<https://globalaffairs.ru/articles/vyhod-iz-krizisa-i-p-reimushhestva-kitaya/>> (검색일: 2020.6.11.).



## 4. 중·러 정치·군사 협력의 제약 요인

많은 서구 학자들은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깨지기 쉽고 또 단명할 운명에 있다고 생각한다. 중·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의하고 합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며, 또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보 로(Bobo Lo)가 적시한 ‘편의의 축(axis of convenience)’은 서구 학자들이 중·러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서방측 전문가들은 대미 견제라는 공통의 목표가 사라진 후, 중·러 양국 사이에는 협력보다 갈등의 소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 또 러시아가 미국에 도전함으로써 국제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평화로운 굴기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sup>118)</sup>

러시아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러 관계의 한계성보다 지속·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들이 더 우세한 것 같다. 일부 논자들은 중·러의 군사 동맹 가능성까지 점치기도 한다.<sup>119)</sup> 또 대미 견제가 중요한 현시점에서 중·러 관계의 이격이나 파탄 전망을 굳이 피력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중국 학자들도 중국 정부의 방침을 충실하게 따르며 중·러 연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강하다.<sup>120)</sup> 그러나 오늘날 군사 동맹까지 운위되는 중·러 관계가 절대

---

118) Andrej Krickovic, “The Symbiotic China–Russia Partnership: Cautious Riser and Desperate Challenger,”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0, no. 3 (2017), pp. 299~329.

119) Vassily Kashin, “Is the Conflict Inevitable? Not at All. How Reasonable are Western Expectations of a Russia–China Confrontation?,” *Russia in Global Affairs*, vol. 17, no. 3 (2017), pp. 32~36; Сергей Караганов, “Избежать Афганистана-2,” *Ведомости*, 2014.7.28., <<https://www.vedomosti.ru/opinion/articles/2014/07/28/izbezhat-afganistana-2>> (검색일: 2020.9.16.).

120) Xuetong Yan, *The Weakening of the Unipolar Configuration* (London: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2), pp. 112~118; Rensselaer Lee and Artyom Lukin, *Russia's Far East: New Dynamics in Asia Pacific and Beyond*

로 변하지 않는 관계는 아니라는 데에 대다수 전문가는 공감한다. 그들이 지적하는 양국 관계의 한계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두 나라의 지정학, 지정학 및 지전략적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 모두 상대국의 이익이 자국의 그것을 침해한다 해도 서로를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한 바 없다.<sup>121)</sup> 2008년 8월 러시아가 옛 소련권 국가이자 인접국인 조지아를 군사 공격했을 때, 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또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하고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도 중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에 대한 지지 표명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물론 SCO의 회원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러시아를 지지 또는 비난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관철했다. 이는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조지아나 우크라이나 등 소련권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군사 개입을 하는 상황 자체가 달가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도 티베트 자치구나 신장웨이우얼(新疆) 자치구 등지에서 소수민족 분리 독립 요구와 연계된 심대한 안보적 우려를 하고 있어서, 주권 침해나 민족문제, 국경 문제에서 일방의 편을 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러시아 또한 남중국해 문제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 적이 없다.

한편, 중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제약 요인으로서, 양국 경제 사이에 가로놓인 구조적 상이, 협력 결과에 대한 기대치의 격차, EAEU와 일대일로의 조율 부족 등 주로 경제적 요인들을 지적한다.<sup>122)</sup>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양국

---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16), pp. 117~120.

121) Михаил Коростиков, “Дружба на расстоянии руки: Как Москва и Пекин определили границы допустимого,” Коммерсантъ, 2019.5.31., <<https://www.kommersant.ru/doc/3984186>> (검색일: 2020.4.7.).

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합동 훈련이 실질적인 군사적 효과보다는 교류의 심화 정도와 보여주기를 위한 정치적 계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양국 간 군사 안보적 이해(利害)의 상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sup>123)</sup>

양국의 지정학적(아울러 지경학과 지전략까지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중앙아시아다. 중앙아시아는 19세기 후반에 제정 러시아의 지배하에 놓인 이후 소비에트 연방 일부로 존속하다가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인해 독립한 ‘스탄’ 5개국을 가리킨다. 이 지역 국가들은 독립 이후 30년 동안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힘겹게 경험해 오면서,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경성 권위주의 국가서부터 키르기스스탄과 같이 정변과 혁명을 여러 번 겪은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각국이 다양한 형태의 정치 및 경제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석유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과 세계 굴지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중국과의 자원 협력이 활발하며 이미 자원 생산량의 상당량을 중국에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이 가동 중이다.

또 중국 시진핑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인 일대일로 사업이 중앙아시아를 핵심 협력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중속’이 운위될 정도로 대중국 경제 의존이 심각한 상황

---

122) Ma Bin and Zhang Jian, “Present and Future Sino-Russian Cooperation: Chinese Perspectives,” in *Sino-Russian Relations: Perspectives from Russia, China, and Japan*, eds. Vasily Kashin, Ma Bin, Yuki Tatsumi, and Zhang Jian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9), p. 24.

123) Paul Schwartz, “The Military Dimension in Sino-Russian Relations,” in *Sino-Russian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eds. Jo Inge Bekkevold and Bobo Lo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9), p. 105.

이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자국의 핵심적인 이해지대로 인식하고 있고 안보적으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와 경제적으로는 EAEU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지역 통합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같은 저개발 국가의 경우, 주민들의 다수가 러시아에서 이주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국가 예산을 좌지우지할 정도다. 그러나 이미 경제 규모 면에서 비교되지 않는 중국에 러시아가 도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안보적으로도 향후 중·러 간 갈등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sup>124)</sup>

둘째, 미국과의 관계 추이다. 양국 전략 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뚜렷하게 보일 시점은 아마도 러시아의 지도부 교체가 발생하는 시기일 것이다.<sup>125)</sup> 장기 집권을 향한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고, 러시아 내에서 여전히 푸틴을 대체할 만한 지도자의 부재가 목격되고 있지만, 만일 러시아가 푸틴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집권하게 될 경우, 더욱이 그 대통령이 푸틴의 국내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일 경우, 러시아는 30년 이상 지속해 오던 반미, 반서방 노선을 재고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미래의 러시아가 유럽과의 관계 개선, 미국과의 공존과 협조로 전환한다면, 또 러시아가 자국의 미래를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찾고자 한다면 중·러 관계는 단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정도 질적 변화를 겪게 될 공산이 크다. 앞에서 언급한 중국의 전문가들 마빈과 장지앤(Mabin and

124)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중·러 두 나라가 책임 영역을 나누어 갈등의 소지를 방지하는 구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즉 러시아는 안보 영역을 책임지고, 중국은 경제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신범식 외,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서울: 진인진, 2015), p. 122.

125) Chris Miller, “Will Russia’s Pivot to Asia Last?,” *Orbis*, vol. 64, issue. 1 (2020), pp. 43~57.

Zhang Jian) 또한 경제적 요인과 함께 미·중·러 삼각관계의 역학 구도 변화가 중·러 관계의 제약 요인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26)</sup> 하지만 어느 경우여라도 러시아가 중국을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경계심이다. 사실 중국의 경우 관·학계를 통틀어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나 대러 협력에 대한 회의론을 찾아 보기 힘들다. 그것은 러시아에 대해 무한신뢰를 보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러시아가 중국에 주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전혀 작지 않다. 일단 중·러 간에 놓인 긴 국경 지대에서 발생할지도 모를(혹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중국 세의 확장에 대해 경계하는 러시아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지구 전체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인구는 일본보다 약간 많은 1억4천 명에 불과한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에 대해 경계를 넘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인들의 대중 경계감은 중·러 국경 지대가 놓인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이 지역의 인구는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푸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극동 지역 개발도 인구의 급감세와 인프라의 미비, 이로 인한 해외 투자 유치의 미진함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러시아는 인구와 경제력에서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는 중국이 러시아 영내로 진출하는 데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군사 협력에도 러시아산 무기의 대중국 수출 확대 및 증가 추세, 러시아의 고급 군사 기술 정보의 중국 공유가 러시아에 있어서 ‘양날

---

126) Liselotte Odgaard, "Beijing's Quest for Stability in its Neighborhood: China's Relations with Russia in Central Asia," *Asian Security*, vol. 13, no. 1 (2017), pp. 41~58.

의 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개량하거나 개조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또 중국이 언젠가는 무기 수출국으로서 러시아와 경쟁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과거처럼 최첨단이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무기나 군사 기술만 중국에 판매한다는 전략은, 이미 타국을 통해 상당 수준의 군사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중국에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더는 2000년대 초에 경험했던 무기 수출 최강국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원인으로 중국을 꼽는다.<sup>127)</sup>

결론적으로 향후 중·러 관계의 수위는 러시아가 가진 대중국 인식에 따라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즉 미·중 갈등 속에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이익과 지정학 및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의존성 속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달려 있다. 또 중국과의 관계 심화가 필요한 러시아 정치권과 군사 안보적으로 중국에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러시아군의 입장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27) Dmitry Gorenburg, "An Emerging Strategic Partnership: Trends in Russia-China Military Cooperation."

## 5.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중·러 관계의 전망에 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서방에서는 회의론이 우세한 듯 보이며, 중·러의 관·학계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의 전략 연구가인 드미트리 고렌버그(Dmitry Gorenburg)는 향후 중·러 관계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미국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여 내놓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중·러가 현재의 군사 협력 수준을 점차로 높여 가는 것이다. 양국이 실시하는 합동 군사 훈련에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합동 해군 연습 장소를 기존의 남중국해와 지중해, 발트해로부터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으로 확대하는 일도 가능하다. 고렌버그는 양국 군대의 합동 군사 연습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되면 러시아로서는 아태 지역에 대한 존재감을 높일 수 있고 중국에는 유럽 해양에서의 존재감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만일 중남미의 반미 국가들, 예컨대 쿠바나 베네수엘라가 협력하면 중·러가 카리브해에서 합동 연습을 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 선전 효과에 비해 실제로 미국의 지정학 경쟁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한다.<sup>128)</sup>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중간 수준이며 그 미칠 파급효과도 중간 수준인데, 러시아가 고급 군사 기술과 장비를 중국에 추가 수출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탐내는 러시아산 군사 장비로는 디젤·전기형 잠수함, 가시거리 외 레이더 시스템, 조기 경보 시스템, 위성 기술, 차세대 항공기 엔진 등이다. 러시아 역시 중국으로부터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군사 장비 부품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중량물 크레

---

128) 위의 글.

인, 공작 기계, 회로 부품 등이 포함된다. 중국제 수상 전투함도 러시아의 관심을 끌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 국내 방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고렌버그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르면, 무엇보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산 S-400 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에 더해, 더욱 고사양인 S-500 시스템의 거래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중국이 S-500을 도입하게 되면 미국과 그 동맹국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방공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며, 그 경우 중국은 40N6 사거리 연장형(400-km) 미사일의 도입도 희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sup>129)</sup>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가능성이 작지만, 파급효과가 크다. 중·러 간 방산 협력이 극초음속 무기나 잠수함 소음 통제 등 민감한 군사 기술의 거래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두 나라의 지도부가 민감한 군사 기술의 교류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고 있으나, 만일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균형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또 최근 언론에서도 주목받았던 러시아제 RD-180 로켓 엔진과 중국제 항공우주 등급 초소형 전자 부품의 맞교환 가능성도 미국의 우려를 자아낸다고 고렌버그는 분석한다. 또 중·러가 공동으로 지역 분쟁에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언급하고 있다. 이미 중·러는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적 위기 상황이나 불안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하는 훈련이 시행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나 중동지역에서 군사적으로 중·러가 개입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최근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다. 가능성이 작지만, 중·러가 함께 또

---

129) 위의 글.



는 어느 일방이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현재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번졌을 때 러시아가 직접 참전은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전쟁 비용을 올리기 위해 아시아에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만일 러시아가 유럽 지역에서 NATO와 군사적 충돌을 빚었을 때,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고렌버그의 전망이다.<sup>130)</sup>

중·러 간 정치·군사 협력이 지속 및 심화하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반도와 관련해 중·러 간 정치 협력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두 나라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공동 로드맵이다. 중·러가 공동으로 구상하는 『한반도 문제해결 로드맵』은 2017년 5월에 처음 제시되었고,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후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마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두 나라가 지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공식 입장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국과 미국도 연합 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한다. 2단계에서는 남북한과 북·미, 북·일 간에 평화공존과 군사력 불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 끝으로 3단계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일관되게 추구해 온 주장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북미 정상 간 회담이 성과를 거두게 될지라도 이후의 프로세스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다자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30) 위의 글.

한편, 중·러 간 군사 협력의 심화는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에서도 실질적인 안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미사일 공격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사실이 한반도 상황과 직결된다. 2019년 8월 미국이 INF 조약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그 직후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러는 강력한 군사적 보복이 있을 것이라며 사전경고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9월 5일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이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고, 12월 4~5일 한국을 찾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거론했다. 10월부터 중·러가 군사 동맹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온 것도 양국이 대미 위협 인식을 고조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도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시험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당시 러시아 전략 폭격기 투폴레프(Tu)-95 2대와 조기경보 통제기 A-50 1대 그리고 중국의 전략폭격기 홍(轟)-6K 2대가 KADIZ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특히 A-50은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을 두 차례나 침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공군은 KF-16과 F-15K 전투기 18대를 긴급 출격시켰으며, 특히 KF-16은 A-50이 1차 침범했을 때 20mm 기관총 80여 발과 열 추적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 발을, 또 2차 침범 때는 20mm 기관총 280여 발과 플레어 10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거나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한 사례는 모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었다.<sup>131)</sup>

131) 현승수, “러시아: 적극적 강대국 외교와 국방 현대화 지속,” p.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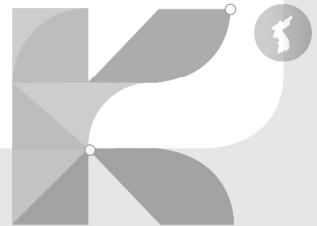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초강대국인 미·중·일·러의 지정학이 응집되어 있으며 남북한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한반도에서는 오히려 그 긴장감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억제되고 또 국지적 분쟁이 발생해도 확대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듯, 중·러 양국은 경쟁하고 갈등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들에서 꾸준하게 분업을 추구하고 있는바, 안보 영역에서는 러시아가, 경제 영역에서는 중국이 주도권을 갖고 상호 공조하는 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래의 한반도에서도 중·러가 분업의 원칙에 입각한 공조 체제 아래서 조율되고 통제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남·북·러 삼각 협력이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거나 전망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남·북·러 삼각 협력이 중국의 경제적 혹은 안보적 이해를 침해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기꺼이 중국과 협의를 마다치 않을 것이다. 중국 역시 러시아의 입장을 무시 혹은 배제하면서 한반도에서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러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공동이익으로 인식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구도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본 장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 양국의 전략 협력 수준은 상당 부분 미국 요인에 달려 있다. 두 나라가 미국과 맺고 있는 적대 혹은 대립·갈등 관계가 완화되지 않는 한, 양국이 ‘준 군사동맹(Quasi-military alliance)’ 수준의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이는 한반도에서 미국 중심의 또는 미국 독단의 정세 주도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안보와 외교의 최고 우위에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접경국이자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도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한국에게 대단히 어려운 전략적 딜레마를 조성한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고 미·중 경쟁을 넘어 대중, 대러 적대시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 북한에는 기회를, 한국에게 난제를 던져주고 있다.

# IV. 중·러 경제 협력

이현태 인천대학교





이 장에서는 중·러 간의 경제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로 무역, 투자, 금융을 중심으로 경제 교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분석 시기는 양국이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이다. 특히 2014년 대러 제재를 기준으로 하는 전후 시기 비교가 관심사이다. 제재 전후에 중·러 경제 협력의 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교류의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을 탐구한다.

## 1. 중·러 경제 협력 추이

### 가. 무역·투자

중·러 무역은 2000년 6,180백만 달러에서 2018년 108,246백만 달러로 18년간 17.5배 증가하였다(〈표 IV-1〉). 수입 성장률이 24.9%, 수출성장률 14.0%로서 연평균 17.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세계 무역이 연평균 9.8% 성장(136,639백만 달러에서 686,694백만 달러로 5.0배 성장)한 것을 생각하면 성장률이 크게 높다.

〈표 IV-1〉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2000~2018년)

연도 (단위)	무역액 (백만 달러)	수출액 (백만 달러)	수출 비중(%)	수입액 (백만 달러)	수입 비중(%)	무역수지 (백만 달러)
2000	6,180	5,232	5.1%	948	2.8%	4,284
2001	5,631	4,020	4.9%	1,610	4.4%	2,410
2002	9,172	6,790	6.3%	2,381	5.2%	4,408

연도 (단위)	무역액 (백만 달러)	수출액 (백만 달러)	수출 비중(%)	수입액 (백만 달러)	수입 비중(%)	무역수지 (백만 달러)
2003	11,431	8,161	6.2%	3,270	5.8%	4,890
2004	14,753	10,019	6.0%	4,733	6.9%	5,286
2005	20,288	13,049	5.5%	7,239	7.5%	5,810
2006	28,622	15,734	5.4%	12,888	9.7%	2,846
2007	40,305	15,893	4.5%	24,412	12.2%	-8,519
2008	55,770	21,049	4.5%	34,721	13.0%	-13,672
2009	38,977	16,092	5.6%	22,884	14.2%	-6,791
2010	58,842	19,783	5.2%	39,059	17.7%	-19,275
2011	78,030	32,019	6.4%	46,011	15.4%	-13,991
2012	87,416	35,766	6.8%	51,650	16.3%	-15,884
2013	88,798	35,625	6.8%	53,173	16.9%	-17,547
2014	88,350	37,494	7.5%	50,856	17.7%	-13,361
2015	63,552	28,606	8.3%	34,945	19.2%	-6,339
2016	66,117	28,019	9.8%	38,097	20.9%	-10,077
2017	86,939	38,932	10.9%	48,007	21.2%	-9,074
2018	108,246	56,079	12.5%	52,167	22.0%	3,911

주: 수출비중은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수입비중은 러시아의 전체 수입에서 대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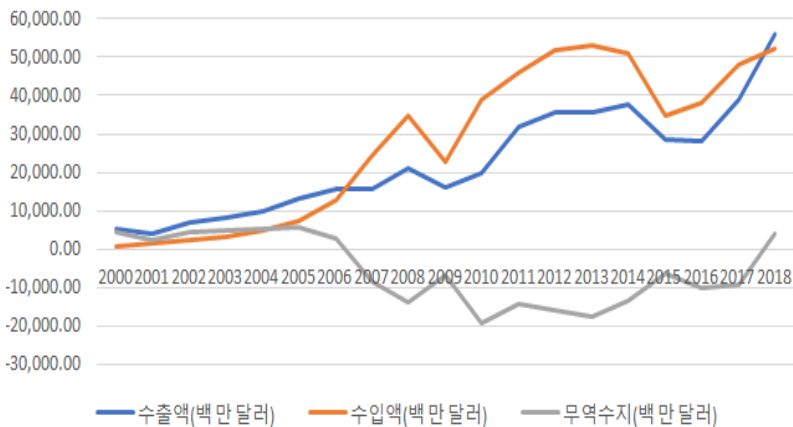
출처: IMF DB <<https://www.imf.org/en/Data>>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 결과 러시아의 대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해서 2018년 무역의 15.7%, 수출의 12.5%, 수입의 22.0%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 무역의 4.5%, 수출의 5.1%, 수입의 2.8%에서 각각 11.2%p, 7.4%p, 19.2%p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빠른 비중 증가가 눈에 띈다. 2013년 수출 비중 6.8%, 수입 비중 16.9%에서 4년 동안 각각 5.8%p, 5.1%p씩 대폭 증가하였다(〈그림 IV-2〉). 다만 이 비중의 증가가 반드시 액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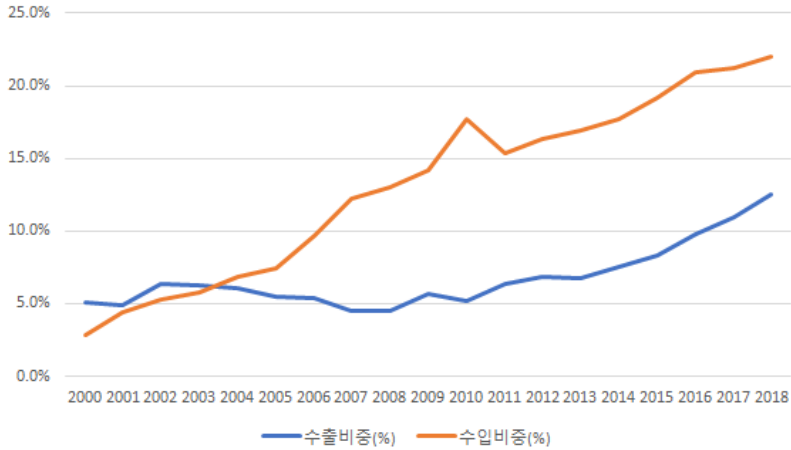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수입의 경우 2018년과 2014년 수입액이 거의 비슷하다. 즉, 제재로 인해 대세계 수입이 크게 줄면서 예년 수준을 유지한 중국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반대로 세계 최대 무역대국인 중국의 대러 무역의존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2000년 각각 0.9%, 2.6%이던 비중은 2018년에도 1.9%, 2.7%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그림 IV-3>). 중·러 간에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무역수지의 경우 러시아는 2007년 이후 대중국 적자를 지속해서 기록해오다가 2018년 12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이 2017년 38,932백만 달러에서 2018년 56,079백만 달러로 대폭 상승하면서(증가율 44.0%),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주로 러시아의 대중 원유 수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IV-1>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2000~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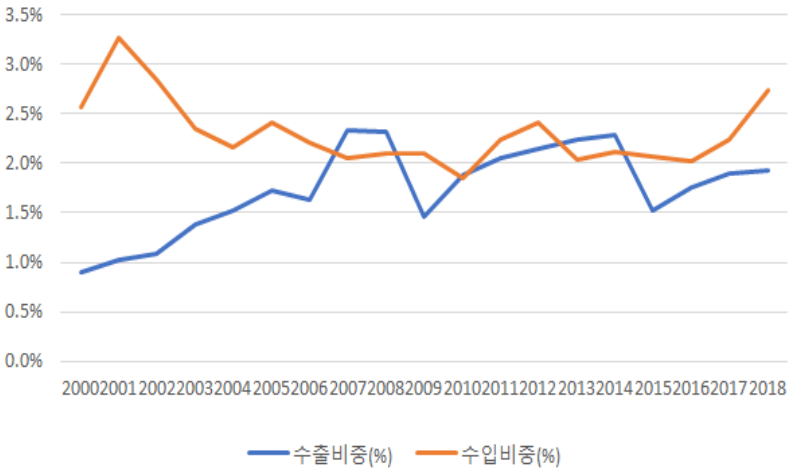
출처: IMF DB (<<https://www.imf.org/en/Data>>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IV-2〉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



출처: 위의 자료

〈그림 IV-3〉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입 비중 추이



출처: 위의 자료

2000~2018년 러시아의 대중 수입(중국의 대러 수출)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 기간에 걸쳐 압도적이다. 2000년 96.3%였던 제

조업 비중은 2018년 98.2%로 오히려 1.9%p 높아졌다. 다음으로 농림어업이 2000년 2.6%, 2018년 1.5%로 제조업에 비해 크게 미미한 수준이다. 러시아의 대중 수입은 절대적으로 제조업 제품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이 소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경쟁력 있는 제조 상품을 만들어 내면서 러시아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의 대중 수출(중국의 대러 수입)은 2000~2018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00년 제조업이 86.3%, 광업이 5.9%로 제조업 수출이 대부분이었으나 2011년 제조업 45.2%, 광업 53.0%로 역전되었고, 2018년 제조업 27.0%, 광업 71.6%로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 뒤에서 품목별로 분석하겠지만, 이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비중은 작으나 농림어업의 수출액 급상승이 두드러진다. 2011년 23,649천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2018년 458,344천 달러로 20배가량 증가하였다(〈표 IV-2〉).

〈표 IV-2〉 러시아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연도 (코드)산업	수입액			수출액		
	2000	2011	2018	2000	2011	2018
(0001)전산업	2,233,350	38,903,018	48,005,203	5,769,892	40,362,599	58,886,548
(0002)농림어업	57,632	499,464	718,376	15,231	23,649	458,344
(0003)광업	19,376	52,116	57,555	342,615	21,410,149	42,163,622
(0004)제조업	2,149,922	38,332,053	47,136,783	4,976,750	18,761,958	15,913,380
(0005)전기가스수도	-	-	-	2,348	51,302	138,728
(0006)폐수처리 및자원재활용	32	3,635	3,905	127,569	109,622	10,990
(0009)기타	6,386	15,747	88,583	305,379	5,920	201,484
	수입액 비중			수출액 비중		
(0002)농림어업	2.6%	1.3%	1.5%	0.3%	0.1%	0.8%
(0003)광업	0.9%	0.1%	0.1%	5.9%	53.0%	71.6%
(0004)제조업	96.3%	98.5%	98.2%	86.3%	46.5%	27.0%

(코드)산업	연도	수입액			수출액		
		2000	2011	2018	2000	2011	2018
(0005)전기가스수도		-	-	-	0.0%	0.1%	0.2%
(0006)폐수처리 및 자원재활용		0.0%	0.0%	0.0%	2.2%	0.3%	0.0%
(0009)기타		0.3%	0.0%	0.2%	5.3%	0.0%	0.3%

출처: ISTANS DB <<https://istans.or.kr/>>; UN Comtrade DB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7.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러 수출입 통계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대중 무역특화지수를 산업별로 구할 수 있다(<표 IV-3>).<sup>132)</sup> 2018년 기준 광업과 전기가스 수도는 수출만 있고 수입이 없는 완전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폐수처리와 기타 산업에서도 수출특화이다. 다만, 수입액이 큰 제조업에서는 -0.5로 수입특화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려할 점은 2000년과 2018년 사이에 농림어업과 광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2000년 0.4이던 지수가 2018년 -0.5로 0.9 하락했다. 이는 러시아 제조업의 대중국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농림어업, 광업 등 기초 산업에 대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에너지와 농수산물에 대한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나(특히, 농림어업의 무역특화 지수가 0.36으로 가장 크게 증가), 에너지 수요를 크게 좌우하는 중국 경기 변동이나 국제 원자재 및 농산물 시장의 등락에 따른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32)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는 특정 국가의 산업 혹은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제 경쟁력의 지표로 사용된다.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으로 계산하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로 경쟁력이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한다; 매경닷컴, “무역특화지수,” 『네이버 백과사전』, <<http://naver.me/xow6MxwW>> (검색일: 2020.10.6.).

〈표 IV-3〉 러시아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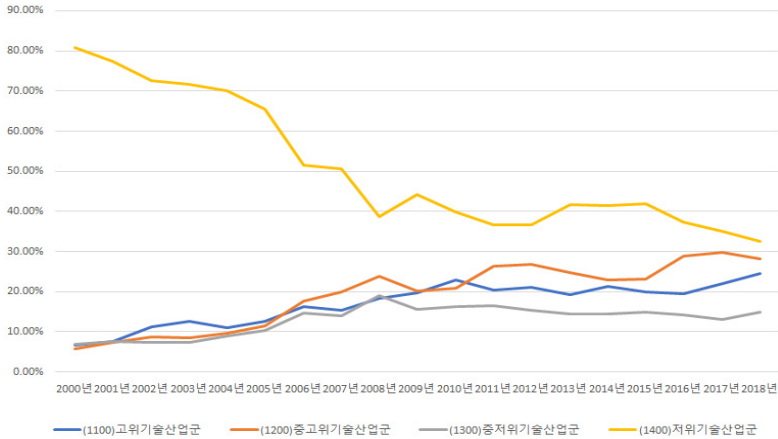
(산업코드) \ 연도	2000 (A)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B)	B-A
(0001)전산업	0.44	0.23	0.05	0.10	0.00	-0.02	0.10	-0.34
(0002)농림어업	-0.58	-0.75	-0.74	-0.80	-0.61	-0.35	-0.22	0.36
(0003)광업	0.89	0.96	0.99	0.99	0.99	0.99	0.99	0.10
(0004)제조업	0.40	0.18	-0.24	-0.16	-0.41	-0.44	-0.50	-0.90
(0005)전기가스수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0
(0006)폐수처리 및 자원재활용	1.00	0.98	0.96	0.97	0.85	0.83	0.48	-0.52
(0009)기타	0.96	1.00	0.88	-0.53	0.96	1.00	0.39	-0.57

출처: 저자 작성

2000~2018년 중·러 제조업 수출입 추이를 기술 수준별로 보면 〈그림 IV-4, 5〉와 같다. 중국의 대러 제조업 수출(러시아의 대중 제조업 수입)은 저위기술산업군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중고위·고위 기술산업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0년 80.8%에 육박하던 저위기술산업군 비중이 2018년에는 32.5%까지 떨어진 반면, 동기간 중고위기술산업군은 5.8%에서 28.1%, 고위기술산업군은 6.6%에서 24.4%까지 상승했다. 제조업 수출 구성이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의 대러 수출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수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러시아의 대중 제조업 수출(중국의 대러 제조업 수입)은 반대의 양상이다. 저위기술산업군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중고위·고위기술산업군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2018년 저위기술산업군의 비중은 55.1%까지 상승했는데 중고위기술산업군은 10.5%, 고위기술산업군은 2.1%까지 하락하였다. 러시아의 대중 제조업 수출 구성이 질적인 저하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 발전’이라는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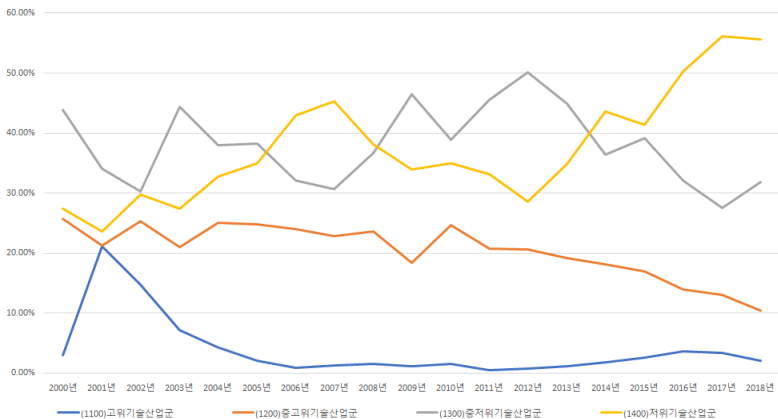
에서 중국의 약진과 러시아의 후퇴로 볼 수 있다. 물론 러시아는 원래 제조업 수출의존도가 낮고 대중 제조업 수출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수준별 비중 변화에 과중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림 IV-4〉 중국의 대러시아 제조업 기술수준별 수출 추이(2000~2018년)



출처: ISTANS DB <<https://istans.or.kr/>>; UN Comtrade DB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7.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IV-5〉 러시아의 대중국 제조업 기술수준별 수출 추이(2000~2018년)



출처: 위의 자료

위의 변화는 러시아의 대중 제조업 기술수준별 무역특화지수에도 반영된다(〈표 IV-4〉). 2000~2018년 모든 기술산업군에서의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면서 0이하로 떨어졌다(수입특화, 무역적자). 2000년에는 저위기술산업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특화 상태였으나 2018년에는 고위기술산업군 -0.94, 중고위기술산업군 -0.78에 이를 정도로 완전수입특화에 가까워졌다.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러시아의 상대적 경쟁력이 하락해서 대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 제조업이 중고위기술산업군 이상에서 더욱 발전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에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4〉 러시아의 대중국 제조업 기술수준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코드)산업 \ 연도	2000 (A)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B)	B-A
(1000)제조업	0.40	0.18	-0.24	-0.16	-0.41	-0.44	-0.50	-0.89
(1100)고위기술산업군	0.03	-0.10	-0.93	-0.92	-0.97	-0.90	-0.94	-0.97
(1200)중고위기술산업군	0.82	0.56	-0.09	-0.21	-0.51	-0.56	-0.78	-1.60
(1300)중저위기술산업군	0.87	0.80	0.14	0.36	0.15	0.01	-0.16	-1.04
(1400)저위기술산업군	-0.12	-0.29	-0.33	-0.29	-0.51	-0.44	-0.27	-0.15

출처: 저자 작성

중·러 제조업 무역의 주요 품목들 변화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무역 추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4~2008년(5년) 중국의 대러 제조업 수출을 보면 의류 28.1%, 가죽·신발 8.8%, 가전 7.9%, 섬유 5.3% 순으로 주로 의류 중심의 경공업 수출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0년 후인 2014~2018년(5년)에는 의류의 비중이 17.8%로 10%p 이상 줄어든 대신 일반목적기계 8.4%, 통신기기 7.1%의 비중이 커지면서 2, 3위를 차지하였다. 위에서 분석했듯이,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에서 고기술, 고부가가치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10대 산업에 대한 수출집중도(Concentration Ratio)는 2004~2008년 74.1%, 2014~2018년 68.8%로 다소 낮아졌다(<표 IV-5>). 중국이 점점 더 다양한 제조 상품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표 IV-5> 중국의 대러시아 제조업 수출품목 변화

(단위: 천 달러, %)

2004~2008(5년)					2014~2018(5년)			
순위	코드	품목	액수	비중	코드	품목	액수	비중
1	1404	의류	27,610,630	28.1	1404	의류	37,781,537	17.8
2	1405	가죽·신발	8,648,952	8.8	1205	일반목적기계	17,838,965	8.4
3	1106	가전	7,758,821	7.9	1105	통신기기	15,133,244	7.1
4	1403	섬유	5,214,465	5.3	1405	가죽·신발	13,453,897	6.3
5	1205	일반목적기계	4,753,245	4.8	1106	가전	12,965,113	6.1
6	1311	조립금속	4,648,780	4.7	1311	조립금속	11,229,833	5.3
7	1105	통신기기	3,976,761	4.0	1403	섬유	108,270,100	5.1
8	1207	자동차	3,724,231	3.8	1207	자동차	9,351,710	4.4
9	1401	음식료	3,304,356	3.4	1104	컴퓨터	9,193,749	4.3
10	1206	특수목적기계	3,218,042	3.3	1206	특수목적기계	8,732,655	4.1
합계			72,858,281	74.1			146,507,80	68.8

주: 순위와 비중은 제조업 내 순위와 비중임.

출처: ISTANS DB <<https://istans.or.kr/>>; UN Comtrade DB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7.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면, 2004~2008년 러시아의 제조업 수출을 보면 목재 21.3%, 석유정제 18.7%, 정밀화학 12.0%, 석유화학 11.1%, 음식료 11.1% 순으로 원자재 가공 중심의 수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10년 후인 2014~2018년에도 목재, 비철금속, 음식료,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기초 가공 상품 비중이 여전히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품목 또한 철강이 제외되고 정밀기기가 들어온 것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수출집중도도 2004~2008년 97.9%, 2014~2018년 97.3%로 제조업 수출이 주요 품목에 크게 집중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상위 3대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후기에는 61.9%, 5대 품목에 대한 80.6%로, 전기의 52.0%, 74.2%에서 각각 9.9%p, 6.4%p 상승하면서 소수 품목에 더욱 집중되는 모습이다 (<표 IV-6>).

<표 IV-6>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 변화

(단위: 천 달러, %)

순위	2004~2008				2014~2018			
	코드	품목	액수	비중	코드	품목	액수	비중
1	1406	목재	11,352,537	21.3	1406	목재	19,128,997	28.4
2	1301	석유정제	9,951,750	18.7	1309	비철금속	13,493,111	20.0
3	1202	정밀화학	6,400,515	12.0	1401	음식료	9,097,360	13.5
4	1201	석유화학	5,926,997	11.1	1301	석유정제	7,568,741	11.2
5	1401	음식료	5,897,386	11.1	1201	석유화학	5,043,229	7.5
6	1308	철강	4,102,453	7.7	1407	제지	5,032,572	7.5
7	1309	비철금속	4,089,550	7.7	1202	정밀화학	3,698,265	5.5
8	1407	제지	3,398,133	6.4	1109	항공	907,384	1.3
9	1109	항공	668,221	1.3	1311	조립금속	873,601	1.3
10	1311	조립금속	316,576	0.6	1107	정밀기기	770,803	1.1
합계			52,104,118	97.9			65,614,063	97.3

주: 순위와 비중은 제조업 내 순위와 비중임.

출처: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무역 코드인 HS(Harmonized System code) 4단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노동집약형 경공업 제품에서 첨단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2004~2008년에는 노동집약형 경공업 제품인 신발류, 각종 의류가 10대 품목 안에 7개나 들어가 있었으나, 2014~2018년에는 4개로 줄어들고 첨단산업 제품인 전화기, 자료처리기기, 차량부품류 등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다만 중국의 대러 수출은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10대 품목들의 비중 또한 그리 크지 않다. 2004~2008년 기간 1위부터 10위까지의 비중을 모두 합치면 24.3%, 2014~2018년은 26.3%로서 대략 전체 수출의 1/4 정도이다(〈표 IV-7〉).

〈표 IV-7〉 중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변화(HS4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2004~2008				2014~2018			
	코드	품목	액수	비중	코드	품목	액수	비중
1	6403	신발류	4,311,908	4.3	2709	전화기	14,257,939	6.6
2	6110	의류 (jersey 등)	3,242,051	3.3	4407	의류(모피류)	13,175,122	6.1
3	4303	의류(모피류)	2,829,484	2.8	2701	자료처리 기기류	8,052,344	3.7
4	6104	의류(여성용)	2,662,411	2.7	7502	의류(여성용)	5,180,720	2.4
5	8517	전화기	2,636,121	2.6	4403	신발류 (고무류 바닥)	5,018,473	2.3
6	4203	의류(가죽류)	2,632,065	2.6	303	차량부품류	3,876,728	1.8
7	6103	의류(남성용)	1,829,927	1.8	2710	조명기구류	2,684,175	1.2
8	8528	텔레비전 기기	1,821,897	1.8	4703	신발류 (甲皮 가죽)	1,709,801	0.8
9	8704	화물자동차	1,267,497	1.3	7403	전기가열식 기계설비장치	1,559,968	0.7
10	6109	의류(티셔츠, 조끼류 등)	993,689	1.0	3104	원심분리기	1,405,662	0.6
합계			24,227,050	24.3			56,920,932	26.3

출처: ISTANS DB <<https://istans.or.kr/>>; UN Comtrade DB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7.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면, 러시아의 대중 수출은 자원 중심의 수출구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2008년 러시아는 중국에 원유, 원목, 석

유(원유 제외), 생선, 칼륨비료 등을 주로 수출하였다.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들이다. 2014~2018년에도 원유, 제재목, 석탄류, 니켈, 원목 등을 주로 수출했는데, 특히 원유의 비중이 35.0%에서 58.3%로, 액수가 31,205백만 달러에서 120,856백만 달러로 많이 증가하였다. 2010년대 이후 중국-러시아를 잇는 송유관이 개통되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수출 다변화를 위한 대중 원유 수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10대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 2004~2008년 기간에는 78.8%, 2014~2018년 기간에는 89.5%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 10대 품목의 비중이 낮은 중국의 대러 수출과는 크게 다르다(〈표 IV-8〉).

〈표 IV-8〉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변화(HS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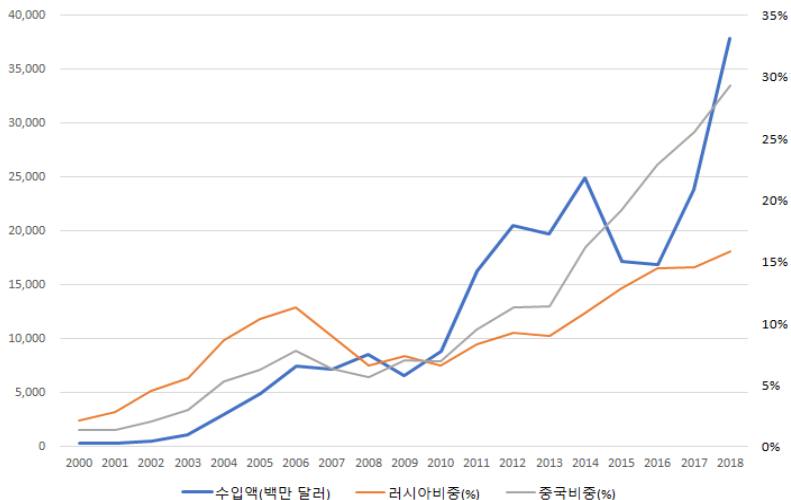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순위	2004~2008				2014~2018			
	코드	품목	액수	비중	코드	품목	액수	비중
1	2709	원유	31,205,728	35.0	2709	원유	120,856,388	58.3
2	4403	원목	10,166,385	11.4	4407	제재목	11,901,789	5.7
3	2710	석유 (원유 제외)	9,883,715	11.1	2701	석탄류	9,101,545	4.4
4	303	생선류	5,407,693	6.1	7502	니켈	8,046,872	3.9
5	3104	칼륨비료	4,580,471	5.1	4403	원목	6,786,961	3.3
6	4703	화학목재펠프	2,468,424	2.8	303	생선류	6,600,686	3.2
7	7502	니켈	2,095,660	2.4	2710	석유 (원유 제외)	6,483,703	3.1
8	2601	철광류	1,952,797	2.2	4703	화학목재펠프	4,340,267	2.1
9	4002	합성고무	1,240,134	1.4	7403	정제구리, 구리합금	3,113,828	1.5
10	7209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194,701	1.3	3104	칼륨비료	2,132,932	1.0
합계				78.8				89.5

출처: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러시아의 대중 원유 수출 증가는 <그림 IV-6>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1년 러시아 스코보로디노와 중국 다칭을 연결하는 동부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Eastern Siberia-Pacific Ocean pipeline: ESPO) 중국 지선 개통, 1일 30만 배럴의 수출량을 100만 배럴까지 늘리는데 합의한 2013년 중·러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원유 수출다변화 노력을 거치면서 급증하였다. 우크라이나 제재 직전인 2013년 19,743백만 달러이던 수출액이 2018년 37,889백만 달러로 2배에 가깝게 증가했다. 이에 대세계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약적으로 상승했다(2013년 9.0%→2018년 29.3%, 20.3%p 상승). 특이한 점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즈음에 대중 수출액이 줄어든 기간에도 중국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대세계 수출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그림 IV-6> 러시아 대중국 원유(HS 2709) 수출 추이



주: 중국비중은 러시아의 대세계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러시아비중은 중국의 대세계 수입에서 대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출처: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6년부터는 대중 수출액과 중국 비중이 동시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한 원유 수출다변화를 통해 제재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히 완화한 셈이다. 반면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은 러시아 원유의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입다변화에 성공하였다. 중동에 의지해온 중국의 원유 수입에서 2018년 러시아 비중이 15.9%까지 증가하였다. 2019년 이후에도 양국 간에는 ‘시베리아 힘(Power of Siberia)’의 개통을 통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교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러 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 ODI)는 2003년 31.0백만 달러, 2011년 715.8백만 달러에서 2015년 2,960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8년 725.2백만 달러로 축소되었다(〈표 IV-9〉).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중 ODI는 54.3백만 달러에서 2018년 56.8백만 달러로 제자리걸음이었다. 그 결과 2003년 러시아의 대중 투자액 대비 중국의 대러 투자액(a/b)은 0.6배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225.7배, 2018년에는 12.8배에 이르렀다. 즉, 중·러 간의 직접투자는 철저히 중국의 대러 투자 중심인데, 대러 투자는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복이 심한 양상이다. 양국의 대세계 ODI 대비 상대국 투자 비중은 모두 매우 낮은 편으로 중국의 대러 투자비중이 가장 높았던 2015년에도 2.03%,<sup>133)</sup> 러시아의 대중국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04년에도 0.92%에 불과했다. 양국은 상대국을 적절한 투자처로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이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133) 2015년에 예외적으로 중국의 대러 투자가 확대된 이유는 야말(Ямал) LNG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여한 결과로 추정된다. 서방의 경제제재로 엑손모빌(Exxon Mobil) 등 서방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자 2015년 러시아의 노바텍(Novatek)은 야말 프로젝트 지분 9.9%를 13억 달러에 중국 실크로드기금(Silk Road Fund)에 팔았고 운영 자금도 중국 측에서 추가로 조달하여 총 필요 자금의 60%를 중국 측이 공급하게 되었다.

Investment: FDI)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a/c)은 제재로 인해 유럽의 투자가 거의 중단되었던 2015년 4.3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을 뿐, 그 전후에는 모두 1% 미만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제재 이후 유럽에서의 투자 감소를 중국이 거의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수출 증가로 인한 무역 급증과는 사뭇 다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sup>134)</sup>

〈표 IV-9〉 2003~2018년 중국과 러시아 간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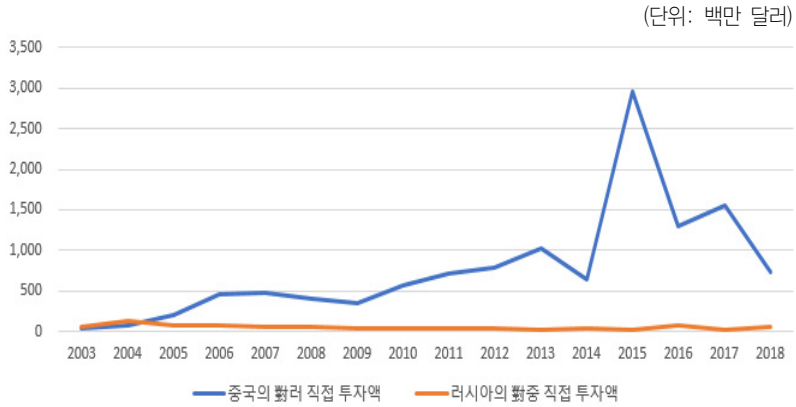
(단위: 유량, 백만 달러)

	중국		러시아		비교		
	대러 ODI(a)	대러ODI/대세계ODI	대중 ODI(b)	대중ODI/대세계ODI	대러 FDI(c)	a/b	a/c
2003	31.0	1.09%	54.3	0.56%	79,286	0.6	0.04%
2004	77.0	1.40%	126.4	0.92%	154,030	0.6	0.05%
2005	203.0	1.66%	82.0	0.46%	155,081	2.5	0.13%
2006	452.0	2.56%	67.2	0.22%	375,948	6.7	0.12%
2007	477.6	1.80%	52.1	0.12%	558,737	9.2	0.09%
2008	395.2	0.71%	60.0	0.11%	747,829	6.6	0.05%
2009	348.2	0.62%	31.8	0.07%	365,831	11	0.10%
2010	567.7	0.83%	35.0	0.07%	431,678	16.2	0.13%
2011	715.8	0.96%	31.0	0.05%	550,836	23.1	0.13%
2012	784.6	0.89%	29.9	0.06%	505,876	26.2	0.16%
2013	1,022.3	0.95%	22.1	0.03%	692,189	46.3	0.15%
2014	633.6	0.51%	40.9	0.07%	220,313	15.5	0.29%
2015	2,960.8	2.03%	13.1	0.06%	68,530	225.7	4.32%
2016	1,293.1	0.66%	73.4	0.33%	325,389	17.6	0.40%
2017	1,548.4	0.98%	23.8	0.06%	285,574	65	0.54%
2018	725.2	0.51%	56.8	0.18%	87,849	12.8	0.83%

출처: 중국통계국 DB (<http://www.stats.gov.cn/english/>); World Bank DB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0.7.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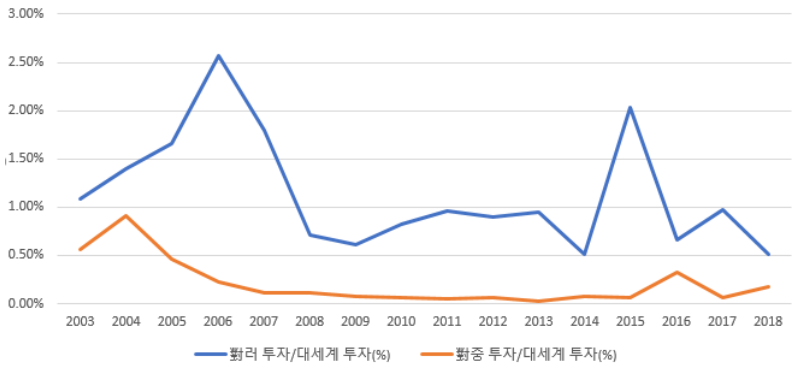
134) 러시아로 들어오는 직접 투자는 상당 부분 유럽에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의 유럽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다룬 최근 한 연구에서는 유럽 투자자들이 러시아의 직접투자 자산의 대략 55~75%를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Marta Dominguez-Jimenez and Nicolas Poitiers, "An Analysis of EU FDI Inflow into Russia," *Russian Journal of Economics*, vol. 6, no. 2 (2020), p. 147.

〈그림 IV-7〉 중국과 러시아 간 직접투자액 추이



출처: 위의 자료

〈그림 IV-8〉 중국-러시아의 상호 직접투자(ODI) 비중 추이



출처: 위의 자료

중국 기업에 의한 대세계 대규모 투자(1억 달러 이상)들을 조사해 온 중국 글로벌 투자 트랙커(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CGIT)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기업은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 하나와 건설 프로젝트 하나에 투자했을 뿐이다(총액 6억 달러). CGIT에 의하면, 이는 2018년 중국 기업들의 전 세계 투자액의 0.8%에

불과하다. 2005~2018년 기준으로 보아도 중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물론 중국 기업들 외에도 중국의 정책 은행들이 주요 에너지 및 건설 프로젝트들에 대해 상당한 신용을 제공해 왔다. 예를 들어, 2009년 2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중국 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이 ESPO 건설을 위해서 러시아의 로스네프트(Rosneft)와 트랜스네프트(Transneft)에 제공한 사례가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오히려 예외적이며 이후에도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sup>135)</sup>

## 나. 금융 협력

중·러 금융협력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더욱 본격화된다. 러시아는 금융기관들과 에너지 기업 등이 서방의 제재 대상에 올라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체투자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2014년 하반기 이후 루블화 대폭락과 변동성 심화는 중국과의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더 부각했다.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구조와 통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은 러시아 금융 불안정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중국 위안화는 2016년 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 바스켓에 등록되면서 국제통화로서의 안정성을 인정받았기에 제재로 인해 금융협력의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협력 파트너라고 볼 수 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 유라시아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위안화

---

135) Riikka Nuutilainen and Jouko Rautava, "Russia and the Slowdown of the Chinese Economy," *BOFIT Policy Brief*, no. 2 (2020), p. 10.



국제화는 중국의 자본시장 규제 유지 등의 이유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미국과 EU의 제재를 받게 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또한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되면서 중·러는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체계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고 달러화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협력의 범위도 결제시스템 협력, 위안화 국제화 협력, 금융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층위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1) 결제 시스템 협력

양국 정부 간 결제시스템 협력방안은 2014년부터 논의됐다. 주로 ① 러시아의 미르(MIR)와 중국의 유니온페이(UnionPay) 카드 결제 시스템 협력, ② 국제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를 대체하는 중국의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CIPS)과 러시아의 금융메시지전송시스템(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 SPFS)의 호환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는 중국의 온라인 결제플랫폼인 알리페이(Alipay)와 위챗페이(WeChat Pay)가 러시아에 진출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였다.

#### ① 미르-유니온페이(MIR-UnionPay) 카드 결제 시스템 협력

중·러 공동브랜드 카드의 발행 방안은 우크라이나 제재로 인해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러시아에 서비스를 중단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미르 카드 결제시스템은 제재 상황에서 2015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이 구축한 대안적 시스템이다(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러시아 내 미르 카드 발행 수는 3700만

장에 육박함). 양국은 미르-유니온페이(MIR-UnionPay) 카드 발행에 합의하였고, 2017년 7월 러시아 농업은행(Russian Agricultural Bank: RAB), 2018년 7월 러시아 지역개발은행(Russian Regional Development Bank: RRDB)에서 카드 발행을 시작해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이 카드는 러시아에서는 미르 결제 시스템, 중국 및 전 세계에서는 유니온페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유니온페이 카드는 전세계에서 70억 장 이상 발행되었으며 169개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다).<sup>136)</sup>

## ② 국제결제시스템(CIPS-SPFS) 협력

2018년 9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중-러 금융협력 소위원회 회담에서 양국의 통화 결제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2019년 5월 양국은 자국 통화결제에 관한 시행령 초안에 서명하였다. 양국은 우선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neshtorgbank: VTB)와 중국 초상은행(招商銀行) 간의 거래로 시작되어 점차 결제주체를 확대하되 우선 무역결제 위주로 이루어질 것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양국은 상호 결제 인프라 구축에 합의하고 서로의 국제결제 플랫폼인 CIPS와 SPFS를 사용하며 두 플랫폼의 호환성 강화를 위해 공동 개발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sup>137)</sup> 이는 전통적 국제결제 플랫폼인 SWIFT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즉 서방이 중심이 된 SWIFT를 거치지 않고 양국 간에 직접적으로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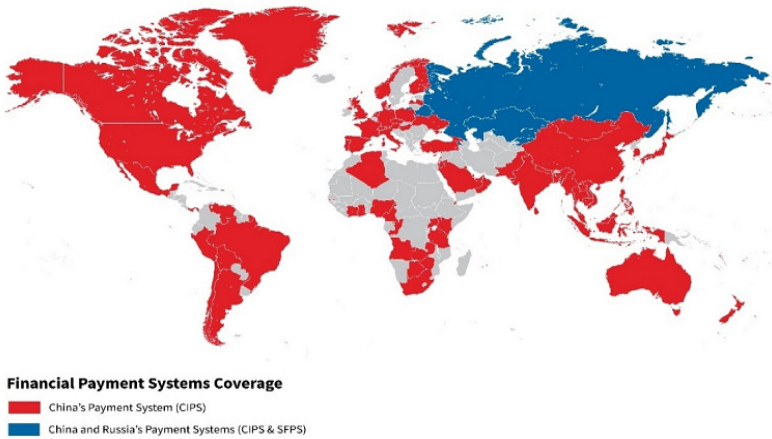
또한 2019년 11월 개최된 BRICS 정상회의에서는 SWIFT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BRICS 결제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것임을 언급하였

136) "MIR Payment System," NSPK, <<https://nspk.com/cards-mir/>> (검색일: 2020.9.20.).

137) 2020년 4월 현재 CIPS는 95개국, SPFS에는 8개 국가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China and Russia: Economic Unequals," CSIS, 2020.7.15., <<https://www.csis.org/analysis/china-and-russia-economic-unequals>> (검색일: 2020.9.20.).

다.<sup>138)</sup> 각국의 국내결제시스템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은 달러가 아닌 BRICS 통화의 결제를 촉진시키고 상호 투자와 지급 결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sup>139)</sup> 만약 이 시스템이 성립될 경우, 총인구 30억이 넘는 거대 경제권에서 사용되면서, 달러 및 SWIFT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9〉 중국과 러시아의 결제시스템(CIPS, SPFS) 적용 범위



출처: "China and Russia: Economic Unequals," CSIS, 2020.7.15., <<https://www.csis.org/analysis/china-and-russia-economic-unequals>> (검색일: 2020.9.20.).

### ③ 알리페이(AliPay)·위챗페이(WeChat Pay)의 러시아 진출

중국 기업 알리바바(Alibaba)의 온라인 결제플랫폼인 알리페이가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였다. 2017년 8월 러시아 대외무역은행은 중국

138) Alex Hamilton, "BRICS Nations Aiming for Common Payment System," FinTech Futures, 2019.11.20., <<https://www.fintechfutures.com/2019/11/brics-nations-aiming-for-common-payment-system/>> (검색일: 2020.9.20.).

139) "BRICS Leaders Vows to Champions Multilateralism, Payment System," Indonesia Business Insight-The Insiders Stories, 2019.11.15., <<https://theinsidersstories.com/brics-leaders-vows-to-champions-multilateralism-common-payment-system/>> (검색일: 2020.9.20.).

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과 관련된 포스(Point Of Sale: POS) 네트워크기를 약 12만 대 도입하였다. 이로써 굼(GUM), 쥘(TsUM), DLT 등 러시아 주요 소매점에서 알리페이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2019년 10월 러시아 인터넷 회사인 메일루(Mail.Ru)는 알리페이, 러시아직접투자기금(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RDIF), 러시아 모바일 그룹 메가폰(МегаФон) 등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해당 협력을 통해 알리페이와 메일루는 140억 시장 규모의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함께 공략한다. 이에 2020년 1월에는 해당 법인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러시아에 독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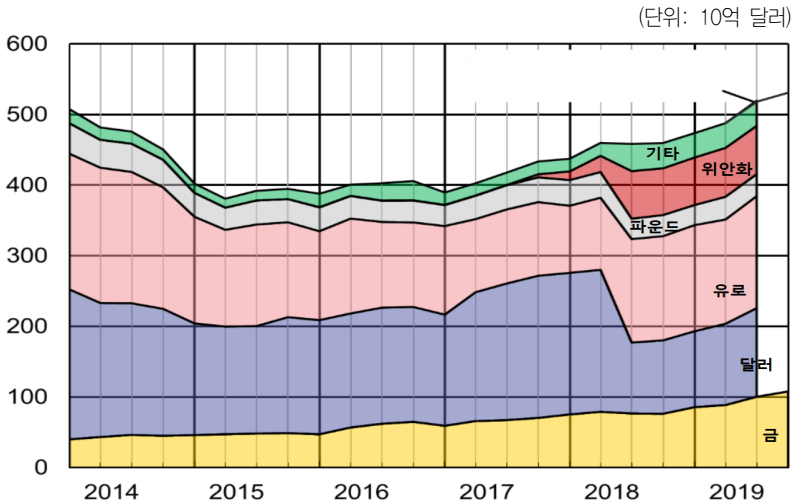
또한 2019년 6월 러시아 기업 안텍스(Yandex)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안텍스 체크아웃(Yandex.Checkout)은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 위챗페이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원래 안텍스 체크아웃은 2018년 말부터 일부 오프라인 업체(주로 면세점 내)에 위챗페이 결제를 허용했는데 이를 확장한 것이다. 이로써 안텍스 체크아웃은 러시아 최초로 위챗페이를 받아들인 업체가 되었다.

## (2) 러시아의 위안화 국제화 동참

러시아는 2015년 위안화를 자국 외환보유고에 포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위안화 비중은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9년 기준 거의 15%에 도달한다(〈그림 IV-10〉).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러시아의 위안화 외환보유고는 대략 68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전 세계 149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 보유액(2,170억 달러)의 1/3가량에 해당한다.<sup>140)</sup> 위안화 비중의 증가는 2018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달러화 대체 작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달러 보유를 줄이는 대신 금, 유로화, 위안화 보유를 늘리고 있다. 이 역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여러 방면에서 줄이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림 IV-10〉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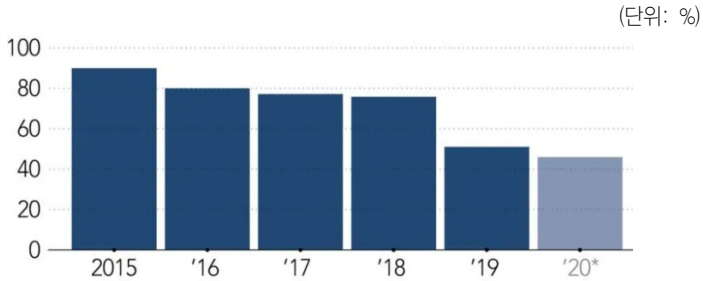
출처: Riikka Nuutilainen and Jouko Rautava, "Russia and the Slowdown of the Chinese Economy," p. 11.

중·러 양자 무역에서도 탈(脫)달러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그림 IV-11〉).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달러 결제 비중이 2020년 1분기에 46%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2015년 달러화 결제 비중이 90%에 달하던 때와 크게 비교된다. 달러화를 대신한 것은 유로화(30%)와 위안화(17%)로 2019년 비교하

140) Riikka Nuutilainen and Jouko Rautava, "Russia and the Slowdown of the Chinese Economy," p. 11.

여 각각 8%, 2%가 상승하였다.<sup>141)</sup>

〈그림 IV-11〉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결제에서의 달러 비중 추이



주: 2020년은 1분기 기준

출처: “China and Russia Ditch Dollar in Move Toward Financial Alliance,” Nikkei Asia, 2020. 8.6.,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China-and-Russia-ditch-dollar-in-move-toward-financial-alliance>> (검색일: 2020.9.20.).

### (3) 금융기관 협력: 중-러 금융위원회(Sino-Russian Financial Council)<sup>142)</sup>

2015년 10월 성립한 중-러 금융위원회(Sino-Russian Financial Council)는 17개 러시아 은행과 18개 중국 은행의 참여로 시작한 양국 간 금융연합이다. 2019년 현재 설립 초기의 2배인 약 70여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다. 해당 위원회의 회원사들은 2018년 국경개발 4대 프로젝트에 약 130억 위안을 투자하고 중국 회원사에 러시아 주요 은행의 100억 위안의 신용한도를 제공하는 등 중-러 은행 간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은행 간 금융, 결제,

141) Mark Allinson, “Russia and China ‘Ditch’ Dollar and Increase Use of Euro,” Robotics&Automation News, 2020.8.6., <<https://roboticsandautomationnews.com/2020/08/06/russia-and-china-ditch-dollar-and-increase-use-of-euro/34796/>> (검색일: 2020.9.20.).

142) 이하 내용은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俄罗斯国际事务委员会、俄罗斯科学院远东研究所, 《中俄对话》(上海: 复旦大学, 2015~2020); 각년호를 활용하여 저자 정리.

외환거래, 어음발행, 전자화폐 등의 영역에서 양국 금융기관 간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 9월 중·러 금융위원회는 회원사 간 유동성 부족 시 상호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극동러시아와 인접한 중국 하얼빈은행(Harbin Bank)이다. 하얼빈 은행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루블화 신용장을 발행하고 중·러 국경개발에서의 위안화 대출 사업을 수행했으며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루블화 초국경 거래를 승인받았다. 또한 중·러 금융위원회 안에서 여타 중국은행들과 함께 러시아의 국영 경제개발은행인 브네세코노뱅크(Vnesheconom Bank)와 100억 위안의 신디케이티드 대출(Syndicated Loan) 협정을 체결하였다. 해당 협정의 목적은 일대일로 사업에서의 중·러 국경 간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총체적으로 보면, 양국 금융협력의 성과는 무역거래에서의 자국 통화 결제 비중, 그리고 러시아의 위안화 준비금 비중 상승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양국의 공동 카드·전자결제 시스템은 압도적 점유율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러시아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9년 맺어진 상호결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양국 간 통화결제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중·러 통화스왑,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브릭스 신개발은행(BRICS New Development Bank), 러시아 기업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등에서 중·러 금융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러 밀월관계가 이어짐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무역·투자처럼 중국 위안화와 결제시스템의 일방적 대러 확장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민간 기업들의 상호 투자 등이 아직 제도적 미비와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활발하지 못하다는 약점 또한 안고 있다.

## 2. 중·러 경제 협력의 영향 요인과 전망

### 가. 영향 요인

무역·투자 분석을 통해 살펴 본 중·러 경제 관계의 주요 특징과 영향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의 대중 수출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중심성이 강화되어 왔다. 러시아의 대중 원유수출액은 2011년 ESOP 중국 지선의 개통과 동시에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4년 대러 제재 직후 감소하다가 급등했다. 중-러를 연결하는 송유관의 개통, 제재의 압박으로 인한 러시아의 수출 다변화 노력, 중동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의 수입 다변화 노력이 합쳐진 결과다. 이들이 에너지 교역 증대를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이었다. 현 글로벌 정세에 큰 변화가 없고 2019년 개통된 ‘시베리아의 힘’ 등 에너지 수송관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앞으로도 양국 경제 협력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속 발전해나갈 것이다.<sup>143)</sup> 둘째, 산업별, 제품별로 볼 때, 러시아는 농림어업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 배증과 경쟁력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원유 등 에너지에 비해 절대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기 어려우나, 최근 중국이 국민들의 소득 증가로 질 좋은 수입 식품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 아프리카 돼지열병, 잦은 홍수 등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에 집중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143) 다만 상호 에너지 수출입 의존도 상승은 중·러 모두에게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다변화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중국은 에너지 수입을 다변화했다고 할 수도 있고 대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도 있다. 현재처럼 양국의 정치·외교적 관계가 밀접하다면 양국 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향후 글로벌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위험성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중분쟁이 격화될 때 미국이 반중국 포위망을 건설하면서 러시아의 동참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러 제재를 풀어주는 상황이 그러하다.



대중 수출 전망은 밝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중국의 대중 수출은 제조업 위주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개선을 동시에 이뤄왔다는 점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제품에서 첨단산업제품으로, 저위기술제품 수출에서 중고위기술제품 수출로 수출품 구성이 변하면서 수출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의 대러 제조업 경쟁력은 계속 상승하여 현재 거의 모든 산업군, 제품군에서 압도적인 대러 우위를 점하고 있다.<sup>144)</sup> 이런 모습은 중국의 경쟁력 향상 이외에도 대러 제재로 인해 서방과의 제조업 교역이 일정 부분 막혔기 때문이기도 하다. 넷째, 양국 간 직접 투자는 중국의 대러 투자 위주이고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그 위상이 무역에 비해서도 훨씬 떨어지는 양상이었다. 양국의 직접투자에서 상호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양국 정부 간의 잦은 투자 협력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투자 협력은 아직 요원한 일임을 잘 알 수 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익이 확정되고 안정적인 무역거래보다 직접투자는 고려할 위험성도 많고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우크라이나 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약화와 불안정, 루블화와 에너지 가격의 변동폭 확대, 인프라 미비와 비즈니스 환경 차이, 금융협력의 미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대러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은 중국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ESOP의 확장, 시베리아의 힘 개통, 아무르강(흑룡강) 다리 건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금융협력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교통·금융 인프라 등이 좋아지고 있기에 투자 환경이 앞으로 개

---

144)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상승은 세계적 현상이고 러시아가 원래 제조업 중심의 국가가 아니기에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겠으나, 러시아의 대중 제조업 수출이 심하게 감소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던 몇몇 고위기술 분야마저도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쪽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금융협력은 주로 무역거래에서의 자  
국통화 결제 비중의 증가, 러시아의 위안화 준비금 비중 상승, 상호  
결제시스템 협력,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협력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양국 모두 탈달러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향후  
금융 협력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으나, 무역·투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금융의 대러 영향력 증대가 그 반대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문제와 양국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금융투자 확대 등 수준 높은 협력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 또한  
상존하고 있다. 여섯째, 아직 지표상으로는 나오고 있지 않으나  
COVID-19가 양국 경제협력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  
된다. COVID-19는 대면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국경 무역, 현  
지 투자, 정책 협의, 문화교육 교류, 초국경 인프라 건설 등 국가  
간 경제협력을 크게 저해한다(중·러 국경도 COVID-19 발생 직후  
신속히 폐쇄). 일곱째, 본 장의 무역투자 분석과 크게 관련 없으나  
양국 간 일부 국민 정서 또한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 3성과의 교류가 이에 해당한다. 러시아 극  
동의 경우 인구가 수백만에 불과한 지역인데 반해 인접한 중국 동북  
3성의 인구는 거의 1억 명에 육박한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이 지역  
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인 기억이 있기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  
으로 극동개발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동러시아의 입장에  
서는 중국 자본의 투자와 노동자의 과도한 유입을 경계할 수밖에 없  
다. 마지막으로 중·러의 전략적 이해를 대변한 양국의 지도자들이  
2013년 첫 회동 이후 30여 차례 정상회담을 열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고 때때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어려운 협력  
의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의지를 보여준 것도 양국 경제 관계를 진전  
시킨 추동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10〉 중국과 러시아 경제관계의 영향 요인

추동 요인	제약 요인
- 제재로 인한 원유 수출 다변화(러시아)	- 러시아의 대중 경계감(역사적, 문화적, 인구학적 요인)
- 전략적 의도에 의한 원유 수입 다변화(중국)	- 경제 인프라 부족
- 중·러 에너지관 개통(중·러)	- 비즈니스 환경 차이
- 적극적 극동개발정책(러시아)	- COVID-19
- 위안화 국제화 등 탈달러 전략(중·러)	- 러시아 경제의 악화
- 지도자들의 강력한 협력 의지(중·러)	- 루블화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 안정적 식량 공급의 필요성 증가(중국)	- 금융 협력 미흡

주: 추동요인들은 대개 최근 양국이 글로벌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됨.  
출처: 저자 작성

## 나. 협력 전망

앞으로도 경제협력과 관련된 양국의 최대 관심사는 전략적 가치가 큰 에너지 협력일 것이다. 다만, 정부 간 고위급 협력 메커니즘이 계속 가동되면서 전자상거래, 농업, 금융, 과학·기술·혁신, 디지털 경제, 전자상거래, 보건, 5G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양국에서 다음과 같은 협력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 인프라 건설을 통한 양국 전자상거래의 빠른 발전을 촉진한다. 현재,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러시아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의류, 체육용품, 전자제품 등을 수입하고,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차(茶), 초콜릿, 보드카, 꿀 등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미 알리바바 등 굴지의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진출해서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쌓아가고 있다. 게다가 초국경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COVID-19로 인해 비대면 경제 강화가 긴요한 상황에도 잘 부합한다. 둘째, 농업협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투자 협력을 심화한다. 이미 2019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했듯이, 양국 식품기업의 대두 등 농작물 생산, 가공, 물류, 무역 전반 산업사슬에서의 협력

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농식품 수출을 증대시키고 다변화하려는 러시아의 이해와 미중분쟁 등으로 식량안보를 걱정하는 중국의 이해가 일치한다(러시아 농업부와 러시아 수출 센터가 제정한 2017~2024년 농산품 수출발전 전략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 기준 중국에 대한 농산품 수출액을 95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금융협력의 전면적 심화이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금융협력 강화와 ‘탈(脫)달러화’ 정책을 통해 달러화와 국제금융시스템을 앞세운 미국의 공세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부진한 상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원활한 금융협력이 필수적으로 금융 시장 개방, 규제 완화, 관련 제도 확립, 민간 투·융자 플랫폼 형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과학·기술·혁신 분야인 정보통신, 우주항공, 원자력, 바이오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제재에 대응해 과학 기술 협력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중국은 재료공학, 로켓, 항공엔진, 미사일 방어,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에서 러시아의 원천 기술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정보통신기술 등에서 중국의 첨단 산업 및 제조 기술이 필요하다. 2019년 러시아와 중국 정상회담이 수교 70주년을 기점으로 에너지,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10억 달러 규모의 ‘중·러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2020~2021년 ‘러·중 과학기술혁신의 해’ 지정에 합의한 이유다. 2020년에도 러시아와 중국 간 과학 기술 협력 프로젝트는 대략 800여건에 달하며,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Huawei)와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 강화하고 있으며 로봇, 얼굴인식, AI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sup>145)</sup>

---

145) 박정호, “러시아와 중국 경제 관계,”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워크숍 자료집』 (통일연구원 기본과제 워크숍, 2020.8.).

〈보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전면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 활동에 대한 러·중공동성명(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发展新时代 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 联合声明)<sup>146)</sup>’ 중 경제 부분

2019년은 러시아와 중국이 공식적 외교 관계를 수립한지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하였다.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순방을 기회로 양국 정상은 70주년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양국 관계의 질적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전면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 활동에 대한 러·중 공동성명’이다. 공동 성명에는 교역 및 투자 확대, 금융, 산업, 에너지, 원자력, 우주항공, 과학·기술·혁신, 교통운송, 농업, 환경, 세관, 북극개발, 지자체, 인적교류,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 구상 연계 등 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도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다. 전면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거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경제협력의 방향을 알아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무역)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중국 상무부 간 상호 교역 확대(2018년 1082억 달러에서 2024년 2000억 달러 달성 목표 제시)에 대한 MOU 이행 합의
- (에너지) 에너지 자원 탐사, 채굴, 가공, 판매 등 전 부문 협력 확대,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러·중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정례화
-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 증대를 목표로 2020년과 2021년 ‘러·중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위한 상호 교류의 해’ 선포, 혁신 분야에 관한 ‘러·중 다이얼로그’ 정기 개최,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러·중 펀드’ 설립, 메가 사이언스 프로젝트 협력, 과학·기술·혁신 분야 전문가 교류 협력
- (우주항공) 우주(로켓 발사체 개발, 달 및 우주 관련 연구, 우주 쓰레기 모니터링 협력 등)와 항공 분야(IT기술 및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러시아 위성항법시스템 글로나스(ГЛОНАСС)와 중국 위성항법시스템 베이도우(北斗) 간 정보 교환, 민간 항공기 개발 등) 협력

- (농업) 농작물 생산, 가공, 운송, 교역 등 전 과정에서의 협력, 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Байкал) 지역과 중국 동북지역 간 농업발전계획 이행, 러시아의 대중국 콩 수출량 및 가공 규모 확대 계획 이행, 농산품 시장으로의 접근성 증대, 고품질의 농작물 및 식품 교역량 증대 협력
- (북극개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러·중 협력(북극항로 개발 및 활용 범위 확대, 북극지역 인프라 및 자원 개발, 관광 및 환경 분야 협력, 공동 북극탐사 진행 및 북극 내 공동 연구 프로젝트 이행 등) 강화
- (지방) 지방자치단체들 간 교류 협력(2018~2024년 러시아 극동지역 내 경제 및 투자 분야 협력 프로그램 이행, 지역 간 협력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한 성과 달성,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러·중 엑스포, 중국·동북아지역 엑스포, 상트페테르부르크(Санкт-Петербург) 국제경제포럼, 동방경제포럼 등 주요 행사 참여 등) 강화
- (주요 양자협정)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중국 과학기술부 간 러·중 과학기술혁신 펀드 조성 협력에 관한 MOU,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중국 상무부 간 양자 교역 발전에 관한 MOU, 러·중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에 관한 규정, 러시아의 시부르(SIBUR, Сибур)와 중국의 시노페크(Sinopec, 中石化) 간 아무르 가스화학단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연해주(沿海州) 내 메탄올과 암모니아 생산 단지 설립에 관한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나호드카(Находка) 비료공장과 중국화공(中国化工)그룹 간 협정, 러시아 직접투자은행, 알리바바그룹, 메일루, 메가폰 간 러시아 OS 지역 내 전자상거래 부문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MTS(Mobile TeleSystems)와 화웨이 간 MOU 등

146)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发展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全文),” 新华网, 2019.6.6.,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6/06/c\\_1124588552.htm](http://www.xinhuanet.com/world/2019-06/06/c_1124588552.htm)> (검색일: 2020.9.20.).

### 3.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2010년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분쟁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해 왔다. 양국은 2019년 수교 70주년을 거치면서 경제 협력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전면 심화와 질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러 경제 관계의 확대, 심화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중·러 경제 관계는 서방의 제재 하에 양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고, 제3국인 한국으로서는 고려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점이 많지 않다. 다만 중·러 관계 진전이 동북아시아, 좁게는 한반도와 그 북방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한국이 심사숙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 및 러·중의 전략적 협력 구도 속에서 미국과 일본 등 기존 해양 세력과의 협력 관계를 러시아와 중국 등 대륙 세력과의 협력관계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해양-대륙을 잇는 교량 및 교두보로서의 지정학적인 위상을 재확립하는 문제, 즉, 동맹관계와 북방협력의 모순과 충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극복할 것이냐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향후 한반도 지역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강대강(強對強)으로 대립하거나 북핵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다면 불확실하고 위험한 국면이 도래할 수 있다. 2020년 대만해협에서 미·중의 군사적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한반도에도 언제든 닥칠 수가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에 의견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다자 외교가 필수다.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면서도 21세기 패권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과는 달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과도하게 추구

할 이유가 적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와 관련한 다자 외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서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극동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는 중국-인도의 국경 분쟁도 중재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도 담당해 왔다. 이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 러시아의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러시아 극동 등에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신북방정책은 중국, 미국 등 기존 국가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려는 목표도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의존을 우려하는 러시아의 이해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러시아 극동과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이익의 공통분모가 많아질수록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형성된다. 그렇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 오히려 중·러가 경제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에 경사(傾斜)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sup>147)</sup>

극동에서도 중·러 양국은 빠르게 경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러시아와 중국은 ‘2018~2024년 러시아 극동지역 내 경제 및 투자 분야에서의 러·중 협력 확대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양국의 산업협력 방향과 우선순위, 투자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양자 경제 협력 거버넌스 등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70주년 공동성명에서도 중-러 지방 교류 확대, 지속적인 지방 간 경제무역 협력 심화, ‘중-러 극동지역 협력 발전계획 (2018~2024)’의 실행,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

147) 2020년 현재,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면서 중·러는 국제문제에 대해서 거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럼, 동방경제포럼,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러박람회, 중국-동북아박람회 등의 전시 플랫폼을 통해 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자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극동과 연결된 북극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을 공동 추진하면서 연안국의 권익에 따른 북극 항로 개발 이용 확대, 북극 지역 기반시설, 자원개발, 관광, 생태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합작도 추진하기로 하였다.<sup>148)</sup>

한국은 극동 러시아에서의 경제협력 주도권을 중국에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극동협력정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로서도 극동에서의 중국의 압도적인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푸틴 집권 4기(2018~2024) ‘극동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산업 발굴, 가치사슬 확장, 한반도 경제권 확대, 유라시아 및 북극 연결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극동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극동러시아와 인접한 중국 쪽 협력대상지인 동북 3성과의 양자, 삼자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동북 3성과 극동 러시아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자 관계에 집중한다면 한국이 한반도 북방협력에서 역량과 자율성을 발휘할 공간이 줄어들 것이다. 최근 지린성(吉林省)은 장춘(長春)에 한·중국제합작시범구를 개설하고 한국과의 협력에 성(省)의 발전을 깊게 연계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극동 러시아와 동북 3성에서 적절히 협력을 모색하면서 한반도 북방지역에서의 협력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모색은 이 지역에 향후 북한 개방 시, 북한 지역 개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인식에 따라서 신북방정책을 개선한 신북방정책 2.0을 새롭게 고안하고 대러, 대북방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148) 박정호, “러시아와 중국 경제 관계.”



# V. 중·러 에너지 협력

김규륜 통일연구원





현대 경제의 운영에서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관련된 복합적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장기적 국가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의 역동적 속성은 경제성장에 즉각적이며 직접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국제관계에서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국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별 에너지 자원의 부존 상태는 지정학적 분석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도래한 경제개발의 시기에 에너지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주로 서방 강대국의 석유 기업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중동의 석유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 간 분쟁은 석유 수출국들이 단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었으며,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의 등장과 함께 산유국의 힘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 당시 석유파동(Oil Crisis)이라 불리었던 원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 현상은 원유수입국들의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한정된 에너지원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함께 성장의 한계에 대한 전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후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최근 COVID-19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사건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원유로 대표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과거에는 고갈되어 가는(exhaustible) 자원이라는 인식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지금은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으로 인해서 상업적 이익이 보장된다면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생산가능

(producible)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시장경제의 전 세계적 확산은 그동안 경제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촉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중국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폭발적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었으며, 에너지원의 적극적 개발과 무분별한 확대 사용은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에너지 소비 양상의 변화는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사안이다. 즉, 중국은 냉전 시기에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석탄 자원의 부존 상황과 상당한 수준의 원유 보유량을 활용한 에너지 수급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자급적 정책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과 시장경제의 확산은 중국에도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중국은 후발 경제개발국으로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자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가 지속해서 석탄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을 펼친다면 기후 변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는 동토의 국가이지만 막대한 영토에 부존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자원의 존재가 경제 운영의 근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 보유는 역설적으로 소위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에너지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위주의 경제 운영은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용에 긴요한 상업적 기술 발전을 상대적으로 더디게 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부침은 러시아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적인 에너지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정리한 이후, 중·러 에너지 협력의 추동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러 에너지 협력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자 한다.

## 1.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현황

유라시아 대륙의 양대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관련 국제적 입장은 대조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 규모와 미국 다음가는 경제 규모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 자체가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러시아는 알려졌다시피 에너지 자원 부존 부국이다. 러시아는 특히 유럽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오랫동안 경제적 성장과 재정적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에너지 및 경제 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관련 통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양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중국은 주지하다시피 냉전 이후 시기 비약적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였으며,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는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중국의 이와 같은 양적 경제력의 증대가 모든 지역과 국민에게 제대로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중국 덩샤오핑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개혁개방 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적절한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석탄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기의 질이 악화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파생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일이다. 냉전 이후 시기 중국의 경제력 확대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의 경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 20%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괄목한 성장세는 중국의 비중이 1990년에 불과 3.8%이었으며, 2000년까지도 7.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기록적이다.<sup>149)</sup>

러시아는 동서 냉전 기간 동쪽을 장악하는 맹주의 자리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이끌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위상은 냉전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이은 러시아 자체의 급격한 변화 정책으로 인해서 199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분야가 에너지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에는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전반적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게 되었다. 이에 더해 국제적 에너지 및 자원의 가격 부침은 자원 부국인 러시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149) IMF DATA <<https://data.imf.org/?sk=388dfa60-1d26-4ade-b505-a05a558d9a42>> (검색일: 2020.10.30.).



중국과 러시아의 대외 경제 관계를 보여주는 무역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중국의 냉전 종식 이후 30년간의 수출입 상황을 보면, 중국은 1990년에 전 세계 수출입에서 불과 1%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95년에 2%대, 2000년에 3%대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 무역에서의 위상은 지속해서 상승하여 2010년에는 9~1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후 10%대의 수출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150)</sup> 이와 같은 중국의 세계무역에서의 위상 강화는 중국 자체가 대외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냉전 이후 시대 무역자유화의 추세가 지속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10여 년 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와 함께 최근의 브렉시트(Brexit)로 대표되는 통합 추세의 퇴조 등 자유무역주의의 후퇴 현상은 중국의 무역 확대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의 무역 신장 추세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적 경제 체제가 상호 결합된(interconnected) 상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촘촘히 형성되어 있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함께 G2의 위상을 확고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의 확보 문제는 30년 전의 냉전 해체 시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국과 대비해서 보면 1990년에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지만, 냉전 해체 이후 시기에는 러시아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지속적 비중 하락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위치 상승과 매우 대

150)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10.30.).

조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간 최근 경제 관계를 보면, 중국의 대러 수출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대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대러 수입의 비중은 3%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중국과 러시아가 인접 국가 이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양대 강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경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유럽 중심적 국가운영과 중국의 미국 및 유럽 시장 중심적 무역 확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조한 비중은 양국의 근접성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무역을 확대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수출국이면서 최대수입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서 러시아가 2019년 기준으로 수출 13위, 수입 1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중국의 경제 규모가 러시아보다 크기 때문이지만 양국 간 협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상대적 위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sup>151)</sup>

다음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 분야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관련 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에너지 관련 통계는 양국 경제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폭발적 에너지 수요 증대로 인해서 1996년에 원유 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에는 세계

---

151) 위의 자료.

최대 원유수입국이 되었다.<sup>152)</sup> 한편 수출 중심성 계측을 통한 원유 수출국의 위상 측정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과 수입을 아우르는 조사에서는 중국, 미국, 사우디, 러시아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나고 있다.<sup>153)</sup> 즉, 중국은 에너지 수급에서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의 교역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수위(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수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에너지 수급 관련 통계를 통해서 중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인구 대국이면서 동시에 영토 대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때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자원을 우선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에너지 수급 면에서도 자급 자족적 상황을 구가(謳歌)하였다. 하지만 냉전 이후 시기 1990년대와 고도성장기 21세기의 지속적 경제성장은 중국이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가속하였으며, 세계적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수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하였다.

첫째, 중국의 석유 생산 및 소비 관련 추세를 보여주는 아래 표를 보면, 원유의 생산 면에서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석유 제품의 소비 측면에서 보면, LPG 소비가 20배 정도 늘어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항공기 연료 소비는 1990년에 557kt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에 23,219kt로 4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자동차 연료 소비도 동기간에 10여 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석유 소비 증가 추세는 중국이 두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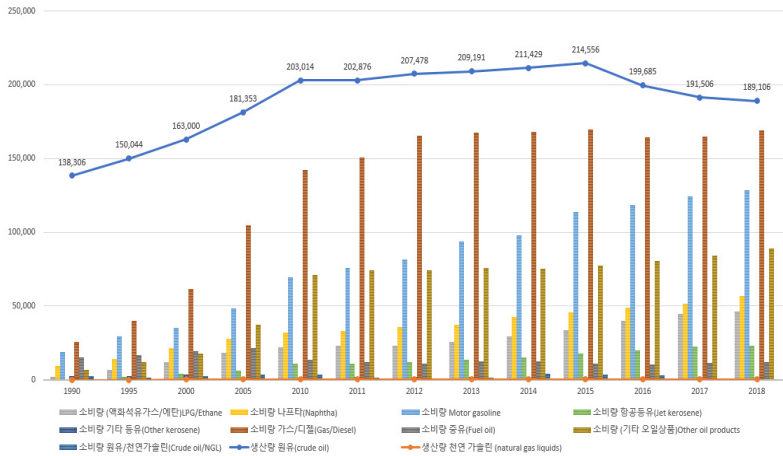
152) 이달석, 『세계 원유교역 구조변화의 지정학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p. 1.

153) 위의 책, p. iii.

릿수 성장세에 기인한 바 있으며, 중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한다 하더라도 소비 증가 추세는 지속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원유를 정제하는 설비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서 석유 제품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므로 지난 10년간 정제석유제품 생산량이 2배 이상 증대되었다.<sup>154)</sup>

〈그림 V-1〉 중국의 석유 생산량과 상품별 소비량

(단위: kt)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ountry=WORL&fuel=Energy%20supply&indicator=TPESbySource>>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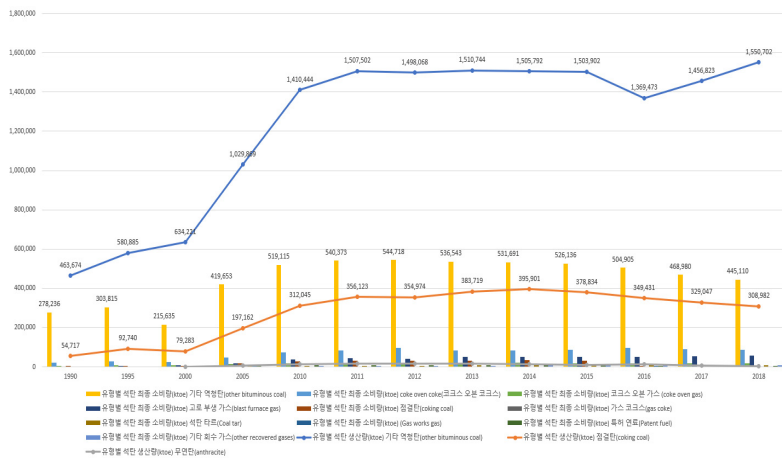
둘째, 중국은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이전에는 에너지 수요를 석탄에 많이 의존하였다. 이에 따라 석탄 생산을 지속해서 증대시키는 정책을 취해 왔으며, 〈그림 V-2〉가 보여주듯이 지난 30여 년 동안 3.4배 증산되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생산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후퇴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

154) 중국의 정제석유제품 생산량은 2000년에 241Mt에서 2019년 기준 582Mt으로 증가하였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에너지통계연보』 (출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에 따라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공해물질의 대량배출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중국은 에너지 부존자원 중에서 석탄이 상대적으로 많이 매장되어 있으므로 대도시의 난방을 석탄에 의존했다. 공업화를 가속함에 따라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으며, 그 결과 주요 도시의 공기 질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즉, 석탄 의존형 에너지 소비 양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증가와 함께 큰 문제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1세기에 들어서 중국은 대도시 공기의 질을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대도시 인근 석탄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더욱 청정한 형태의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

〈그림 V-2〉 중국의 유형별 석탄 생산량과 소비량

(단위: ktoe)



주: ktoe = kilo tonne of oil equival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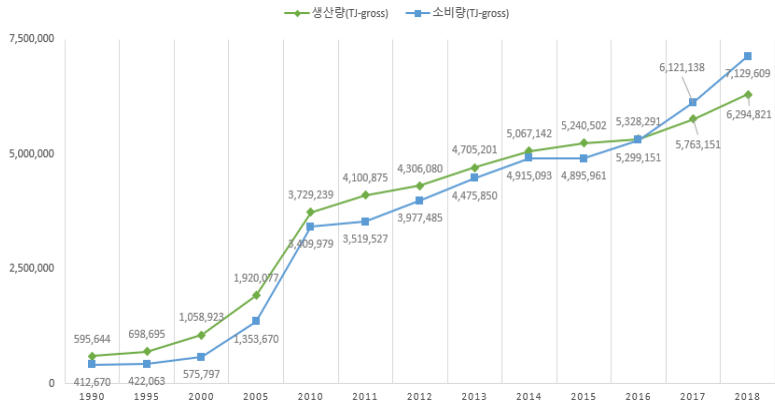
출처: 위의 자료

셋째, 이러한 중국의 에너지 소비 형태의 변화 모색은 자연스럽게 천연가스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전기의 생산과 소

비에서도 점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의존형 발전을 늘려가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의 경우, 냉전 이후 시기 동안 약 17배 정도로 소비가 증대되었으며, 이와 같은 천연가스 소비 증대량은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청정연료로서의 천연가스 의존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중국은 다각도로 수입처를 모색하고 있다.

〈그림 V-3〉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과 소비량

(단위: TJ-gross)



주: J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미터 이동하였을 때 한 일이나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며, TJ는  $10^{12}$ J을 나타내고 TJ-gross TJ 총 순열량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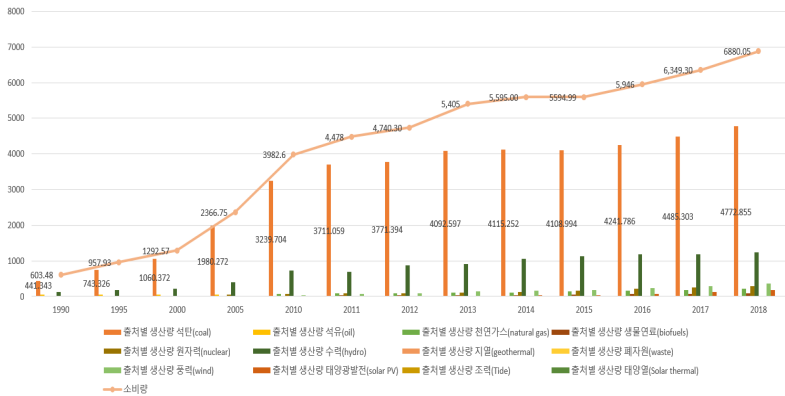
출처: 위의 자료

넷째, 중국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전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1990년대에는 전기 생산을 석탄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V-4〉). 즉, 1990년에는 석탄이 1위, 수력이 2위, 석유가 3위, 천연가스가 4위의 전기 생산 에너지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현재는 원자력이 전기 생산에서 석탄과 수력에 이어 세 번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 발

전을 확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탄소저감형 에너지 정책 구사는 전 세계적 에너지 수요와 공급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선진국형 에너지인 천연가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4〉 중국의 전기 생산량과 소비량

(단위: GWh)



출처: 위의 자료

다섯째, 중국의 에너지 관련 수입 및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석유와 석탄의 수입액이 수출액과 비교해서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1〉). 즉, 석유의 경우에는 2000년에 21억 3,200만 달러를 수출하고, 148억6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수입액이 수출액의 7배를 보인다. 석유의 수출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며, 수입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35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수출액이 12억7천만 달러, 수입액이 2,392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수출이 수입의 188배에 이르렀다. 석탄의 경우 2005년까지는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았으나, 이후 수입액이 대

폭 증가함으로써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수입액은 245억 8,800만 달러, 수출액은 37억 9,9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6.5배를 보인다. 천연가스의 경우 2010년을 전후해서 대폭 수입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천연가스 수입액의 증대는 2010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무려 8.8배 늘어난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원에서 생산되는 능력을 초월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에너지 수입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V-1〉 중국의 주요 에너지 수입과 수출

(단위: USD 달러)

연도	석유(2709)		석탄 외 (석탄(2701), 갈탄(2702), 토탄(2703), 코크스(2704) 등)		천연가스(271111)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2000	14,860,657,009	2,132,032,958	70,093,901	2,378,858,386	828,476	15,244
2005	47,722,764,303	2,696,012,677	1,387,381,612	6,638,623,256	182,361	94,350
2010	135,299,673,339	1,644,812,964	18,215,454,849	3,642,400,477	3,021,453,021	-
2011	196,770,604,891	1,905,683,970	23,915,499,342	4,204,997,199	5,761,719,695	-
2012	220,793,843,089	2,226,024,615	28,728,758,143	2,033,064,164	8,276,317,270	-
2013	219,660,366,018	1,456,208,511	29,089,678,737	2,196,201,285	10,651,167,998	-
2014	228,288,472,075	490,697,311	22,280,221,079	2,404,940,420	12,217,868,798	-
2015	134,342,874,377	1,545,644,007	12,142,740,788	2,006,335,123	8,793,537,009	-
2016	116,660,748,441	943,491,460	14,185,241,663	2,130,784,399	8,935,078,294	-
2017	163,820,666,915	1,822,371,543	22,713,262,278	3,244,086,145	14,749,366,854	-
2018	239,222,366,789	1,270,421,701	24,588,119,116	3,799,424,124	26,771,030,855	382,906

주: ( )는 HS Code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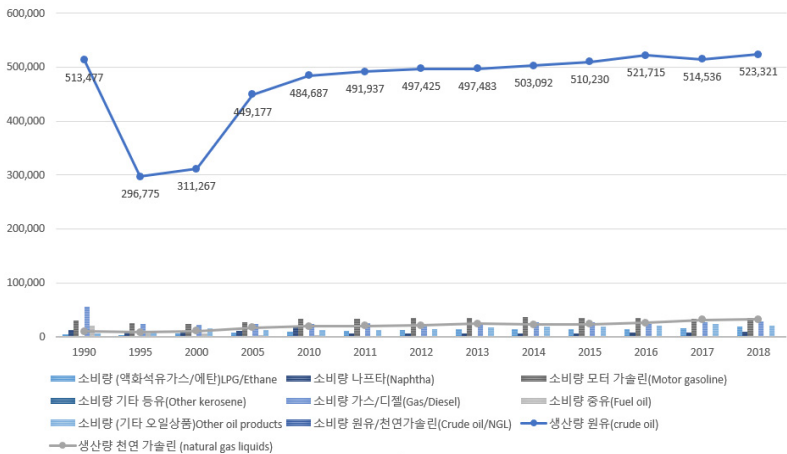
출처: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5>). 첫째, 러시아의 원유 생산은 1990년에 513,477kt을 기록하였으며, 1991년부터 감소하여 1998년까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원유 생산 감소는 체제 전환 과정에서 비롯된 혼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후 2015년에 와서야 과거 수준을 회복하였다. 소비 측면에서도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되는 통계를 보인다. 즉, 1990년대에 지속적인 소비 축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다소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V-5>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과 상품별 소비량

(단위: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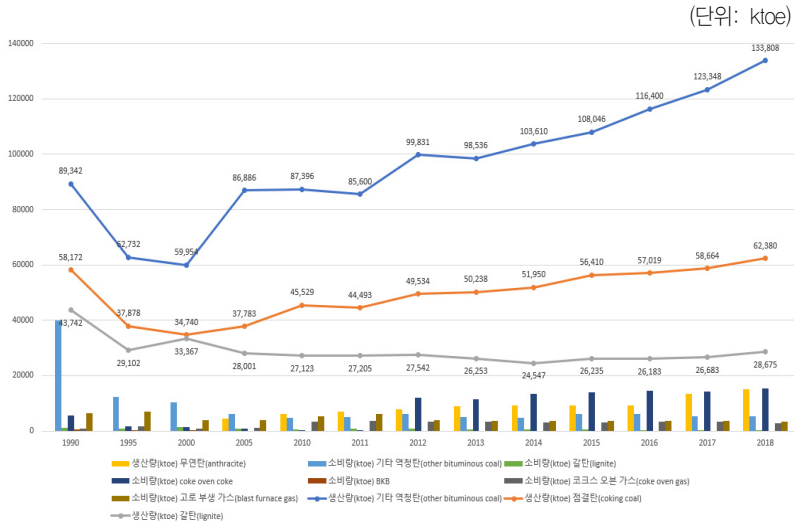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ountry=WO RLD&fuel=Energy%20supply&indicator=TPESbySource>>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둘째, 석탄 관련 생산과 소비(<그림 V-6>)를 살펴보면, 석유와 마찬가지로 1990년 이후 생산이 계속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부터 생산이 회복되어 과거의 수준의 생산량을 보

인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에 지속해서 석탄의 소비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석유와 달리 이후 회복된 소비의 총량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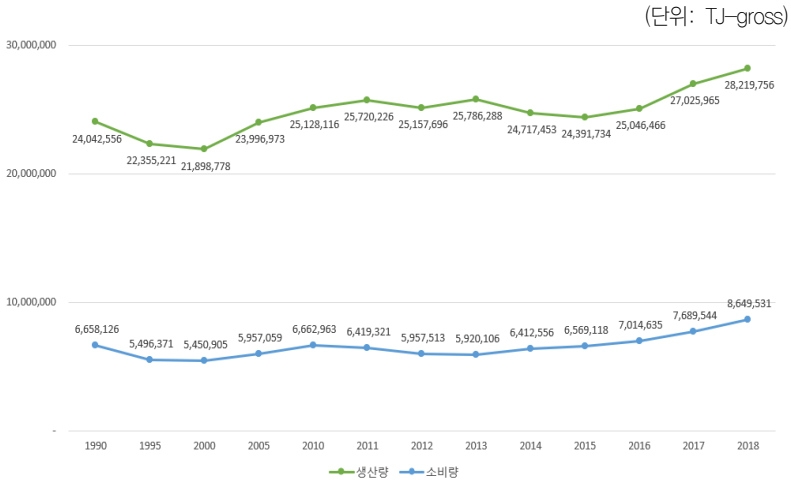
〈그림 V-6〉 러시아의 상품별 석탄 생산량과 소비량



주: ktoe = kilo tonne of oil equivalent  
출처: 위의 자료

셋째, 천연가스 관련 생산과 소비를 보면, 석유와 석탄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생산 축소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다지 큰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림 V-7〉). 천연가스의 경우 생산량이 소비량의 3배를 상회하는 기록을 보여, 러시아의 막대한 천연가스 수출 여력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능력 확대는 러시아의 경제성장 추세를 상회하고 있어서, 에너지 부문의 성장요인이 러시아 경제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V-7〉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량과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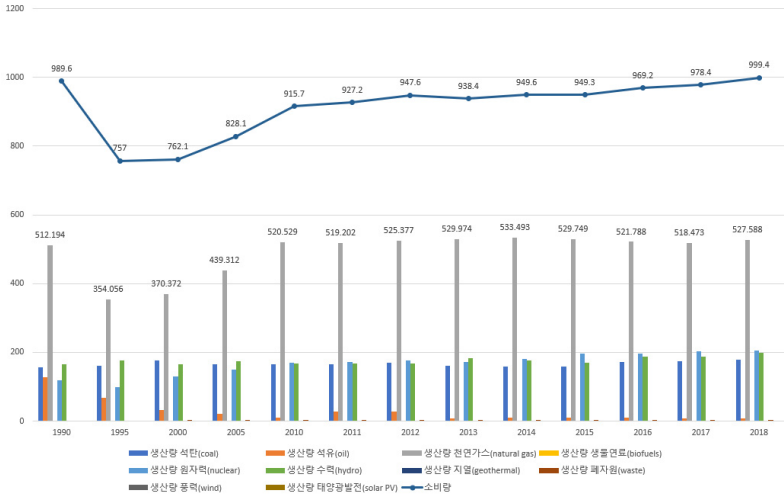


주: J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미터 이동하였을 때 한 일이나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며, TJ는  $10^{12}$ J을 나타내고 TJ-gross TJ 총 순열량을 의미함.  
출처: 위의 자료

넷째,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전기 측면에서 보면, 막대한 천연가스 보유량을 반영하듯이 천연가스에 의한 전기 생산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원자력, 그 뒤를 이어 수력 및 석탄과 석유가 전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그림 V-8〉).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에너지 상황을 보여준다. 따라서 러시아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8〉 러시아의 전기 생산량과 소비량

(단위: TWh)



출처: 위의 자료

다섯째,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과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러시아는 원유 및 천연가스를 대대적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2〉). 즉, 러시아는 2000년에 약 236억 4,700만 달러의 원유를 수출하였으며, 2018년에는 1,292억 100만 달러 원유 수출액을 기록함으로써, 무려 5.5배의 원유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석탄 수출을 통해서 182억 9,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특히 천연가스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바, 천연가스 수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에는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치부하고 버려두었던 지역에서도 첨단기술을 동원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험난한 기후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대대적 개발을 통해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러시아 경제 운영에서 필수 불

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물론 러시아의 이러한 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은 소위 자원의 저주라 불리는 문제점을 일으켰지만, 러시아 경제가 냉전 이후 시기에 체제 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은 수출을 위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며, 세계적인 유가 및 가스 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 러시아 경제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V-2〉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입과 수출 현황

(단위: USD 달러)

품목 연도	석유(2709)		석탄 외 (석탄(2701), 갈탄(2702), 토탄(2703), 코크스(2704) 등)		천연가스(271111)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2000	616,043,454	23,647,000,435	126,715,288	1,218,033,184	57,303	10
2005	445,585,966	79,583,930,592	411,476,532	4,257,484,883	13	5,176
2010	-	128,055,701,637	246,678,027	9,624,831,193	6,915	2,986,673,082
2011	740	171,686,161,332	484,106,567	11,963,171,979	109,004	3,854,526,103
2012	173,121,829	180,929,707,639	1,074,722,203	13,677,074,220	4,580	4,679,062,661
2013	154,762,339	173,669,617,054	866,800,004	12,420,804,940	255	5,510,957,605
2014	307,567,814	153,887,932,499	689,558,613	12,177,225,811	253	5,243,510,938
2015	647,793,792	89,576,493,234	484,006,586	9,975,874,048	212	4,546,148,086
2016	42,890,691	73,712,304,507	311,524,165	9,344,678,188	214	2,899,797,471
2017	69,348,178	93,377,261,711	555,103,223	14,527,903,285	787	3,173,801,692
2018	64,247,499	129,201,079,701	488,371,230	18,290,141,861	49,061,315	5,285,983,165

주: ( )는 HS Code를 의미함.

출처: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중·러 에너지 협력의 추이

중국과 러시아는 인접국이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부존자원과 중국의 폭발적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냉전 시기에는 중국의 저조한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냉전 이후 초기 시기에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구조 및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자체 생산된 에너지를 주로 이용하는 정책을 펴며 따라 러시아 에너지의 활용이 덜 주목받고 있었다. 한편 러시아로서 유럽을 향한 에너지 수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에너지 수출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통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이 비약적으로 경제성장을 한 결과, 보다 선진적 경제 구조를 통해 달성한 세계 2위의 경제 규모와 막대한 현금 동원력으로 중국과 러시아 간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이 바뀌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본격화 이전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유라시아 대륙의 맹주를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본격적 협력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협상의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갔던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교역 관계를 살펴본 이후에 중·러가 완성한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 추진 경과에 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 가. 중·러 에너지 교역관계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관련 교역 통계를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 V-3〉). 중국은 2000년에 2억 6,3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원유를 수입하였는데, 20여 년 후인 2018년에는 351억 1,300만 달러의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약 100배 이상의 원유 수입액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로서 중국에 대한 원유 수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수출 점유율을 보면, 2000년에는 1.11%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3.61%, 2010년에는 5.7%, 2015년에는 16.89% 등으로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27.1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즉, 러시아 원유 수출의 거의 1/3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 중국 수출 의존도 증가는 러시아의 전 세계를 향한 원유 수출이 2012년을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대러 경제제재 이후인 2015년에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점을 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러시아는 2014년에 1,538억 달러 상당의 원유를 수출하였는데 2015년에는 불과 895억 달러 상당의 원유를 수출함으로써 1년 사이에 40% 이상의 급격한 원유 수출 감소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유 수출 감소에 의한 외화 획득 부족은 물론 러시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중국이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상기한 정도로 축소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로서 중국이 여타 국가와 달리 원유 수입을 대폭 줄이지 않았다는 것은 러·중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3〉 러시아의 석유<sup>1)</sup> 대중국 수입,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USD))

연도	수입액		수출액(전 세계 대비 비율)		
	전 세계	중국	전 세계	중국	
2000	616,0435	0,109155	23,647	263,0025	(1.11)
2005	445,586	0	79,583.93	2,871.495	(3.61)
2010	0 <sup>2)</sup>	0	128,055.7	7,303.034	(5.70)
2011	0,00074	0	171,686.2	17,092.27	(9.96)
2012	173,1218	0	180,929.7	18,790.94	(10.39)
2013	154,7623	0	173,669.6	18,564.79	(10.69)
2014	307,5678	0	153,887.9	21,974.06	(14.28)
2015	647,7938	0	89,576.49	15,129.18	(16.89)
2016	42,89069	0	73,712.3	14,825.45	(20.11)
2017	69,34818	0	93,377.26	20,555.26	(22.01)
2018	64,2475	0	129,201.1	35,113.66	(27.18)

주<sup>1)</sup>: HS Code 2709(석유)에 대한 수입, 수출액임.

주<sup>2)</sup>: 2010년의 경우 UN Comtrade, IEA 등 모두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음.

출처: 위의 자료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석탄도 수입(〈표 V-4〉)하고 있는데 2018년  
의 통계는 2000년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5년의 기록이 2014년에 비해서 대폭  
하락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 석탄 수출에서 차지  
하는 점유율을 보면, 2000년에는 0.12%, 2005년에는 1.05%에 불과  
했으나, 2010년에 9.70%, 2015년에 10.20%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에 11.53%를 기록하는 등 10%를 상회하는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표 V-4〉 러시아의 석탄<sup>1)</sup> 대중국 수입,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USD))

연도	수입액		수출액(전 세계 대비 비율)		
	전 세계	중국	전 세계	중국	
2000	127	2	1,218	1	(0.12)
2005	411	1	4,257	45	(1.05)
2010	247	0	9,625	934	(9.70)
2011	484	0	11,963	934	(7.81)
2012	1,075	0	13,677	2,082	(15.23)
2013	867	0	12,421	2,272	(18.29)
2014	690	0	12,177	2,057	(16.89)
2015	484	1	9,976	1,018	(10.20)
2016	312	0	9,345	847	(9.06)
2017	555	0	14,528	1,868	(12.86)
2018	488	0	18,290	2,109	(11.53)

주<sup>1)</sup>: HS Code 석탄(2701), 갈탄(2702), 토탄(2703), 코크스(2704)의 수출, 수입액 합계임.  
출처: 위의 자료

천연가스 관련 통계를 보면, 석유나 석탄과 달리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2010년에 6,400만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를 수입하였으나, 2014년에 1,700만 달러, 2015년에 38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미미한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3.95%의 점유율을 보인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 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합의와 가동 및 실질적 운송이 현실화하면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표 V-5〉 러시아의 천연가스<sup>1)</sup> 대중국 수입, 수출 현황

(단위: USD 달러)

연도	수입액		수출액(전 세계 대비 비율)		
	전 세계	중국	전 세계	중국	
2010	6,915	0	2,986,673,082	64,621,031	(2.16)
2011	109,004	0	3,854,526,103	66,609,239	(1.73)
2012	4,580	0	4,679,062,661	89,592,960	(1.91)
2013	255	0	5,510,957,605	8,364,636	(0.15)
2014	253	0	5,243,510,938	17,923,160	(0.34)
2015	212	0	4,546,148,086	3,852,004	(0.08)
2016	214	0	2,899,797,471	39,495,071	(1.36)
2017	787	0	3,173,801,692	35,584,602	(1.12)
2018	49,061,315	0	5,285,983,165	208,976,921	(3.95)

주<sup>1)</sup>: HS Code 27111(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수출액임  
출처: 위의 자료

중국은 냉전 이후 시기 30년 동안의 폭발적 경제성장 결과 에너지를 포함한 천연자원의 대량 수입국이 되었는데, 원유의 경우에는 한국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동 국가로부터 주로 수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입국을 보다 다변화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공급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의 저유가 상황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지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서 중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에너지 관련 대러시아 수입 점유율을 순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V-6〉). 첫째, 중국의 원유 수입국들은 1위가 러시아이고,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점유율은 15.84%와 12.4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또한 앙골라 및 이라크가

10%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석탄 수입처는 보다 다양한데, 석탄의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점유율 53.49%를 기록하면서 압도적 1위이며, 러시아는 12.80%를 기록하면서 2위인 몽골, 3위인 인도네시아의 점유율과 비슷한 점유율을 보인다. 갈탄의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92.9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이 5.56%로 2위, 러시아는 1.17%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토탄과 코크스의 경우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큰 비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셋째, 천연가스의 경우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23.14%,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15.91%, 카타르로부터 13.75%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들 상위 3개 국가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은 0.81%에 불과한 기록을 보인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 총액은 러시아 국가별 에너지 수출액에서 1위에 해당하는 반면, 중국의 대러 에너지 수입액은 중국의 국가별 에너지 수입 순위에서 23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기록은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분야 교역에서 중국이 보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V-6〉 중국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입 전 세계 대비 대러시아 점유율

(단위: %)

품목	석유					석탄										천연가스																			
	2709 (Crude Oil, 원유)					2701 (Coal, 석탄)					2702 (Lignite, 갈탄)					2703 (Peat, 토탄)					2704 (Coke, 코크스)					2711									
HS CODE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순위 (2018년 기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앙골라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몽골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리온스	미얀마	러비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몽골	인도네시아	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카타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2001	2.81	13.97	0.63	6.19	0.00	31.87	0.00	35.87	6.69	0.00	0.00	0.00	0.00	0.29	0.00	0.29	0.00	0.00	0.00	0.05	1.26	0.00	0.00	0.00	0.00	5.35	0.00	2.22	7.12	0.01					
2005	10.39	17.27	0.81	13.78	0.96	40.19	2.16	7.38	4.10	9.96	0.05	0.00	96.97	0.00	0.84	20.07	52.41	8.85	0.43	0.31	6.67	0.27	0.00	0.00	0.00	15.51	0.00	1.51	3.22	0.00					
2010	6.56	18.88	4.64	16.81	3.13	32.19	5.99	25.67	8.89	5.27	85.15	12.09	0.02	0.08	0.00	52.88	22.54	15.32	0.05	2.99	1.57	0.01	97.93	0.00	0.00	14.98	15.59	20.47	6.96	3.08					
2011	8.30	19.83	5.31	12.61	2.48	24.66	7.64	30.28	7.56	4.44	91.11	6.55	0.27	0.11	0.00	48.89	17.35	12.86	0.05	2.08	0.82	2.14	96.24	0.00	0.00	5.67	34.62	21.16	5.47	1.46					
2012	9.28	20.00	5.73	15.12	2.11	30.55	6.70	24.44	9.48	5.82	93.98	5.26	0.03	0.13	0.00	60.43	19.18	12.22	0.00	1.39	1.19	0.00	93.92	0.11	0.01	4.32	42.14	26.69	4.23	1.73					
2013	8.99	19.29	8.15	14.48	1.73	39.02	4.98	20.24	10.75	6.72	95.81	3.65	0.12	0.07	0.00	59.30	21.55	12.21	0.00	0.37	2.41	86.38	0.00	0.00	0.00	3.53	35.56	28.94	4.98	0.00					
2014	10.93	16.18	9.09	13.53	2.14	47.59	5.00	17.12	11.59	5.20	91.70	7.63	0.24	0.00	0.00	67.00	15.91	12.01	0.00	1.37	33.15	0.00	0.00	0.19	0.00	2.63	31.30	22.38	4.67	0.29					
2015	12.84	15.47	9.43	11.85	3.95	52.35	5.29	15.34	10.31	5.48	93.04	6.68	0.05	0.05	0.00	64.66	21.65	8.17	0.03	2.22	31.33	0.00	0.25	0.25	0.00	6.97	30.75	13.09	6.02	0.45					
2016	14.45	13.40	9.16	11.86	5.16	48.40	8.66	17.80	9.79	4.32	87.44	12.09	0.29	0.03	0.00	68.51	17.52	8.71	0.00	2.29	47.28	0.00	0.00	0.00	0.00	16.96	23.65	12.45	3.92	0.37					
2017	14.64	12.64	8.50	12.21	5.44	53.01	11.88	13.37	12.04	4.68	88.84	7.70	3.00	0.05	0.00	63.77	21.76	6.61	1.16	2.12	8.68	0.00	0.00	0.00	0.00	19.32	19.77	14.47	4.61	0.54					
2018	15.84	12.40	9.37	10.39	6.77	53.49	14.40	14.18	12.80	2.69	92.93	5.56	1.17	0.09	0.00	60.78	20.26	7.60	1.50	3.92	12.74	5.69	28.22	24.87	0.00	23.14	15.91	13.75	5.38	0.81					

출처: 위의 자료

## 나. 중·러 에너지 협력관계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국가에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진행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중국은 자체적으로도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지만, 경제의 양적 확대를 전적으로 충족시킬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원을 보유 및 생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냉전 종식 이후 달성한 급격한 경제성장의 결과 요구되는 에너지 수요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소비가 앞으로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 세계의 에너지 수출국들은 중국의 에너지 소비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표적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도 중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증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 협력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이 2019년 말에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로서는 유럽과의 협력을 위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을 변화시켜 보다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신동방정책이 가시화되는 성과의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협력 중 천연가스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사업은 냉전 이후 시기에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었으나, 실질적 진전은 2013~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2013년 9월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는 러시아 노바텍(Novotek)의 야말-LNG사업<sup>155)</sup>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5월에는 사업의 전체 LNG 생산량 연간 1,650만 톤의 18%에 이르는 300만 톤을 향후 20년간 매입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2014년 5월에 CNPC는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과 역사적인 가스공급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으며, 가스프롬은 중국에 2018년부터 30년간 매년 380억m<sup>3</sup>의 천연가스를 동부노선(Sila Sibiri, Power of Siberia)을 통해 공급하기로 하는 4,000억 달러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 측은 러시아에 250억 달러를 선지급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2014년 10월에는 제19차 중·러 간 정기 총리회담에서 에너지, 금융, 인프라, IT 등 부문의 총 38개 협정을 체결<sup>156)</sup>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동안 서부노선(알타이 가스관, Power of Siberia-2)을 통한 대중국 가스공급 MOU를 체결하였고, 2015년에는 「서부노선을 통한 대중국 가스공급 기본 조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5년에 중국 실크로드 기금을 통해 야말-LNG 사업의 9.9% 지분을 매입하고, 7억 3,000만 유로의 차관을 제공하였고<sup>157)</sup>, 2016년에는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CDB)이 야말-LNG 사업에 93억 유로, 중국수출입은행(The Export Import Bank of China)이 15년 상환 기간을 두고 98억 위안(약 13억 유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다.<sup>158)</sup>

155) 야말-LNG 사업은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반도의 '남(南) 탐베이스코예(Tambeyskoye)'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액화해 연간 1천 650만t의 LNG를 생산, 수출하는 사업임; "러, 야말 LNG 공장 첫 가동... 세계 최대 LNG수출국 노린 사업," 『연합뉴스』, 2017.12.9., <<http://www.yna.co.kr/view/AKR20171209001200080>> (검색일: 2020.6.4.).

156) 민지영, "중·러 밀원관계 심화와 시사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럼 EMERICs』, (주간이슈분석, 2014.10.24.), p. 1.

157) 이주리, "러시아-중국 간 가스부문 협력 동향과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6호 (2016) p. 21.

2017년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시기, CNPC와 가스프롬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공급을 개시하는 데 대한 시점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Владивосток)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서 양국의 가스관 건설 및 천연가스 공급 관련 협력에 대해 논의<sup>159)</sup>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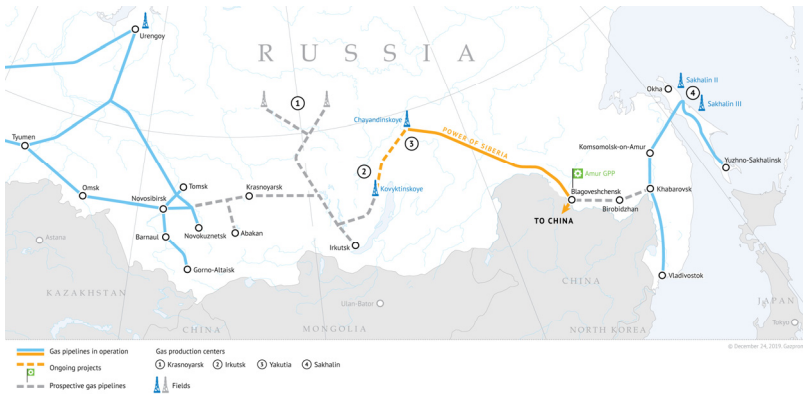
2019년에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헤이어(黑河)-지린성 창링(長嶺)을 연결하며, 약 1,000km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서 30년간 연간 380억m<sup>3</sup>에 이르는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중·러 가스관 동부노선의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12월에는 동부노선이 개통되었고, 이러한 중·러 가스관 사업의 1단계 완성과 천연가스의 대중국 공급 개시는 과거에 존재하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일거에 불식시키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 가스관을 통해서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에 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이르는 공급 계획을 차례대로 실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은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개통과 천연가스의 실질적 공급 개시로 인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막대한 규모와 중국의 잠재적 수요 증대 가능성으로 인해서 가일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9년 말의 개통 이후 노정된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위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158) 위의 글, p. 21.

159) 홍진희, “중·러 천연가스 분야 협력 현황 및 전망,” 『중국전문가포럼 CSF』 (이슈&트렌드, 2018.10.5.), p. 1.

〈그림 V-9〉 러시아 동부지역의 가스자원 개발 및 가스전송체계 구축도



출처: "Power of Siberia," Gazprom, <<http://www.gazprom.com/projects/power-of-siberia/>>  
(검색일: 2020.10.3.)

### 3. 중·러 에너지 협력의 발전방향

중국과 러시아는 제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권의 강국으로서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전략적 협력과 국가적 갈등을 반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러 에너지 협력은 냉전 시대에는 사회주의 국가 간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냉전 이후 시대에 이르러 시장경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추진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잠재력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30여 년간 대대적 내지는 본격적 상호 결합한 형태의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러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은 2019년 말에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 협력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즉, 양국은 본격적 상호결합형 에너지 협력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과거 및 현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양국 간 에너지 협력과 관련한 정책 환경을 살펴보고, 협력의 발전 방향을 예상하기 위한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중·러 에너지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환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하여 국제질서 변화와 관련,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강국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강대국이기 때문에 양국 간 관계의 발전은 세계질서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는 동시에 세계질서의 변화가 양국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세계질서 유지 및 운영 전략의 변화는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환경 변수이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의 전개 양상은 중·러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즉,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적 내지는 비우호적으로 대응하면 할수록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불리해지는 추세가 지속하면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중·러 에너지 협력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정책 환경 변화가 실질적으로 중·러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준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협력을 시작하게 된 2014년의 국제환경이 중요하다. 냉전 이후 시대 진행된 유럽 지역에서의 러시아와 유럽국가 및 미국과의 누적된 군사·안보 분야에서 문제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실질적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2014년에 시작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이에 대한 서방세계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러시아가 중국과 오랫동안 진행하

였지만, 성사를 미루고 있었던 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대중국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에 합의하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즉,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대규모 에너지 협력 사업에 합의하도록 하였다.

둘째, 미국의 에너지 산업계에서 진행된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성 있는 셰일 오일(Shale Oil) 및 가스 대량생산은 미국을 세계적인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들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기존의 중동과 러시아 중심 에너지 수요처 확보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에너지 수요 확보에 나서게 되었으며, 에너지 시장 자체가 더 경쟁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세계적 주요 수요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 각국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미국과의 에너지 교역 증대를 모색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세계적 에너지 공급자 위상을 약화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2000년부터 지속한 중국과의 가스관 건설 및 천연가스 공급 사업 협상에서 여러 가지 양보를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으로서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산된 가스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였다는 것은 양국이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의 성격상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되기 이전에는 사업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것이 에너지 업계의 상식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향후 30년간 러시아가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며, 중국도 이에 부응한 것이다.<sup>160)</sup> 또한, 중국은 이 파이프라인을 동북지방을 거쳐

---

160) “中国石油与俄气公司签署项目合作谅解备忘录,” 中国石油天然气集团有限公司,

서 궁극적으로는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 연결사업의 성공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가장 중요한 지속요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해상을 통한 에너지 수송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 같은 육상으로 접해 있는 에너지 수출국과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한다.

넷째, 중국은 냉전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펼치고 있으므로 기존의 석탄 의존 난방 및 취사 형태를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공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공해물질의 대량배출로 인해 중국은 대도시 지역 공기의 질 저하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선진국형 경제생활 추구는 필연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대를 요구하게 되어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협력은 앞으로도 가일층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 중국은 수송부문과 석유화학부문에서 석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을 증대시키려 하였으며, 러시아 석유 자원 개발 및 양국 간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러시아에 대규모 자금을 제공한 바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대도시 지역의 대기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석탄에서 가스로의 연료 전환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중국의 가스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러시아 가스가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

2016.6.27., <<http://www.cnpc.com.cn/cnpc/jtxw/201606/47378291577148ed995f2701ab236edc.shtml>> (검색일: 2020.10.30.).

인한 국가 간 교역 축소 현상은 에너지 분야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성상 이동을 제한하는 격리를 기본으로 하는 방역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므로 이미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을 보여주었으며,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러 에너지 협력은 2019년 말 파이프라인 개통과 가스 공급 개시라는 역사적 사업 성공으로 상호의존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확대 성장의 속도가 더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러 에너지 협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변수를 식별해 보면 첫째가 코로나 팬데믹의 해결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즉, COVID-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도 더디게 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확대 추세가 변화된다면,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의 속도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유가 글로벌 시장이 지속되면 중국으로서는 더욱 저렴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할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거나 조건의 변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즉, 중동 지역의 원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미국의 셰일 원유 및 가스 가격이 동반 하락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대 현상을 보여주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도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전격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러 에너지 협력의 미래 예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중국은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같은 강국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중국의 대러 견제 심리는 향후 에너지 협력의 수준과 폭을 조절하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넷째, 러시아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제재에 직면해 있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이중성을 노정하면서 서쪽의 유럽과의 협력을 잠시 조정하면서 동쪽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럽국가 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귀하면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를 보류 내지는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위와 같은 중·러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확대요인 및 축소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협력이 지속되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 각각의 강력한 주변국 견제라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중기적으로는 협력의 강화 추세가 둔화하면서 상업적 계산에 의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보다 앞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보면 중·러 에너지 협력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패권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면 중·러 에너지 협력이 좀 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크며, 중국의 우세가 크게 보일 때 소원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4.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현대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에너지 부존자원이 매우 취약한 남한의 경제발전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여러 번의 전 세계적 석유파동이 발생하였지만, 한국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국형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모범적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경제발전 전략의 실패에 따른 경제난을 지속하여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만성적 식량, 에너지, 외화의 부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 및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청사진을 마련할 때 에너지 관련 대책은 항상 중요하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전반적 경제발전의 추세와 맥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부문의 문제점도 구조적이므로 대외개방 및 대내개혁 없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에너지원으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탄광의 심부화로 인해서 석탄 생산의 효율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북한의 경제 사정상 대규모 보수를 동시에 실현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 또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북한의 에너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서 석탄의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게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자급 자족적 에너지 정책을 지양하고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탄이나 석

유 및 천연가스 등의 수입과 소비를 확대하는 다원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북한이 에너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세계와의 경제 교류를 통한 시장화를 촉진하는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도 필요한 에너지를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긴급조달형 에너지 경제교류는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 더 대외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남한과도 상호보완적 에너지 분야 교류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안점인 중·러 에너지 협력의 전개 양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질적 향상이 동반된 형태의 더 복합적 협력관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중기적 내지는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협력의 추세가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변화추세는 한반도에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동반되는 동북아 지역 에너지 협력 구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힘 프로젝트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개발이 시베리아-중국 연계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 추세가 강화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왔던 사할린(Сахалин) 유전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중국이 러시

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제공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의 청정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청정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공기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로서도 중·러 에너지 협력의 강화는 동북아 지역 에너지 수급에 더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가 과거에 개발하기 어려웠던 시베리아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면 할수록 에너지 공급의 총량은 많아지고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으로서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파이프라인 이용 천연가스 활용 확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액화천연가스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영향은 미국의 셰일가스 및 중동·아프리카 등 액화천연가스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겠지만,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인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 에너지를 수입하는가 하는 것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에너지 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의 방향은 지정학적 요인보다는 상업적 관점의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중국과의 파이프라인 연결 합의는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전 오랫동안 협상해 오던 자세에서 후퇴하여 중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러시아는 현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중기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의 균형점을 찾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때 러시아로서는 중국에 대해서 과거에 대폭 양보했던 자세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에너지 공급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으로서도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일차적 에너지 시장 재편이 마무리되는 중기적 시점에서는 더 효율적이며 고도화된 에너지 수급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원리 기반 첨단기술 활용 에너지 활용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본격화할 경우, 러시아는 시베리아 개발을 보다 경제적으로 할 것이며, 중국은 전 국민이 저렴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간 중기적 에너지 협력의 총량은 단기적 시기보다는 덜하지만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대적 규모의 신규 사업은 시베리아의 힘 사업과 달리 세계적 시장 상황을 반영한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의 노하우와 첨단적 경영 및 금융기법을 통한 국제적 협업 경험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볼 때, 미·중 패권경쟁이 실제적 결과를 보이게 되는 시점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도 재조정되도록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보일 때 역설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때 한국으로서는 틈새시장 공략 전략에 기반하여 러시아와의 협력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이 우위를 보일 때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 견제에 대한 공감

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협력도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베리아 개발이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력 상승은 전반적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러 에너지 협력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이 남한과 북한 간 에너지 협력의 추진방향에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사안을 염두에 두고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사업을 통해서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비록 KEDO 사업이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 기술자들이 함께 일을 해 본 경험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남한은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여 공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북 에너지 협력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KEDO 사업의 경험은 국제적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경험은 다양한 공장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경험이었다. 따라서 남북 에너지 분야 남북협력에 국제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의 과거 대북한 지원 경험이 공유된다면 더 실용적인 북한 현실에 적합한 협력 모델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남북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와 연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러·중 파이프라인 건설 및 가동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석유나 가스를 운송하는 것은 육지에서는 철도나 도로, 해상에서는 유조선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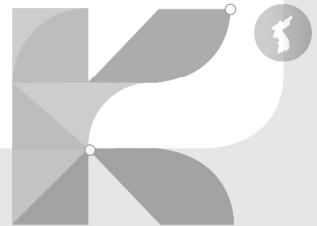
용하기도 하지만, 육상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남북 에너지 협력의 고도화 단계에서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시베리아의 무궁무진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과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로 공동 진출하는 것도 장기적 차원에서 고려할 사업이라 하겠다. 한편 중·러 파이프라인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향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러시아와의 에너지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한반도의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도 에너지 안보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에너지 안보 확보의 문제는 과거의 단순한 에너지 공급 확보의 차원을 넘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한반도는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기후변화(Climate Change),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의 3대 요소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지향적 한반도 에너지 안보의 기초를 현재와 같이 화석 에너지를 근간으로 현상 유지 형태로 할 것인지, 풍력, 태양열, 수력, 원자력 등 환경친화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의 마련이 중요하다.



# VI. 중·러 지역 전략

이재영 통일연구원





## 1. 중국의 지역 전략으로서 일대일로와 상하이협력기구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발전 전략은 어떤 강대국과도 동맹을 맺지 않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과 함께 자원 낭비를 피하고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제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래 중국의 고속성장으로 이러한 상황이 바뀌었고, 국제적으로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었다. 우선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강대국화로 중국의 참여 없이 세계적인 정치·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리고 급속도의 성장과 수출에 기반을 둔 중국의 경제 발전모델로 인해 원자재 부족 문제, 새로운 수출 시장의 필요성이 생겼고 이로써 중국의 역할이 더 적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 문제인 환경, 과잉 노동력 등은 다른 국가들 특히 인접국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정책의 하나로 등장한 중국의 일대일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서방의 발전 개념,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의 발전 개념과 모델을 제공한 것이다.<sup>161)</sup>

즉, 중국의 일대일로와 SCO와 같은 지역 다자 협력체는 중국 외교의 자신감 발현이자 국내 문제를 외부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

161)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pp. 16~19.

## 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강대국화와 연계시킬 수 있고, 이는 패권 국가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구로써 분석할 수 있다.<sup>162)</sup> 일대일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이 정책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태 재균형 정책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것이다.<sup>163)</sup>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일대일로는 유라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EAEU를 추진하고, 미국은 신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의 대중 혹은 대러 의존도를 줄이고 유라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지역 전략 속에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에서 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sup>164)</sup>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일대일로를 살펴본 연구는 일대일로가 달리 패권에 대한 도전, 중국 서부 지역 경제 발전 추진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 중국의 새로운 경제 운용 방식 제시 등의 요인을 제시하기도 했다.<sup>165)</sup> 그리고 외부와의 연결과 영향력 확대의 관점에서 2013년

---

162)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일대일로, AIB 그리고 패권 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8집 1호, (2018), pp. 99~146; 김애경,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분석-계기배경, 추진현황, 함의 고찰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 29호, (2016), pp. 112~144; 이정태,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정치적 의도와 실제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25권 1호, (2017), pp. 207~236.

163) 김홍규,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한계점과 전망,” 『중소연구』, 제23권 제2호 (2016), pp. 7~48.

164) 김재관,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과 중·러의 대응,” 『평화연구』, 제40권 제3호 (2015), pp. 163~206; 중국의 일대일로를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본 연구는 다음을 참고; 원동욱, “중국의 지정학과 주변외교: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7집 2호 (2016), pp. 293~328; 서정경,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5집 2호 (2015), pp. 225~257.

165) 박홍서, “중미관계와 ‘일대일로’의 정치경제: 달리패권에 대한 취약성 극복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8집 2호 (2016), pp. 73~110; 김옥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는 잠재적인 시장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통로로써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더욱 중시하는 것을 의미했다.<sup>166)</sup> 일대일로로의 이러한 연결성을 강조하여 네트워크 관점에서 일대일로를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sup>167)</sup>

〈표 VI-1〉 중국 정부 발표 일대일로 성과

성과 영역	성과 내용
정책조정과 소통	전문 영역 연계 협력: 디지털 실크로드(16개 국가와 협력 강화 문건 서명), 표준 연계(49개 국가 지역과 85개 표준화 협력 협의 서명), 세무 협력(세수협정 협력네트워크 111개 국가 지역으로 확대), 지식재산권(49개 연선 국가와 실무협정 추진 연합 성명 발표), 법치 협력(국제상사 법원 건설 추진), 에너지 협력(18개 국가와 에너지 협력 파트너 관계 형성), 농업 및 해양(협력 구상 발표)
인프라 연결	철도: 러시아 유라시아철도 유라시아 대륙 16개국 108개 도시 연결, 도로: 몽골, 러시아 등 15개 연선 국가와 18개 양자 및 다자 국제 운수 편리화 협정 체결, 항구: 47개 연선 국가와 38개 해운 협정 체결, 항공: 126개 국가 지역과 항공 운수 협정 체결, 연선 국가와 새롭게 개설한 국제 항로 1239개, 에너지: 중·러 원유 파이프와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안정적 운영, 중·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일부 개통 예정, 통신설비: 중·러 광케이블 연결 진전, 국제통신연맹과 협력 의정서 서명
교역과 투자 협력	12개 자유무역실험구 설립, 평균 관세 수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시 15.3%에서 7.5%로 하락, 2013~2018년 중국과 연선 국가 간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 6조 달러 돌파, 중국 화물 무역 총액 비중에서 27.4% 도달, 중국과 17개 국가가 양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제 건설

로)구상과 정치 경제적 함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2015), pp. 289~307; 남윤복,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치경제운용의 재구성, 『중국지식네트워크』, 9권 (2017), pp. 185~222.

166)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p. 58.

167) 김인, “실크로드의 정치경제학: 중화경제권, 일대일로 전략구상과 국제관계, 『중국학연구』, 제86집 (2018), pp. 309~328.

성과 영역	성과 내용
금융 협력	실크로드기금과 유럽투자기금이 공동 투자한 중유럽 공동 투자 기금 실질적 운영 시작, 27개국 재정부 일대일로 용자지도 원칙 비준, 중앙은행 다자개발기구 간 연합 용자 누계 투자 100개 이상 70여 개국 지역 포함, 20여 개 연선 국가와 양자 본원 화폐 상호 교환 안배, 7개 연선 국가와 런민비 청산 안배 건설, 런민비 국제 지불시스템 40개 국가 지역 건설
국민 간 이해 (문화·사회 협력)	연선 국가에 17개 중국 문화 센터 설립, 35개 연선 국가 중의 약 해외 센터 건설, 43개 중의약 국제협력 기지 건설, 연선 개도국 20억 위안의 긴급 양식 원조 제공
산업 협력	2013~2018년 중국 기업의 연선 국가에 대한 직접 투자 4천억 달러 돌파, 이집트와 브라질 등 40여 개 국가와 산업 설비 협력 문건 체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 국가와 제3자 시장 협력 문건 서명

출처: 〈共建“一带一路”倡议：进展、贡献与展望〉, 中国—带—路—网, 2019.4.23., 〈<https://www.insilkroad.com/news/p/361571.html>〉 (검색일: 2020.11.18.)에서 일부 내용 발췌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책 조정과 소통, 인프라 연결, 교역과 투자 협력, 금융 협력, 문화·사회 협력, 산업 협력 분야의 성과들을 선전하고 있다. 이는 서방 매체와 서구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와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일대일로의 수많은 성과를 제대로 알리고 선전함으로써 서방 세계의 일대일로와 관련된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이다. 실제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완성도와 지속가능성은 재평가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에 얼마나 공을 들여왔는지 엿볼 수 있다.

한편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추락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올해 2월, 이집트는 중국 일대일로 자금으로 시작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화력 발전

소 건설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3월에 방글라데시 역시 화력 발전 계획을 취소하였다. 파키스탄은 4월에 3백억 달러 규모의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상환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중국에 공식 요청하였다. 지난 4월, 탄자니아의 존 마구풀리(John P. Magufuli)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중국과 계약한 100억 달러 규모의 항구 개발 프로젝트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의회는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대출 조건에 불리한 요소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전면 검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을 포함한 채권국들이 1,450억 달러 대출 중 올해 상환금 8억 달러 규모의 채무에 대한 긴급 면제를 요청했다. 베트남에서도 신설된 지하철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가 COVID-19로 인해 지연되었는데, 이는 원래 계획보다 4년이나 지체된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일대일로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것에 대해 상환 유예를 허용하면, 광산, 항구 등의 대출 담보에 대한 권리를 중국이 행사하는 계약조건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서방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다른 국가들을 채무의 덫에 빠뜨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중국이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COVID-19 위기를 맞아 중국은 일대일로에 추가로 의료 실�크로드를 주창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는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수여국의 경제 성장률을 3.4%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COVID-19 위기 이후 일대일로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인 인프라 건설의 성장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sup>168)</sup>

한편, 일대일로를 환영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

---

168) "The Pandemic is Hurting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Economist*, 2020.6.4., <<https://www.economist.com/china/2020/06/04/the-pandemic-is-hurting-chinas-belt-and-road-initiative>> (검색일: 2020.6.4.).

는 최근 중국과 국경 분쟁 지역인 갈완 계곡(Galwan Valley)에서 대치하고 있고 양국 군인들이 싸워 인도군과 중국군 수십 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1975년 이후 45년 만이다. 양국 접경 지역은 중국이 일대일로의 서진(西進)에서 중요한 길목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이 신장(新疆)과 티베트를 잇는 국도의 인근 도로를 정비할 때마다 인도가 반발했고, 인도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접경국 파키스탄의 균형을 확보하여 인도양에 진출하는 전략과 네팔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우려했다.<sup>169)</sup> 중국은 신장에서 파키스탄 과다르(Gwadar)항까지 3,000km 지역에 도로·철도·송유관을 놓고 방글라데시·스리랑카에 항구를 건설함으로써 인도를 포위하는 전략을 펼쳤다.<sup>170)</sup>

반면에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지만 대체로 일대일로를 통한 협력을 원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4월 3일 러시아의 상원 의원인 알렉세이 푸쉬코프(Alexey Pushkov)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정책이 국제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중·러는 장기적인 전략 협력관계를 선택했고, 이러한 선택은 완전히 합리적이다. 중·러 사이에 갈등은 없고, 일대일로와 EAEU는 연계될 수 있다.”<sup>171)</sup>

169) “해강국 중·인도, 싸울 땐 돌·주먹··· 군 600명 난투극,” 『조선일보』, 202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8/2020061800182.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8/2020061800182.html)> (검색일: 2020.6.18.).

170) “중국·인도 총기 없이 국경 육탄전, 인도 군인만 20명 사망,” 『중앙일보』, 2020.6.18., <<https://news.joins.com/article/23804200>> (검색일: 2020.6.18.).

171)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俄罗斯国际事务委员会、俄罗斯科学院远东研究, 《中俄对话: 2020模式》(上海: 复旦大学, 2020), p. 89.

푸쉬코프 외에도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EAEU 전략을 연계하는 데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

## 나. 중국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중국의 일대일로와 함께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협력체는 SCO이다. 이 기구는 일대일로보다 안보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SCO의 창설 목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국가들과의 국경 공동관리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분리주의, 테러주의, 극단주의 방지 및 차단을 위한 지역 안정 협력 도모이다. 하지만 SCO는 이러한 안보 협력과 함께 최근 들어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SCO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및 경쟁 관계를 살펴보고, 이 기구가 일대일로 및 러시아의 EAEU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우선 SCO는 중앙아시아에서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EAEU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패권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다극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SCO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sup>172)</sup>

하지만 SCO를 분석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경쟁과 갈등 영역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편으로 서방 세계의 침투와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협력 동기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양국의 영향력 및 세력 균형이 형성되지 못하고, 다른 한쪽 세력이 너무 커지는 현상을 우려한다.

---

172) 문수연,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하여 본 러시아와 중국관계: 러시아의 우려와 대응,” 『사회과학논총』, 13호 (2011), p. 14.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SCO를 통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세력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동시에 이 지역 국가들을 관리해야만 하는 이중적인 도전에 직면한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러시아는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를 통한 안보 협력과 역시 자신이 주도하는 EAEU를 통한 경제협력으로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중국도 견제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중국이 SCO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 지역 국가들과 에너지 교류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SCO에서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친러시아적이면서 중국과 갈등이 있는 인도 같은 국가를 SCO에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다.<sup>173)</sup>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여 2005년, 2007년, 2009~2010년, 2012~2014년, 2016년 평화 사명 훈련을 시행했고, 주요 작전은 해상 합동작전, 적국 상륙 봉쇄 및 해군 접근 봉쇄, 대항모전이였다.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보면 자유무역지대 설립, SCO 은행 간 협의회, SCO 비즈니스 위원회를 통해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했고, 중국이 2014년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기금을 설립하는 등 중국의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174)</sup>

SCO의 회원국은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입하여 총 8개국이 되었고, 근본 취지는 회원국 사이 상호 신뢰와 우호 증진, 정치·경제무역·과학기술·문화·교육·에너지·교통·여행·환경보호 등 효과적인 협력, 지역 평화와 안전 및 안정 수호 보장, 민주·공정·합리적

173) 위의 글, pp. 18~25.

174) 박영택,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과 동북아 및 對북한 안보 영향요인,”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집 2호 (2020), pp. 105~107.

국제 정치 경제 신질서 구축 추동이였다. SCO 조직은 매년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상회의, 각국 총리들로 구성된 각료 회의는 다자협력과 우선 영역의 전략 토론을 진행하고 경제 및 기타 영역의 원칙적인 문제 결정을 내린다.<sup>175)</sup> SCO는 전 세계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세계 경제에서 30% 비중을 달하며, 4개 회원국이 핵보유국이였다.<sup>176)</sup>

이러한 SCO의 특징은 우선 국제 규칙 및 규범, 공식 및 비공식 조직, 국제 레짐, 국가 행위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기구는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러 및 미국 사이의 경쟁과 대미 견제 등의 이유로 EU와 같은 지역 통합 및 협력에 도달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신실크로드,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대립 및 경쟁구도는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SCO의 역할에 큰 제약 요소가 되었다.<sup>177)</sup>

결과적으로 SCO는 애초에 국경 관리와 반테러리즘의 목표 아래 설립되어 중앙아시아에서 회원국 간의 안보 및 경제협력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표명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 견제라는 공동의 이익, 중·러 및 미국 각자의 서로 다른 지역 협력체 사이 경쟁 및 갈등, 중·러 사이 주도권 싸움 등의 요인으로 오히려 지역의 불안정과 갈등을 초래하는 형국이 되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하였다.

175) “上海合作组织简介,”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http://chn.sectsc.org/about\\_sco/](http://chn.sectsc.org/about_sco/)> (검색일: 2020.10.7).

176) “시진핑, 무역전쟁 속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에 단합 촉구.” 『연합뉴스』, 2019.6.15.,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5027100083>> (검색일: 2020.10.7.).

177) 박영택,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과 동북아 및 對북한 안보 영향요인,” pp. 108~111.

한편 SCO와 일대일로로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SCO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관된 과도한 채무부담이다. 일대일로와 중국의 차관 제공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대외 채무의 40% 이상을 중국에 지고 있어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 SCO의 또 다른 갈등 사안은 중·러 사이에 반미 노선에 있어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SCO를 통한 미국 패권주의 배격을 공식적으로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는 반면, 러시아 및 다른 회원국들은 공식적인 반미성향에는 반대하고 있다.<sup>178)</sup>

마지막으로 중국 주도의 SCO가 지나치게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지난 2019년 6월 14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Бишкек)에서 개최된 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를 수호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국제질서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항해 SCO 회원국들의 단합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의 국제수입박람회와 일대일로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SCO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란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통한 이란 핵문제 해결과 다자주의를 촉구했고, 파키스탄 총리를 만나 파키스탄의 경제 회복 건설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몽골 대통령과의 삼자 회동에서 보호주의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sup>179)</sup>

이처럼 SCO는 중국이 주도하지만, 러시아 역시 중국과 협력뿐만

178) 위의 글, pp. 112~114.

179) “시진핑, 무역전쟁 속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에 단합 촉구,” 『연합뉴스』.



아니라 세력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의 개입 및 세력 확장 저지라는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이 SCO를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반미와 반서방 정책을 추구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SCO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경제 측면에서의 중·러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이 기구의 향배는 중·러의 의도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 2. 러시아의 지역 전략으로서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대유라시아 동반자 관계

러시아는 중국 주도의 SCO 내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다자 경제발전과 각종 계획, 문건, 선언 도입을 지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아주 소극적으로 행동했고, 심지어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금융 조달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다자협력 발전을 방해했다. 러시아의 비공식적인 반응에 의하면 러시아는 중국이 제안한 SCO 은행의 중국 주도권을 우려했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유무역지대 역시 다른 SCO 국가들이 달가워하지 않았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 주도의 SCO 대신 러시아가 더 큰 영향력과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다.<sup>180)</sup>

러시아는 EU를 비롯한 서구 세력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부 대개발 혹은 일대 일로를 통한 중앙아시아 진출도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

180)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pp. 85~86.

러시아가 두 세력을 모두 차단하기 힘들다면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EU보다는 그나마 내정불간섭, 민주주의나 인권 등에서 비교적 유사한 인식을 한 중국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sup>181)</sup>

따라서 러시아는 EAEU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밀어내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과거 구소련 시절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중국은 무역 통로 확보와 단일 관세 장벽을 가진 공동의 경제 공간을 건설하려는 서로 다른 의도 속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전략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sup>182)</sup>

## 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AEU는 1994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Nazarbaev)가 유라시아연합 구상을 제안한 이후 처음으로 등장했다.<sup>183)</sup> 2010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간 관세 동맹이 전신인 EAEU는 2015년 이 3개국으로 출발하여,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하여 5개국으로 되었다. EAEU는 창설 초기 주로 에너지 협력, 노동 협력, 통신 및 철도 투자 프로젝트에 집중하였다. 이 기구의 의결 기구는 각국 정상으로 구성된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정부 수반

---

181) 이상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9권 제1호 (2019), p. 224.

182) “China’s New Silk Road is Designed to Cut Russia out of Eurasian Trade,” South China Morning Post, 2016.2.16.,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1913441/chinas-new-silk-road-designed-cut-russia-out-eurasian-trade>> (검색일: 2020.6.13.).

183) James Kliner, “Kazakhstan Welcomes Putin’s Eurasian Union Concept,” The Telegraph, 2011.10.6.,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kazakhstan/8808500/Kazakhstan-welcomes-Putins-Eurasian-Union-concept.html>> (검색일: 2020.6.13.).

이 참석하는 유라시아 정부간위원회, 실무집행기구는 유라시아경제 집행위원회, 사법기구인 EAEU 재판소를 포함했다. 회원국 간 교역량은 러시아-벨라루스가 전체의 57.14%로 비중이 가장 컸고, 러시아-카자흐스탄이 34.55%로 그다음 비중이 높았다. EAEU의 역내 통합 목표는 의약 및 의료 분야(2016년), 전자조달 시스템(2017년), 전력시장(2019년), 금융시장(2025년), 가스·석유 및 석유 제품시장(2025년) 등에서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2015년 베트남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을 시작으로 FTA를 통한 대외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sup>184)</sup>

EAEU에서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 통합을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 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전력망 연결을 추진하고, 이로써 키르기스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원조를 줄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 러시아형 원전을 건설하기를 바라고, 최종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전력시장을 통합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sup>18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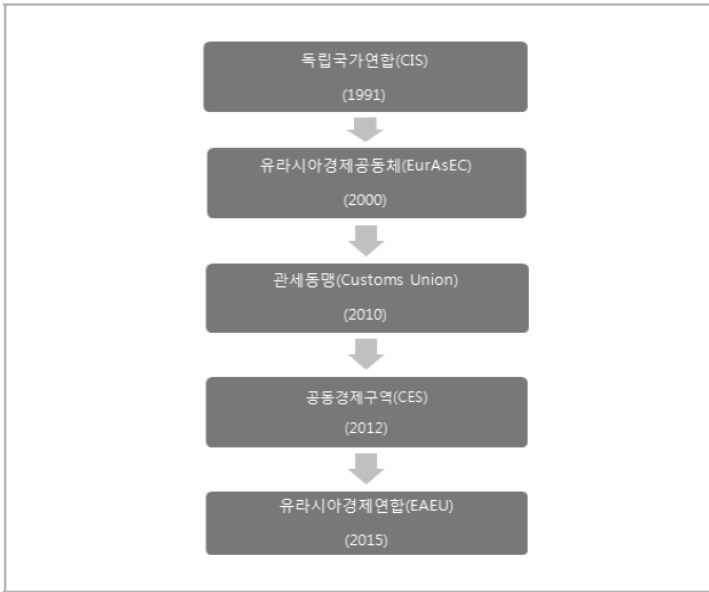
EAEU의 첫 번째 전환점은 창설 멤버인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가 정치통합 계획 대신 러시아가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도록 설득했을 때였다. 두 번째 전환점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서구 간 갈등 위기에서 찾아왔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EAEU를 핵심으로 하는 ‘확대유라시아(Greater Eurasia)’ 전략을 제안했다. 이 전략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과 과거에 그 근원을 두고 있고, 서방과의 갈등의 격화로 유럽보다는 유라시아로 관심을 돌렸으며 서구의 모델보다는 중국의 지역 통합 전략을 따른 것으로 여겨졌다.<sup>186)</sup>

---

184) 조영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발전과 우리의 협력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과제』, (2017), pp. 5~8.

185) 이상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pp. 234~235.

〈그림 VI-1〉 유라시아 지역 협력체 설립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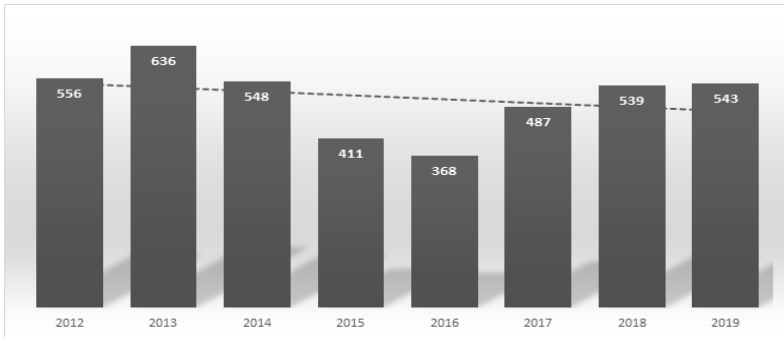
출처: 조영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발전과 우리의 협력방안,” p. 17.

EAEU의 전신인 관세 동맹은 2009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이 체결했고, 2010년은 공동경제구역의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유라시아 통합의 새로운 차원과 단계를 요구했고,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에 호응하여 선언 및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설립 협정 서명이 이루어졌다. 2015년에 EAEU가 출범했을 때는 기존 통합체를 하나로 묶고 거시경제정책 조정이 포함된 새 조항을 협정에 넣었고, 회원국의 시장 개방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약속했다.<sup>187)</sup>

186) 김영진, “유라시아 비서구 지역통합 프로젝트: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 『슬라브학보』, 제34권 제1호 (2019), pp. 34~37.

187) 김영진,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연결 가능성: 경제협력의 기회와 장애,” 『동북아경제연구』, 제31권 제2호 (2019), p. 63.

〈그림 VI-2〉 러시아와 다른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 간 역내 무역 규모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2020.7.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2〉에서 러시아와 다른 EAEU 4개 국가와의 무역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EAEU 창설 이전인 2013년 636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411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2015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루블화 가치 급감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왔고 역내 무역뿐만 아니라 역외 무역 모두 감소했다. 이후 2016년 368억 달러 최저 규모에 도달했다가 2019년까지 점차 회복 추세에 있다. 즉 2017년 487억 달러에서 2019년 54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러시아와 교역 규모가 가장 큰 벨라루스는 2013년 336억 달러에서 2015년 235억 달러로 감소했다가, 2018년 다시 32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무역 규모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2015년을 기준으로 EAEU의 창설이 교역 규모의 변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락 추세에 있던 무역 규모를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AEU는 역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삼았다. 모든 회원국은 CIS FTA 회원국으로 상품무역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비관세 장벽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EAEU의 회원국은 상품·서비스·노동·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EU 모델을 적용했다. 2015년부터 건설, 농업, 숙박업을 포함한 43개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했고 부분적인 시장 개방을 시행했다.<sup>188)</sup>

이처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탄생한 CIS에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고, 경제공동체, 관세동맹, 공동 경제구역을 거쳐 진화한 경제통합체였다. EAEU는 처음에는 EU와 같은 정치경제 통합체를 모델로 하였으나, 러시아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제재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중국의 경제협력 및 통합 전략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대유라시아 동반자 관계(Greater Eurasian Partnership: GEP)

2016년 이래 러시아는 EAEU 확대와 다른 지역 경제 통합기구들과의 연계를 지향하는 GEP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 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을 핵심 협력국으로 상정하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과 인프라에 대한 중국 투자를 유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GEP는 2010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참여하는 관세 동맹의 출범, 2012년 푸틴 정부의 동방정책, 2015년 EAEU 출범에 이은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EAEU를 확대·강화하려는 러시아의 야심 찬 계획으로 볼 수 있다.<sup>189)</sup>

대유라시아 구상의 협력 원칙은 주권 존중, 개별 국가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 환경오염 및 기후 등 이슈에서 중국 일대일로의 협력 원칙과 거의 유사하다. 반면 서구의 인권과 민주주의 중시, 자유 경

188) 김영진, “유라시아 비서구 지역통합 프로젝트: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 pp. 28~29.

189) 고재남,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 22.

쟁과 시장 경쟁의 보편 가치 등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유라시아 구상과 일대일로로의 연계는 곧 EU와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 세계를 견제하는데 협력한다는 의미도 있다.<sup>190)</sup>

러시아의 EAEU와 GEP는 중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추진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이다. 즉 러시아는 EAEU와 인도, 이란, ASEAN, 남북한 등을 연계시켜 중국의 지나친 세력확장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협 요인보다 기회 요인에 더 중점을 두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와 GEP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및 EU와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sup>191)</sup> 따라서 EAEU가 중국이 아닌 베트남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것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sup>192)</sup>

한편 유라시아경제집행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무역장관인 안드레이 슬레프네프(Andrey Slepnev)가 지난 2020년 6월 5일 개최된 국제 포럼에서 발표한 연설에 의하면 2020년 1분기 제3국과의 외국 무역과 역내 무역은 감소했다. COVID-19의 확산으로 무역은 감소했지만, 각국의 식량 안보 정책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식량 재고 증가로 농업과 식량 무역이 증가했고, 이 분야에서 EAEU에게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으로 가는 농업용 열차와 냉동 보관 화물 운송 관련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현재 EAEU는 이집트, 이스라엘과 지역 및 양자

---

190) 이상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pp. 222~223.

191) 고재남,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pp. 23~24.

192) 이상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p. 232.

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고, 인도와의 협상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EAEU는 ASEAN 국가들과도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는 GEP 구축 관련 협정 집행에 관한 대화 기제를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EU와는 기술 규제, 인프라 연결, 관세, 환경 이슈뿐만 아니라 규제 금융 계획 조치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019년 연말 기준 EAEU와 EU 간 무역 거래액은 3,273억 달러, 총 거래액의 44.6%, EAEU와 중국과의 무역 거래액은 1,325억 달러, 18.1%를 차지했다.<sup>193)</sup>

이처럼 GEP 출범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대표적인 지역 통합 전략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ASEAN과 EU 등 다른 지역에게까지 협력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두 전략의 연계와 상호보완성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일대일로는 EAEU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프라 건설 및 투자를 제공하고, EAEU는 일대일로 전략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를 제공했다.

---

193) “EEC Minister in charge of Trade Andrey Slepnev: “We Should Solve the Current Crisis Jointly with Our Main Trading Partners – China and Europ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2020.6.5., <<http://eec.eaeunion.org/en/nae/news/Pages/05-06-2020-1.aspx>> (검색일: 2020.10.7.).



### 3. 중·러 지역 전략의 비교와 협력 추이

#### 가. 중·러 지역 전략의 비교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EAEU는 각각 지역 협력 플랫폼과 지역 통합기구로서 이 두 전략은 그 종류, 구상 및 목표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EAEU는 EU를 모델로 하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통합기구지만, 일대일로는 일반적인 거버넌스 기관과 회원국의 범위도 분명치 않고 일대일로의 범위와 목표 또한 모호하여 중국 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두 전략은 근본적으로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공존과 상호보완이 가능하다.<sup>194)</sup>

우선 두 전략의 설립 의도는 일대일로의 경우 국내 과잉 생산 해소와 대외적으로 중국의 강대국 지위 확립을 들 수 있고, EAEU는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회복하면서 미국 및 서방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일대일로의 목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경제통합 심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이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EAEU는 역내 통합과 상품 및 서비스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표 VI-2〉 중국과 러시아의 지역 전략 비교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EAEU
가입국 수	2019년 7월 말 기준 136개국, 30개 국제기구, 195개의 정부 간 협력 협정 체결	5개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설립 의도	국내 경제 문제인 과잉 생산 해결을 위해 해외 인프라 투자 건설과 인프라 연결을 통한 강대국 지위 확립.	유라시아 지역에서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 미국, EU, NATO 등 서구 세력 견제

194) 김영진, “유라시아 비서구 지역통합 프로젝트: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 pp. 23~24.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EAEU
	미국 주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대항	
목표	국제체제의 다극화, 경제의 전 지구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경제 요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효율적인 자원 배분, 경제 통합 심화 추구, 이를 통한 이익공동체, 책임공동체, 운명 공동체 지향	역내 통합 및 상품과 서비스의 단일 시장 형성 이후 정치적 통합 달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 개도국에 대한 지배력 행사, 실크로드 경제벨트: 중앙아시아·러시아를 거쳐 유럽 발트해 연결, 중앙아시아·서남아시아·페르시아 만을 통해 지중해 연결, 동남아·인도양 연결</li> <li>-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중국 동남부 항구·남중국해·인도양·유럽 연결, 남중국해·남태평양, 6개 경제 회랑</li> </ul>	역내 관세 통합, FTA 체결을 통한 대외협력 확대, 중국의 일대일로의 연계추진을 통한 GEP 구축
주요 협력 부문	정책조정과 소통, 인프라 연결, 교역과 투자 협력, 금융 협력, 국민 간 이해, 해상 협력, 생태 보호 및 환경	에너지, 이주노동, 산업, 정치 안보
의사 결정 및 집행 구조	시진핑이 조장으로 있는 개혁 전면 심화를 위한 중앙 영도 소조 하부에 일대일로 건설업무 영도 소조가 설립되어 시진핑이 직접 지도하고 부총리 및 각 부처(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 외교부 등) 수장이 집행; 2017년, 2019년 두 차례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2016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출범, 2017년 아시아금융협력 협회(Asian Financial Cooperation Association: AFCA) 설립;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연변 국가들에 대한 정상외교를 통해 구체적인 일대일로 협력 체제 구축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유라시아 정부 간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 EEC의 이사회와 사무국은 조직 구성, 예산, 조정, 감독 집행 역할, 민감한 사안을 제외한 보통 의사 결정은 1국, 1위원, 1표 체제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EAEU
통합수준	기능적 차원에서 경제공동체 역할, 안보·문화·사회 공동체 기능을 포함하는 포괄적 네트워크 지향, 현재까지 느슨하고 통합수준이 낮은 경제협력체로 존재	공의회와 중앙은행 부재, 불안정한 예산 운영 등의 문제로 EU보다 통합의 수준이 떨어짐, 개방적이고 유연한 경제협력 연합
비판	중국 채무의 함정, 중국 패권 확립을 위한 도구로 비판 직면	구소련의 지배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직면

출처: 저자 작성

두 전략의 통합수준을 비교해 보면 일대일로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안보·문화·사회 공동체 기능을 포함하는 포괄적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그리고 일대일로는 현재까지 느슨하고 통합수준이 낮은 경제협력체로 존재하고 있다. 반면, EAEU는 공의회와 중앙은행이 없고 불안정한 예산 운영 등의 문제가 있어 EU보다 통합의 수준이 떨어지지만, 일대일로보다는 좀 더 제도화되고 통합수준이 높았다. 기본적으로 EAEU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경제협력 연합을 지향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더욱 개방적인 통합 모델이자 자유주의 경제 메커니즘에 더욱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일대일로는 고도로 정치화되고 국가주의적인 러시아의 EAEU에 비해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 즉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은 투자와 인프라를 공급한다는 것이다.<sup>195)</sup>

195) Charles E. Ziegler, "China-Russian Relations in Trade, Energy, and Finance: Strategic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for U.S. Policy," in *Axis of Authoritarians: Implications of China-Russian Cooperation*, eds. Richard J. Ellings and Robert Sutter (Seattle, WA: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8), p. 71.

## 나. 중·러 지역 전략의 협력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의 EAEU 창설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제연합이 오히려 중국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96)</sup> 중국 측에서 러시아의 EAEU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시진핑의 중앙아시아 5개국 방문 이후이다. 이때부터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일대일로 협력과 함께 러시아와도 다양한 부문에서의 경제협력을 모색하였다. 2015년 5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EAEU 핵심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 방문해 교역,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90여 개의 경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토대 구축의 성과를 거두었다.<sup>197)</sup>

중국 일대일로의 여섯 개의 경제 회랑 가운데 세 개가 러시아의 EAEU 회원 국가들을 통과했다. 이러한 국가들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중국이 이미 주요 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었다. 중국은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보 이슈는 러시아에게 맡겼지만, 중국의 경제적인 역할이 두드러지고, 중앙아시아에 화교 집단이 많았으며, 동유럽에서도 일대일로 연계가 이루어지자 러시아는 구조련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sup>198)</sup>

하지만 2017년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개막사를 통해 일대일로가 EAEU 및 SCO, ASEAN 등의 국제협력기구와 더불어 ‘GEP’ 형성의 기초를 놓기를 바란다고

---

196)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p. 58.

197) 고재남,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p. 37.

198) Charles E. Ziegler, “China–Russian Relations in Trade, Energy, and Finance: Strategic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for U.S. Policy,” p. 71.

강조했다. 이 포럼에서 러시아 에너지부 알렉산더 노박(Alexander Novak) 부장은 철도, 항만, 시베리아 천연가스관, 신에너지 등 인프라 연결 확대 분야에서 중국 일대일로와의 협력 사업을 제시했다.<sup>199)</sup> 2018년 5월 중국은 EAEU와 ‘교역 및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고,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sup>200)</sup>

특히 러시아가 관심을 가진 협력 분야는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대일로와 EAEU의 연계 배경 속에서 북해항로의 해상 운송 발전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2019년 4월 개최된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해항로와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를 연계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 지구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로를 개척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10월 러시아의 발다이클럽(Valdai Discussion Club) 회의에서도 푸틴은 북극-시베리아-아시아 항로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고, 이 항로는 북해항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항구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협력 방향에 관해 관심을 표명했다.<sup>201)</sup>

2019년 4월에 개최된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유라시아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대일로와 EAEU 아래 모이는 국가들은 평화와 성장의 장기적인 전략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sup>202)</sup>

---

199) KIEP 북경사무소,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제20권 제12호 (2017), pp. 5~8.

200) 고재남,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p. 38.

201)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俄罗斯国际事务委员会、俄罗斯科学院远东研究, *中俄对话：2020模式*, p. 28.

202) “China and Russia Forge Stronger Eurasian Economic Ties as Vladimir Putin Gets behind Xi Jinping’s Belt and Road Plan in face of US hostility,” South

2018년 중·러 무역액은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한 1,082억 달러였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일대일로와 함께 2019년 10월 25일 「중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경제무역 협력 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다. 중·러는 이제 대유라시아 경제 파트너 관계의 가능성 연구에 착수했고, 2024년 교역량 2천억 달러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양국 무역에서 중심이 되는 분야는 에너지 협력, 교통 운수 인프라 건설 협력, 농업 협력, 중소기업 협력 잠재력 발굴, 금융, 전자상거래, 군수공업, 임업, 서비스 무역, 여행, 무역 편리화, 세관 품질검사 효율 제고 등의 방면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sup>203)</sup>

러시아의 대중 무역 규모는 2010년 588억 달러에서 2019년 1,088억 달러로 연평균 7%나 성장했다. 특히 러시아의 EAEU 설립 해인 2015년을 기준으로 교역 규모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중·러 무역 규모는 2015년 이전인 2013년 888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630억 달러까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2015년 무역액이 6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9% 감소한 것은 루블화 가치폭락으로 인한 것이다.<sup>204)</sup> 하지만 2016년 660억 달러에서 2018년 1,082억 달러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는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러시아의 EAEU 추진과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그리고 이 두 정책의 연계가 양국의 무역 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어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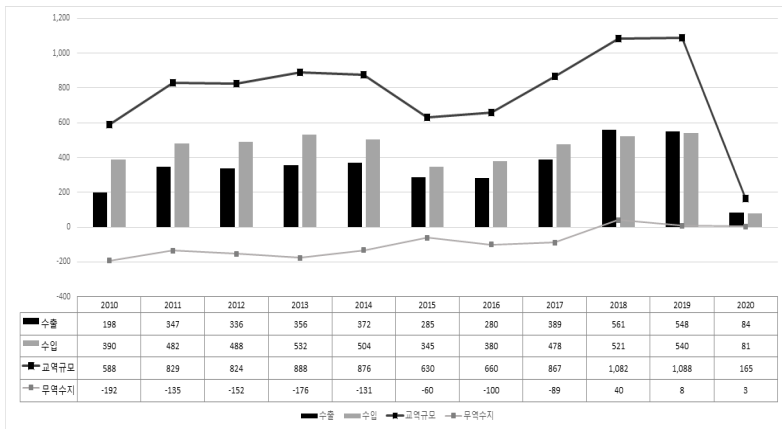
China Morning Post, 2019.4.26.,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07883/china-and-russia-forge-stronger-urasian-economic-ties>> (검색일: 2020.6.13.).

203) “王宪举：中俄经贸合作潜力还可以深挖,” 环球时报, 2019.12.3.,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o7g5>> (검색일: 2020.5.13.).

204) 루블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중·러 무역액 감소는 다음 연구를 참고: 赵鸣文, “贸易下滑与中俄关系发展,” 《国际问题研究》, 第3期 (2016), 재인용: 조정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중 경제협력: 극동지역의 성과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8권 제1호 (2018), p. 178.

정도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2017년까지 러시아의 대중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다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2018년 40억 달러, 2019년 8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러 간 무역 규모 증가와 경제협력 강화가 무역 흑자로만 놓고 보면 러시아에 더 큰 이득을 가져다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VI-3〉 러시아의 대중국 무역



주: 2020년 무역 자료는 1~2월 합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AEU과 중국의 경제무역 협력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15년 5월 중국과 러시아는 EAEU와 일대일로를 공동 개발하는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16년 6월 당시 중국 상무부 부장 가오후청(高虎城)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무역위원 니키쉬나(Nikishina)는 북경에서 「중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경제무역협력협의 협상 정식 가동에 관한 연합 성명」을 발표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세 차례의 워킹그룹 회의와 두 차례의 장관급 협상을 포함한 총 다섯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 중국 상무부 부장 종산(钟山)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무역위원 니키쉬나는 「중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간 경제무역협력협의 협상을 실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관한 연합 성명」에 서명했다. 2018년 5월 당시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 대표 겸 차관 푸즈잉(傅自应)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 주석인 사르키산(Tigran Sargsyan)과 연맹의 각 구성원 국가 대표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Астана)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간 경제무역협력 협정(이하 협정)」에 서명했고 발효되는 데 필요한 국내 통과 절차를 이행했다.<sup>205)</sup>

이 협정의 구성은 서문 외에 총칙, 투명도, 무역 규제, 기술 무역 장벽, 위생 식물 위생 조치, 세관 협력 및 무역 편리화, 지식재산, 경쟁, 정부 구매, 부문 협력, 전자상거래, 기제 조항, 최종 조항의 총 13장으로 구성되었다. 협정의 주요 특징은 첫째, 규칙과 정책 연계 측면에서 시작하여 양측의 경제무역 협력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다졌다는 것이다. 둘째, 중점 영역은 세관 협력과 무역 편리화, 기술 표준, 품질검사 및 검역, 무역 규제 등 방면을 포함하고, 무역 편리화 수준의 제고, 공평 경쟁 촉진, 산업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유리하며, 미래 FTA 건설을 위해 견고한 기초를 놓았다. 셋째, 지식재산권, 정부 구매,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를 포괄하여 양자 간 광범위한 협력 영역과 공간을 열었다.<sup>206)</sup>

중국의 한 전문가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EAEU을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네 단계를 제시했다. 첫째, 인프라 통합, 무역 흐름 조정에 관해 중국은 러시아의 EAEU와 합의를 이루고 중국과 EAEU

205) “六国总理共同宣布经贸合作协定生效——“一带一路”与欧亚经济联盟对接合作迈出坚实一步,” 中国商务部, 2019.10.29., <<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e/201910/20191002908338.shtml>> (검색일: 2020.10.7.).

206) 위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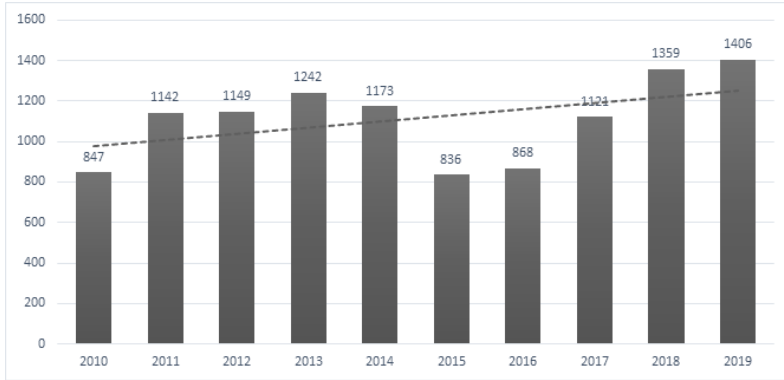
사이에 FTA 체결 협상을 시작한다. 둘째, 2020년에서 2025년까지 SCO의 틀 내에서 FTA를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한다. 셋째, FTA 토대 위에 SCO를 더욱 확대하여 대륙 경제 파트너십(Continental Economic Partnership)을 창설한다. 마지막으로 약 2030년까지 전 유라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공동 경제 공간(Common Economic Space)을 창설한다. 2018년 중국과 유라시아 연맹 구성원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1,348억 달러에 이르렀고, 전년 대비 23%나 성장했고, 중국의 연맹에 대한 각종 투자 총액은 약 14억 달러에 도달했다.<sup>207)</sup>

중국과 EAEU와의 교역 규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추세이고, 특히 양자 간 협력 논의가 본격화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무역 규모가 더 빠르게 상승했다. 양자 간 무역은 2010년 847억 달러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1,406억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특히 2015년 양자 간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교역 규모는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었다. 즉 2013년 1,242억 달러로 양자 간 무역 규모가 정점에 도달한 후 2015년 836억 달러로 급감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EAEU와 중국의 경제무역 협력 협정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양자 간 무역 규모는 2016년 868억 달러에서 2017년 1,121억 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양자 간 협정이 체결된 2018년과 발효된 2019년은 무역 규모가 각각 1,359억 달러와 1,406억 달러로 최고에 도달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갖는다면 양자 간 경제무역 협력 협정이 무역 규모에 어느 정도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07)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pp. 58~59.

〈그림 VI-4〉 중국과 EAEU와의 무역 규모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9년 6월 6일 상트페테루브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EAEU와 중국국제운송화물 및 교통수단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했고, 정보 교환은 중국 해관을 통한 EAEU의 수입과 중국의 화물 통관 속도를 높임으로써 각국 영토 국경을 넘는 운송 화물의 흡입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EAEU 회원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18년 말 39% 증가했고, 광물 자원이 EAEU 회원국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5%에 달했다. 또한, 2018년 중국이 EAEU 회원국 대외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였던 반면, 중국 대외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밖에 되지 않았다. EAEU 회원국들은 인프라와 공업 협력에서 중국과 대규모의 투자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과학기술과 혁신 영역에서 협력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결제 시스템 개발이 이러한 모든 협력의 필수조건이다.<sup>208)</sup>

이처럼 중국 일대일로와 EAEU의 연계와 협력은 서로의 부족한

208)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俄罗斯国际事务委员会、俄罗斯科学院远东研究, *中俄对话: 2020模式*, pp. 27~28.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세계의 제재와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외부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연계와 협력은 더욱 심화하였다.

#### 4. 중·러 지역 전략의 추동 요인과 제약 요인

중국의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은 러시아를 중요한 지정학적 파트너로 여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다극 체제를 지지하고 글로벌 시스템에서 미국의 지배에 반대하며 그러한 영향력에 함께 대항할 수 있는 주요 강대국들 가운데 파트너를 찾는다. 또한, UN 안보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현재의 국제법 시스템을 보존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훼손하는 서방 국가들을 비판하는 것에 있어 러시아와 이해를 같이 한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가 안정적이고 강하기를 원하지만, 너무 강대해지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중국과 같이 비서구 혹은 완전히 서구화되지 않은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인터넷 안보, 서방세계의 내정 간섭 시도 등 같은 문제를 우려했고, 서방으로부터의 내정 간섭과 정치적인 압력에 반대했다. 반면에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이해관계가 있고, 중국은 SCO 틀을 포함하여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을 지지하고 EAEU와 협력에 합의할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국경에서의 안정이 자신의 발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의도에 대한 러시아의 두려움을 불식시켜야 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구할 수 없는 무기와 다른 나라에서 제한적으로만 살 수 있는 석유,

목재 등 원자재를 제공하므로 아주 중요한 국가이다. 또한 일대일로  
를 추진하는 데도 러시아는 아주 유용한 국가가 될 수 있다.<sup>209)</sup>

러시아는 무역 특히 천연가스 수출에 있어 유럽이 큰 비중을 차지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역을 놓고 긴장과 갈등의 고조, 에너지 기술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서방의 제재, 아시아 시장의 매력 등의 이유  
로 러시아의 아시아로 회귀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러시아는 아시아  
와 유럽 사이에서 자신의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  
년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은 EAEU과 일대일로 사이 개발  
을 조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sup>210)</sup>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각자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상대방의 지  
역 전략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일대일로  
와 EAEU이 다른 지역 전략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충돌 및 경쟁하는  
지점이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 모두 유라시  
아 지역에서 상대방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두 전략이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목표는 유  
라시아 지역에서 서방, 특히 미국의 영향력과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  
단하는 것이다.

### 가. 중·러 지역 전략 협력 추동요인

구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지역 전략에서 협력을 추동하는 요  
인은 양국 간 우호적인 인식과 신뢰 구축이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

---

209)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pp. 64~66.

210) Charles E. Ziegler, "China-Russian Relations in Trade, Energy, and Finance: Strategic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for U.S. Policy," p. 71.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의 실질적인 면모를 인정하지 않다가 열린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의 업적과 성취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러시아는 중국의 개혁을 학습해야 할 정도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는 덩샤오핑 리더십 하에 중국의 정책 결정, 특히 외교 정책 결정 메커니즘은 더욱 제도화되고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했다.<sup>211)</sup>

특히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즉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자신이 추진하는 EAEU의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중·러 간 신뢰가 구축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sup>212)</sup>

또한 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원자재 접근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경 인프라 개발 사업을 일대일로 안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했다. 특히 2017년 중국 개발 은행은 RDIF와 공동으로 1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조성하여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지역 에너지, 교통, 산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EAEU를 통해 이러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동의했다.<sup>213)</sup> 이로써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중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이익도 인정하고 지지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로 인식했다.

그리고 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가 중·러 간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서방세계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시행하고 협력을 줄이자 러시아는 즉시 아시아 국가들과

---

211)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pp. 73~74.

212) 고재남,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p. 38.

213) Charles E. Ziegler, "China-Russian Relations in Trade, Energy, and Finance: Strategic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for U.S. Policy," p. 62.

의 관계를 발전시켰고, 이는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회귀’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 중심에 바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있었다.<sup>214)</sup>

러시아는 아시아로의 회귀에서 무엇보다도 서방 특히 미국 중심의 전 지구적 경제 질서보다 중국 질서를 더 선호했다. 특히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의 비판적 입장지지, 무기 수출을 통한 서방의 무기 기술 제재 회피, 석유와 가스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으로 중국 에너지 안보 강화를 지지함으로써 러시아의 약한 경제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함께 미국 및 유럽에 대항하는 것을 선호했다.<sup>215)</sup>

즉 중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협력해야 할 이유는 EU와 미국 등 서방세계를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9.11테러 이후 극단주의, 분리주의, 테러리즘 확산 방지에 대한 협력이 절실했다.<sup>216)</sup> 이는 SCO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GEP 구축과 일대일로 역시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긴장 완화와 분리주의, 극단주의, 테러리즘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다.

중·러 양국의 관계 격상과 제도화가 양국의 지역 전략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2019년 중·러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관계는 ‘신시대를 위한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201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맞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8년 만에 다시 양국 관계가 격상된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재정립과 격상은 일대일로와

---

214)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p. 89.

215) Charles E. Ziegler, “China–Russian Relations in Trade, Energy, and Finance: Strategic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for U.S. Policy,” p. 65.

216) 이상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pp. 223~226.

EAEU의 연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1990년대 이래 각종 위원회 설립을 통해 관계를 제도화했다. 정부 수반의 정기적인 회담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1997년에 설립된 이래, 2007년 문화교육 협력 위원회, 2008년 에너지 협력 정부 간 위원회, 2014년 투자 협력 정부 간 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정부 수반 정기 회담의 메커니즘은 차관급(혹은 장관급)이 전담하는 워킹그룹과 20개의 하부 위원회로 구성되어 매년 정기적인 회담을 개최한다. 하부 위원회는 예를 들어 무역 경제 협력, 과학기술 협력, 교통 협력, 핵 문제, 금융 협력, 우주 협력, 통신 정보 기술, 환경보호, 세관 협력, 농업, 산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었다. 특히 2014년에 설립된 투자 협력 위원회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투자와 지역 간 협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위원회는 기업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의 도움과 조정이 필요한 유망한 장기 투자 프로젝트 선택과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217)</sup> 중·러 간 설립된 이러한 위원회는 양국의 지역 전략 협력을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양국의 지역 전략 협력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와 유가 하락, 루블화 가치하락, 무역 하락 등 잇따른 경제적 악재는 러시아 관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통해 낙후된 유라시아 지역의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에 중국의 투자 역량을 활용하기를 바란다.<sup>218)</sup>

다음으로 양국 지역 전략의 서로 다른 초점과 의도가 상호 갈등

217)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pp. 129~132.

218) 이상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pp. 226~227.

및 경쟁보다는 협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EAEU는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강화를 위해 상징적인 영향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의 접근 방식은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경제 통합 프로젝트를 우회하는 경제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국 지역 전략의 이러한 서로 다른 중점과 접근 방식으로 인해 중·러는 크게 갈등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sup>219)</sup>

세 번째 추동 요인은 일대일로의 교통 운송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EAEU 역내 교역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자본과 노동 이동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두 전략의 연계는 초국경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추동 요인은 바로 규범과 가치에 대한 강조보다 경제협력과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는 실용적인 사고이다.<sup>220)</sup>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양국 지역 전략 협력의 동인은 바로 미국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의 아시아 회귀를 가속했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의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중·러 두 나라를 더욱 밀착시켰고 이를 통해 양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저항하려고 하였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자 파키스탄과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자 파키스탄은 이에 반발하여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했다. 파키스탄

---

219) 김영진, “유라시아 비서구 지역통합 프로젝트: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 pp. 21~56.

220) 김영진,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연결 가능성: 경제협력의 기회와 장애,” pp. 76~78.



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6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 러시아도 파키스탄과 에너지 및 무기 교역을 늘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sup>221)</sup> 이처럼 미국의 중국과의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의 대러 제재, 그리고 인도와의 관계 강화 및 파키스탄과의 갈등 등 미국의 역할과 작용이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과 협력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 나. 중·러 지역 전략 협력 제약요인

양국 지역 전략 협력의 제약 요인은 바로 중·러 양국의 경제 성장률과 무역 규모의 격차 변화이다. 즉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아주 다른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침체하고 있으므로 이는 러시아에게 도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와 군에서 민족주의의 성장은 점점 공격적인 외교 정책으로 이어졌다.<sup>222)</sup> 즉 러시아는 한편으로 여전히 중국의 부상에 편승하여 동반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부상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이익 혹은 영향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과 경제 규모의 격차는 최근 들어서도 크게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7%대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러시아는 2018년 2.3% 성장한 것 외에 2015년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했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은 2013년 약 2조 2천억 달러의 정점에서 2019년 1조 6,900억 달러까지 하락했다. 2019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은 전 세계 11위로 12

---

221) Charles E. Ziegler, "China-Russian Relations in Trade, Energy, and Finance: Strategic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for U.S. Policy," pp. 72~73.

222)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Approchement*, p. 92.

위 한국의 1조 6,100억 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2013년 9조 5천억 달러에서 2019년 14조 달러로 지속해서 중고속 성장을 달성했고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인 일본의 4조 9천억 달러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2019년 최초로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하여 러시아의 1만 1천 달러에 근접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규모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VI-3〉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과 경제 규모 비교

GDP 성장률(% /국내총생산(10억 달러)	중국	러시아
2013	7.8/9,570.4	1.8/2,297.1
2014	7.3/10,438.5	0.7/2,060.0
2015	6.9/11,015.5	-2.3/1,363.6
2016	6.7/11,137.9	0.3/1,282.7
2017	6.8/12,143.5	1.6/1,578.6
2018	6.6/13,608.2	2.3/1,657.6
2019	6.1/14,004.7	1.1/1,6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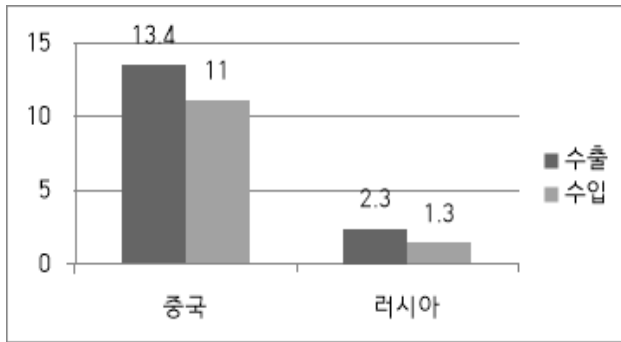
주: 2019년 자료 출처는 OECD 통계

출처: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http://kosis.kr>>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뿐만 아니라 <그림 VI-5>를 보면 2019년 세계 무역 중 중국과 러시아의 비중도 큰 격차가 있었다. 중국의 수출액은 약 2조 4,644억 달러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러시아의 수출액은 약 4,197억 달러로 중국의 1/6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세계 14위였다. 중국의 수입액도 약 2조 679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했고, 러시아는 약 2,426억 달러로 세계 19위였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 규모와 무역 규모의 변화를 추적해 볼 때 중국이 러시아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고, 2013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일대일로와 2015년 창설된

EAEU의 연계가 양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수준도 다를 것이다. 즉 러시아가 중국보다 두 정책의 연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압도적인 경제 실력은 러시아에게 유라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 상실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림 VI-5〉 2019년 세계 무역 중 중국과 러시아의 비중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2020.7.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력 격차는 자연스럽게 두 국가가 추진하는 지역 전략의 추진 동력과 역량 격차를 초래했다. 즉 유라시아 국가들이 보기에 재정력이 약한 러시아의 EAEU보다 일대일로로 자금 동원 능력이 더 신뢰가 갈 것이다. 실제로 일대일로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의 재정적인 지원이 EAEU 내 유라시아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 EDB)보다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sup>223)</sup>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좀 더 동등한 지위로 유라시아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고, 러시아의 EDB에 대한 재정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23) 이상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p. 228.

두 번째 제약 요인은 첫 번째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양국 간 국력 격차가 심해지자 유라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경계하고,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양국 간 FTA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sup>224)</sup>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 양자 간 FTA보다는 EAEU와 중국과의 FTA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여전히 유라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와 전략적 신뢰 부족으로 향후 가능성이 있는 EAEU와 중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되는 것을 우려할 것이다.

세 번째 제약 요인은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대중 수출은 주로 석유와 화석 연료와 같은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오히려 다변화되어 각종 기계 장비가 러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 반면 러시아는 중국 기업들과 협작을 하려면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경쟁해야만 했다. 또한, 2007년 이전 러시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거두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였지만 2007년 러시아는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양국 교류의 높은 무역수지 성장률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러시아의 대중 석유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로 중국의 대러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sup>225)</sup>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증가, 러시아의 중국 자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무역 구조가 고착되었고, 이로써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졌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 간

---

224) Schubert Jeffrey and Dmitry Savkin, "Dubious Economic Relation: Why a China-Russia Free Trade Agreement is Hard to Reach?,"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2, no. 4 (2016), p. 62.

225)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p. 141.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금융 조달 문제, 러시아 제조업의 낮은 경쟁력, 첨단기술 산업에서 기술혁신 및 수준 향상의 어려움, 러시아 현지 숙련공 부족 현상 등의 문제로 양국의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함에 따라 평등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중국에 자원을 공급하는 부속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러시아 측의 우려도 있었다.<sup>226)</sup>

한편 러시아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엄청난 자금을 러시아 동부지역에 투자할 것을 기대했지만, 일대일로는 오히려 서쪽과 남쪽 방향을 더 선호했고, 러시아가 제시한 극동지역 프로젝트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했다.<sup>227)</sup>

네 번째 제약 요인은 양국 간 지역 전략 협력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경제교류와 투자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이다. 우선 중국 사업가들은 러시아 공급자들이 안정적이지 않고 인도 마감 날짜를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사업이나 투자를 진행할 때 당국의 법 집행이 자의적이라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심지어 러시아의 마피아 조직 개입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러시아 측 역시 중국에서 사업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아 러시아 기업들이 조건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기업들이 낙찰될 때가 많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 기업들의 자국에서의 불법적인 활동과 탈세, 그리고 러시아의 대중 투자자에 대한 과도하고 엄격한 규제 적용 등의 문제를 우려했다.<sup>228)</sup>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

226)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 심화에 따른 양국 협력 장애 요인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 Simola Heli, "Economic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 - Increasing Interdependency?," *BOFIT Policy Brief*, no. 6 (2016), pp. 3~26; Elizabeth Wishnick, "In Search of the 'Other' in Asia: Russia-China Relations Revisited," *The Pacific Review*, vol. 30, issue 1 (2017), pp. 114~132, 재인용: 조정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중 경제 협력: 극동지역의 성과를 중심으로," p. 179.

227) Charles E. Ziegler, "China-Russian Relations in Trade, Energy, and Finance: Strategic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for U.S. Policy," p. 62.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러시아 인력 비용 상승, 루블화 가치하락, 시장 수요 하락, 획득 기술 제약, 인프라 설비 미비 등의 원인 외에 부당한 법 집행, 경제 형세 불안정, 투자자에 대한 보장 부족, 부패, 지정학적 정세 긴장 등이 제약 요인이었다.<sup>229)</sup>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EAEU의 연계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기업들과 기업인들이 사업 관행과 문화에 대해 서로 불신하는 것은 양국 지역 전략 협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역내·외 보호무역의 증가로, 특히 러시아에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증가하여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운송 회랑이 배치됨에 따라 충분한 상품 운송 수요가 필요한데,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러 모두 이러한 전략의 지정학적 수단과 경쟁을 무시할 수 없기에 두 전략의 연계 방안들이 실제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고위급 성명차원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sup>230)</sup>

요약하면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EAEU의 연계와 협력을 추동하는 요인과 제약 요인은 정치 경제적·대내외적인 측면이 있다. 대외 정치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과의 관계이고, 대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무역과 중·러에 대한 경제 의존도이다. 대내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러 각국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 대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각 통합 전략에 대한 각국 지도자들의 인식과 양국 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

228)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p. 138.

229) 赵鸣文, “贸易下滑与中俄关系发展.”

230) 김영진,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연결 가능성: 경제협력의 기회와 장애,” pp. 78~83.

## 5.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중·러 지역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전망은 만약 중국의 일대일로와 SCO, 그리고 러시아의 EAEU와 GEP가 EU와 같은 통합성과 개방성의 길로 간다면 6자회담과 같은 동북아 안보 기구 설립에 긍정적인 이바지를 하고, 이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과 비핵화 조치 동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와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자기구 속에서 중·러의 협력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03년 2차 북핵 위기 시 중·러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는 분명했고,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정보장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 형성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 속에서 중·러의 적극적인 행동과 지원으로 1차 6자회담이 그 해 8월에 개최되었다. 그 이후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인 해결책으로써 항상 6자회담의 재개를 주장했다.<sup>231)</sup>

따라서 중·러의 지역 전략 협력과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견인과 북한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 형성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EAEU가 북한의 발전 전략과 연계된다면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북한이 다자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들 국가 사이에 경제적 상호의존

---

231) Alexander Lukin, *The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pp. 108~109.

이 증가한다면 북한을 포함한 다자안보협력 기구를 창설하여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이러한 기구들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은 EAEU와 FTA를 추진하고, 회원국들과 양자 FTA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의 유라시아에서 일대일로 협력 사업에도 참여하여 러시아의 EAEU와 중국의 일대일로,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계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협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북한 역시 외교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전통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에서의 경제협력에 북한은 참여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여 EAEU와 일대일로의 연계 협력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중·러의 지역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만약 두 국가의 지역 전략이 폐쇄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고, 중·러의 패권 경쟁의 장으로 전략하며, 반미와 반서방 노선이 강화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의 경쟁과 대립이 격화되고 6자회담과 같은 동북아 안보기구 설립을 저해하며, EU 및 미국 등의 서방세력과 갈등과 경쟁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지역 전략이 대미 견제와 반서방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유럽과 아시아 연계를 통한 지정학적 안정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얻는 경제적 실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sup>232)</sup>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두 국가의 지역 전략이 반미와 반서방 노선의 폐쇄적인 경로로 갈 때 그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더 증가한다.

---

232) 박영택,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과 동북아 및 대북한 안보 영향요인,” pp. 117~118.



SCO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발전한다면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sup>233)</sup>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북한과의 삼각 협력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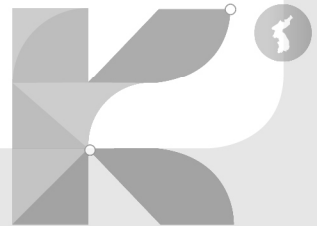
---

233) 위의 글, p. 119.



# Ⅶ.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제안

현승수 통일연구원





본 연구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 실현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러나 본문에서 고찰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동맹의 직전 단계까지 전략적 협력을 확대 강화해 오면서도, 현실적으로 군사 동맹 체결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보고서의 제II장인 이론적 검토에서 논의되었듯이, 탈냉전 후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군사 동맹이 갖는 성격과 역할은 많은 부분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세계화와 IT 발전으로 인해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활발하고 네트워크화가 진행 중인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적과 아군의 개념이 점차 희석되면서 단순히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 국가 관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명확히 적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공동 대응을 전제하는 동맹 체제가 그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을 키워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상호 협력 수준을 높여 가고 있지만, 미국을 적대시하면서 동맹 체제로 나아가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러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군사·경제적 수준에서의 격차와 상호 갈등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중·러는 군사 동맹이 주는 제도적 제약을 포함해 동맹의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은 자국의 전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확대·강화하면서도 군사 동맹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러 동반자 관계의 명칭(naming)이 부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중·러 관계의 전략적 협력 확대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미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예측하면서, 중·러 협력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위협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한다.

첫째, 우리 정부의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을 일관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러의 지역 전략 동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외교 전략이다. 신남방정책의 경우는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제시한 지역 전략이므로, 아직 그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신북방정책의 경우에는, 이미 1990년대부터 한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협력·진출 전략을 모색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북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현 정부도 이를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의 북방협력위원회를 발족시켜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방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천명하고 대(對)유라시아 협력에 의욕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중론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된다. 북한의 핵 위협,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대러 및 대북 제재,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은 러시아의 태도 등이 자주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갖고있는 무관심이나 편견이 문제라는 지적도 들린다. 신북방정책의 핵심 대상 지역 중 하나인 중앙아시아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기업인들이나 실무자들은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및 경제적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원과 역량에서 열세인 한국이 치고 들어갈 ‘틈새’가 별로 없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본론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듯,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유럽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동쪽으로 협력의 방향을 틀었다. 인구와 인프라가 희박한 극동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천명하고 중국, 일본, 한국 등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아시아의 역동성을 흡수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동쪽으로 고개를 돌린

러시아의 시선은 중국에서 멈췄다. 한국이나 일본, 북한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의 협력은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역내 지정학적 긴장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의 극동 개발 의지도, 아태 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역할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의 대상 지역이자 미국이나 유럽의 진출이 미미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존재감을 키우면서도 상호 어느 정도 역할 분담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안보는 러시아 중심, 경제는 중국 중심의 구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나라는 적지 않게 갈등 소지를 안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도 역할을 분담해 협력과 공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 신남방정책의 대상 지역인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확장세는 한국의 추월을 불허하며, 러시아 역시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방과 남방 양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장은 이미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를 자세히 추적하고 이를 우리의 지역 진출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강대국 간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중견국 다자 외교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신북방정책의 핵심 대상 지역인 중앙아시아와 신남방정책의 대상 지역인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미·중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패권 경쟁화하는 상황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전통적 기득권을 주장하는 안보 중주국 러시아와 일대 일로를 앞세워 역내 국가들의 경제를 석권하는 중국 사이에서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여기에 2020년부터

미국이 중앙아시아 전략을 새롭게 들고나오면서 유라시아에서 대중 및 대러 견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향후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강대국 경쟁이 미·중·러 간 삼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국가의 경제적 대중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EAEU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안보의 러시아, 경제의 중국이라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 보이지만, 중·러 간 갈등이 언제든 분출 가능한 곳이 중앙아시아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중 경쟁의 심화가 동북아와 한반도에 큰 먹구름을 드리우고 한국 역시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강대국 갈등 속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약소국 및 중견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여 양자택일의 국제정치를 생존과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정치로 바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냉전식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3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 우리에게 그럴 만한 역량이 충분하다.

셋째, 북한이 냉전적 관성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동북아는 미·중·일·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포진해 있어 강대국 지정학이 응집되어 있는 곳이다. 남북한이 대치한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강대국 지정학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듯 보인다. 2018년부터 숨가쁘게 진행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네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기회에도 불구하고, 미·북 협상의 교착으로 인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은 미국과 타협다운 방식을 통해 제재 해제와 대미 관계 개선을 모색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



상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대중, 대러 밀착 움직임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6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은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실추된 협상력의 회복을 위해 중·러를 활용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sup>234)</sup>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부터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다가 스캔들에 휘말렸다. 현재 미·러 관계는 역사상 최악으로 일컬어진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며,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만큼 미·중 관계가 단기간 안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연대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준군사 동맹의 수준까지 관계를 격상시키고 있음은 본론에서 논증한 대로다. 북한은 강대국 갈등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냉전 시기처럼 일방적으로 북한 편들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두 나라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반대하며,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협조적이다. 또 북한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러와 한국의 관계 역시 우호적이다. 더욱이 북한이 냉전 시기에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 받았던 특혜와 무상원조를 오늘날도 기대한다면 그 기대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미국이 대중, 대러 갈등을 진영 논리로 해결하려 하거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러에 맞서는 상황을 연출할 경우, 한반도는 다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과거 냉전적 관성에 끌려들어 가게 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234) 최근 주평양 러시아 대사관의 홈페이지(페이스북)는 북한과 러시아(소련)의 전통적 선린·우호 관계를 회고하는 내용을 다수 게재해, 북한이 의도하는 것처럼 러시아도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 복원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대결 구도가 한반도에서 형성되지 않도록, 또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야기하지 않도록 안보적,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남북한 간 신뢰 형성과 남북 협력의 재가동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창의적 해법과 관련해 한국은 COVID-19에 대한 대응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보건의료 기술 및 시스템을 북한과의 협력, 나아가서 남·북·러 협력의 계기 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확진자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북한 당국이 개성을 완전 봉쇄한 것을 고려하면 COVID-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이미 중·러로부터 진단키트와 방역복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북한 역내에 전염병이 확산 될 경우, 중·러에 철저히 의존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북한의 대중, 대러 접근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게 도전과 기회의 양면을 제공하는 바, 대북 직접 지원 및 협력이 불가능하다면 러시아와의 공조하에 북한에 접근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러시아는 최근 한국의 선진 의료 및 정보화, 첨단기술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한국의 선진 기술에도 호감을 보일 것이다. 일례로, 북한이 홍보하고 있는 고려의학과 러시아의 기초 의·생물학 그리고 한국의 IT 의료를 접목한 새로운 남·북·러 협력 사업을 구상하여 북·러에 제안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동안 거대 인프라(철도·가스관·전력망) 건설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던 남·북·러 삼각 협력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료 다자 협력과 지식공유 사업이 새롭게 제안된다면,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러시아 극동지방과 북한의 관심을 견인해 실현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고재남.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 김계동 외. 『현대 외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2016.
- 도종윤. 『동반자관계(Partnership) 외교연구: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문서를 중심으로』.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6.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에너지통계연보』.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 예쓰청 저. 이우재 역.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 북스, 2005.  
재인용: 허문영·마민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외교부. 『2018 러시아 개황』. 서울: 외교부, 2018.
- 이달석. 『세계 원유교역 구조변화의 지정학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 조남진. 『국가안보의 이해』. 서울: 노드미디어, 2010.
- 허문영·마민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Barnett, Michael N. "Identity and Alliance in the Middle East."  
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edited by Peter J. Katzenstei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Bruce Bueno de Mesquita.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olitics: People's Power, Preferences, and Perceptions*. Washington D.C.: CQ Press, 2000.

- Goldstein, Avery.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 Holsti, Ole R, P. Terrence Hopmann and John D. Sullivan. *Unity and Disintegration in International Alliance: Comparative Stud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3). 재인용: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전략의 발전 방향.” 『전략연구』. 제56호, 2012.
- Lee, Rensselaer and Artyom Lukin. *Russia's Far East: New Dynamics in Asia Pacific and Beyond*.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16.
- Lukin, Alexander. *China and Russia: The New Rapprochement*. Cambridge: Polity, 2018.
- Ma Bin and Zhang Jian. “Present and Future Sino–Russian Cooperation: Chinese Perspectives.” In *Sino–Russian Relations: Perspectives from Russia, China, and Japan*, edited by. Vasily Kashin, Ma Bin, Yuki Tatsumi, and Zhang Jian.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9.
- Osgood, Robert E. *Alliance and American Foreign Poli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8). 재인용: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전략의 발전 방향.” 『전략연구』. 제56호, 2012.
- Schwartz, Paul. “The Military Dimension in Sino–Russian Relations.” In *Sino–Russian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edited by. Jo Inge Bekkevold and Bobo Lo.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9.
-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Yan, Xuetong. *The Weakening of the Unipolar Configuration*. London: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2.

Ziegler, Charles E. "China–Russian Relations in Trade, Energy, and Finance: Strategic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for U.S. Policy." In *Axis of Authoritarians: Implications of China–Russian Cooperation*, edited by Richard J. Ellings and Robert Sutter. Seattle, WA: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8.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俄罗斯国际事务委员会、俄罗斯科学院远东研究所. *中俄对话*. 上海: 复旦大学, 2015~2020.

## 2. 논문

강봉구. "모디 총리 시기 인도-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의 진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1호, 2017.

고재남. "러·중 관계의 발전과 미국 요인." 『러시아 외교 정책의 이해』. 서울: 역사공간, 2019.

김규철. "러·중 군사협력. 동맹인가 일시적 협력인가?" 『중소연구』. 제44권 제1호, 2020.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전략의 발전 방향." 『전략연구』. 제56호, 2012.

김애경.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분석-제기배경, 추진현황, 함의 고찰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정책연구』. 제29호, 2016.

김영진. "유라시아 비서구 지역통합 프로젝트: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 『슬라브학보』. 제34권 제1호, 2019.

- \_\_\_\_\_.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연결 가능성: 경제 협력의 기회와 장애.” 『동북아경제연구』. 제31권 제2호, 2019.
- 김옥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과 정치 경제적 함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2015.
- 김우상. “국제질서의 이해와 변화 전망.” 박광희 편. 『21세기 세계질서: 변혁시대의 적응논리』. 서울: 오름, 2003.
- 김 인. “실크로드의 정치경제학: 중화경제권, 일대일로 전략구상과 국제관계.” 『중국학 연구』. 제86집, 2018.
- 김재관.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과 중·러의 대응.” 『평화연구』. 제40권 제3호, 2015.
- 김흥규.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한계점과 전망.” 『중소연구』. 제23권 제2호, 2016.
- 남윤복.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치경제운용의 재구성.” 『중국 지식네트워크』. 9권, 2017.
- 문수연.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하여 본 러시아와 중국관계: 러시아의 우려와 대응.” 『사회과학논총』. 13호, 2011.
- 문흥호. “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중소연구』. 제41권 제4호, 2018.
- 민지영. “중·러 밀월관계 심화와 시사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럼 EMERiCs』. (주간이슈분석, 2014.10.24.).
- 박영택.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과 동북아 및 對북한 안보 영향요인.”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집 2호, 2020.
- 박정호. “러시아와 중국 경제 관계.”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워크숍 자료집』 (통일연구원 기본과제 워크숍, 2020.8.).
- 박홍서. “중미관계와 ‘일대일로’의 정치경제: 달러패권에 대한 취약성 극복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8집 2호, 2016.
- 서동주.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정치·전략적 함의: 중·러 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2001.7)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연구』. 제2권 제1호, 2002.

- 서정경.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5집 2호, 2015.
- 서춘식. “군사동맹론.” 육군사관학교 편저. 『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2004.
- 석화정. “러일전쟁.” 문정인·김명섭 편저.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신범식.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신범식 외.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서울: 진인진, 2015.
- 심성은. “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제34호, 2020.
- 원동욱. “중국의 지정학과 주변외교: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현대 중국연구』. 제17집 2호, 2016.
- 왕원.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와 한중관계의 위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상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9권 제1호, 2019.
- 이성일.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의미: 중국 측 시각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49집 1호, 2010.
- 이수형. “국제체제의 변화가 동맹의 유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제51권 2호, 2008.
- 이정태.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정치적 의도와 실제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25권 1호, 2017.
- 이주리. “러시아-중국 간 가스부문 협력 동향과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6호, 2016.
- 이희옥·왕원.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의 유형화 시론(試論).” 『중국학연구』. 제82집, 2018.



-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2004.
- 정태인. “인도. 러시아 기술로 지역 맹주 성장: 양국. 국방·원자력 생산 협약 체결.” 『Chindia plus』. vol. 114, 2016.
- 조남풍.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관한 연구-구조변화와 발전방안 모색.”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조영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발전과 우리의 협력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과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17.
- 현미정.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효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현승수. “러시아: 적극적 강대국 외교와 국방 현대화 지속.” 『2019 동아시아 전략평가』. 논산: 동아시아안보전략연구회, 2019.
-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 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8집 1호, 2018.
- 홍진희. “중·러 천연가스 분야 협력 현황 및 전망.” 『중국전문가포럼 CSF』 (이슈&트렌드, 2018.10.5.).
- KIEP 북경사무소.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제20권 제12호, 2017.
- Chidley, Colleen. “Towards a Framework of Align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kon*, vol. 41, issue. 1 (2014).  
 재인용: Strüver, Georg. “International Alignment between Interests and Ideology: The Case of China’s Partnership Diplomacy.” *GIGA Working Papers*. 283, 2016.
- Dolgormaa, Lkhagvadorj. “몽골의 대동북아 지역경제협력 정책방향과 한국과의 연계성.” 『한몽 수교 30년 평가와 향후 협력방향』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공동 세미나 발표집, 2020.5.22.).
- Dominguez-Jimenez, Marta and Niclas Poitiers. “An Analysis of EU FDI Inflow into Russia.” *Russian Journal of Economics*, vol. 6, no. 2, 2020.

- Gorenburg, Dmitry. “An Emerging Strategic Partnership: Trends in Russia–China Military Cooperation.” *Security Insights*, no. 54, 2020.
- Heli, Simola. “Economic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 – Increasing Interdependency?.” *BOFIT Policy Brief*, no. 6, 2016.
- Jeffrey, Schubert and Dmitry Savkin. “Dubious Economic Relation: Why a China–Russia Free Trade Agreement is Hard to Reach?.”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2, no. 4, 2016.
- Kashin, Vassily. “Is the Conflict Inevitable? Not at All. How Reasonable are Western Expectations of a Russia–China Confrontation?” *Russia in Global Affairs*, vol. 17, no. 3, 2017.
- Korolev, Alexander. “How Closely Aligned are China and Russia? Measuring Strategic Cooperation in IR.” *International Politics*, vol. 57, 2020.
- Korolev, Alexander. “On the Verge of an Alliance: Contemporary China–Russia Military Cooperation.” *Asian Security*, vol. 15, no. 3, 2019.
- Krickovic, Andrej. “The Symbiotic China–Russia Partnership: Cautious Riser and Desperate Challenger.”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0, no. 3, 2017.
- Miller, Chris. “Will Russia’s Pivot to Asia Last?.” *Orbis*, vol. 64, issue. 1, 2020.
- Nabil, Ryan. “Evaluating Russia’s Pivot to Asia.”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5, 2020.
- Nuutilainen, Riikka and Jouko Rautava. “Russia and the Slowdown of the Chinese Economy.” *BOFIT Policy Brief*, no. 2, 2020.

- Odgaard, Liselotte. "Beijing's Quest for Stability in its Neighborhood: China's Relations with Russia in Central Asia." *Asian Security*. vol. 13, no. 1, 2017.
-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1994.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 Strüver, Georg. "International Alignment between Interests and Ideology: The Case of China's Partnership Diplomacy." *GIGA Working Papers*. 283, 2016.
- Wilkins, Thomas S. "'Alignment', Not 'Alliance' – The Shifting Paradigm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Toward a Conceptual Taxonomy of Alignmen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8, 2012.
- Wishnick, Elizabeth. "In Search of the 'Other' in Asia: Russia-China Relations Revisited." *The Pacific Review*. vol. 30, issue 1, 2017. 재인용: 조정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중 경제협력: 극동지역의 성과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8권 제1호, 2018.
- 门洪华·刘笑阳. "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 现状评估与未来展望."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第6期, 2013.
- 翁明. "中国外交中的'伙伴关系框架'." *上海外事*. 第14期, 2000.
- 王海运. "中俄军事关系七十年: 回顾与思考." *俄罗斯东欧中亚研究*. 第4期, 2019.
- 饶银华. "论邓小平独立自主和平外交政策." *探索*. 3期, 2014.
- 魏志江. "论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建立及其影响." *当代亚太*. 第4期, 2008.

赵鸣文. “贸易下滑与中俄关系发展.” *国际问题研究*. 第3期(2016). 재인용:  
조정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중 경제협력: 극동지역의  
성과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8권 제1호, 2018.  
肖晞·马程. “中国伙伴关系:内涵、布局与战略管理.” *国际观察*. 第2期,  
2019.

ВАН ИВЭЙ. “Выход из Кризиса и Преимущества Китая.”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no. 3, 2020.

### 3. 기타 자료

#### 가. 신문

『국민일보』, 『대한뉴스』, 『매일경제』, 『신동아』, 『연합뉴스』, 『월간중앙』,  
『인민망 한국어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MK뉴스』.

*CCTV, CRI Online, Egypt Today, FinTech Futures, Global Times,  
Modern Diplomacy, New York Times, Nikkei Asia, Radio Free  
Europe, Riddle, Robotics & Automation News, Small Wars  
Journal, South China Morning Post, Sputnik International,  
TASS, The Diplomat, The Economist, The Insiders Stories, The  
North Africa Post, The Telegraph, XINHUANET.*

*环球时报, 南方周末, 新华网, 人民网, 中国新闻网.*

*Ведомости, Интерфакс, РИА НОВОСТИ.*

## 나. 웹사이트

### (1)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http://kosis.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naver.me/xow6MxwW>>.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차이나쿠레이터 <[http://kcri.wku.ac.kr/main/program.action?cm\\_sid=101050506000](http://kcri.wku.ac.kr/main/program.action?cm_sid=101050506000)>.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CSIS <<https://www.csis.org/>>.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http://eec.eaeunion.org/>>.  
IMF DB <<https://www.imf.org/en/Data>>.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https://www.iea.org/>>.  
ISTANS DB <<https://istans.or.kr/>>.  
NSPK <<https://nspk.com/cards-mir/>>.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Brazil <<http://www.brazil.gov.br/>>.  
President of Russia <<http://en.kremlin.ru/>>.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http://chn.sectsc.org/about\\_sco/](http://chn.sectsc.org/about_sco/)>.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https://www.sipri.org>>.  
UN Comtrade DB <<https://comtrade.un.org/>>.  
World Bank DB <<https://data.worldbank.org/>>.

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english/>>.  
中国产业信息 <<http://www.chyxx.com>>.  
中国商务部 <<http://www.mofcom.gov.cn>>.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https://www.fmprc.gov.cn>>.  
中国石油天然气集团有限公司 <<http://www.cnpc.com.cn/cnpc/jtxw/201606/47378291577148ed995f2701ab236edc.shtml>>.  
汉典 <<https://www.zdic.net>>.

## (2) 웹사이트

이주현. “베트남, 러시아의 동남아 진출 핵심 교두보.” 『KOTRA 해외 시장뉴스』. 2016.7.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0724>>.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2019년 10월 UAE 주요 정세(10.7-10.13).” 『UAE 정세』. 2019.10.16. <[https://overseas.mofa.go.kr/ae-ko/brd/m\\_11122/view.do?seq=134353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https://overseas.mofa.go.kr/ae-ko/brd/m_11122/view.do?seq=134353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

주아세안 대표부. “아세안 동향 (3.27-4.7).” 『주간 아세안 동향』. 2017. 4.7. <[http://overseas.mofa.go.kr/asean-ko/brd/m\\_21543/view.do?seq=129439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9](http://overseas.mofa.go.kr/asean-ko/brd/m_21543/view.do?seq=129439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9)>.

Dolgormaa, Lkhagvadorj. “몽-중, 몽-러 경제교류 현황.”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전문가 회의 결과. 2019.01.09.) <<http://m.kiep.go.kr/m/sub/view.do?bbsId=expertMeeRslt&nttId=202547&pageIndex=1>>.

Gabuev, Alexander. “Friends with Benefits? Russian-Chinese Relations After the Ukraine Crisis.” *Carnegie Moscow Center*. 2016.6.29. <<https://carnegie.ru/2016/06/29/friends-with-benefits-russian-chinese-relations-after-ukraine-crisis-pub-63953>>.

Hamilton, Alex. “BRICS Nations Aiming for Common Payment System.” FinTech Futures. 2019.11.20. <<https://www.fintechfutures.com/2019/11/brics-nations-aiming-for-common-payment-system/>>.

Urchik, Daniel. “What We Learned from Peace Mission 2018.” Small Wars Journal. 2018.3.10. <<https://smallwarsjournal.com/jrnl/art/what-we-learned-peace-mission-2018>>.

渡部悦和. “中国とロシアの同盟は難しい しかし中口のハイテク・パートナーシップは深化.” 日本安全保障戦略研究所(SSRI). 2019.11.06. <<http://www.ssri-j.com/SSRC/watanabe/watanabe-6-20191108.pdf>>.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 2018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외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진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운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 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상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	----------------------	-------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종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을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창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Park, Juhwa

## 2020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서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 번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변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욱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이해정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5,0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부록 1: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부록 2: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상협력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2020-27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2	홍 민 외	13,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 〈Study Series〉

-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 KINU Insight

-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 2020-03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 북한인권백서

-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 기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중·러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